

기술 적용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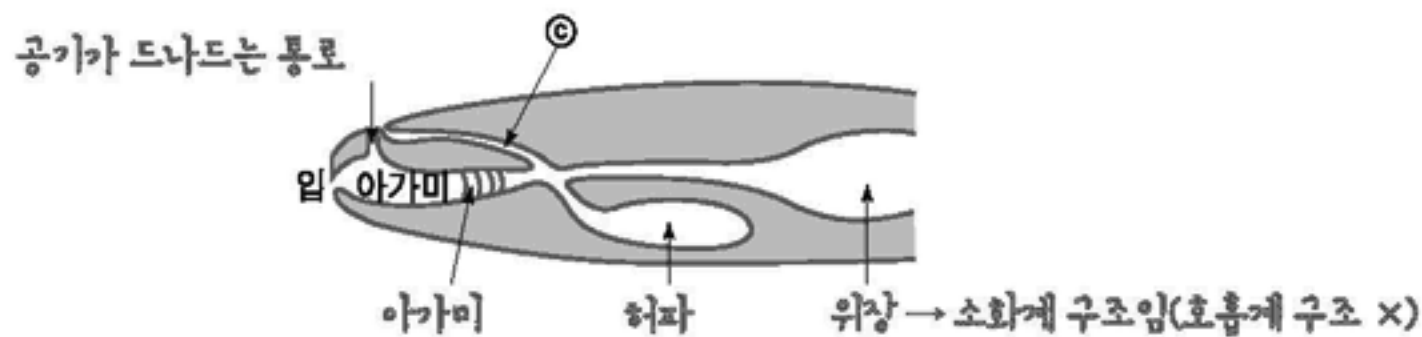
01 ②	02 ②	03 ④	04 ②	05 ⑤	06 ⑤	07 ⑤	08 ③
09 ⑤	10 ①	11 ③	12 ③				

01 다음 글에 따라, '폐어 단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호흡계 구조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수능 시험장에서는 풀지 못했던 문제인데 끝나고 채점할 때는 쉽게 답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당해 보면 정말 미쳐 버릴 것 같은 느낌이야.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긴장하는 바람에 정답을 가리키는 표지(sign)를 놓쳐서 그래. 특히 발문에 제시된 정답의 기준을 놓치면 아무리 문제를 봐도 정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바로 이 문제가 많은 수험생들에게 그랬어. 발문을 대충 읽어서 “‘폐어 단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찾으려면 선지에 정답이 없어. 또 다른 정답의 기준인 ‘호흡계 구조’를 놓쳤기 때문이야.

그 허파는 위장으로 이어지는 식도 아래쪽으로 뻗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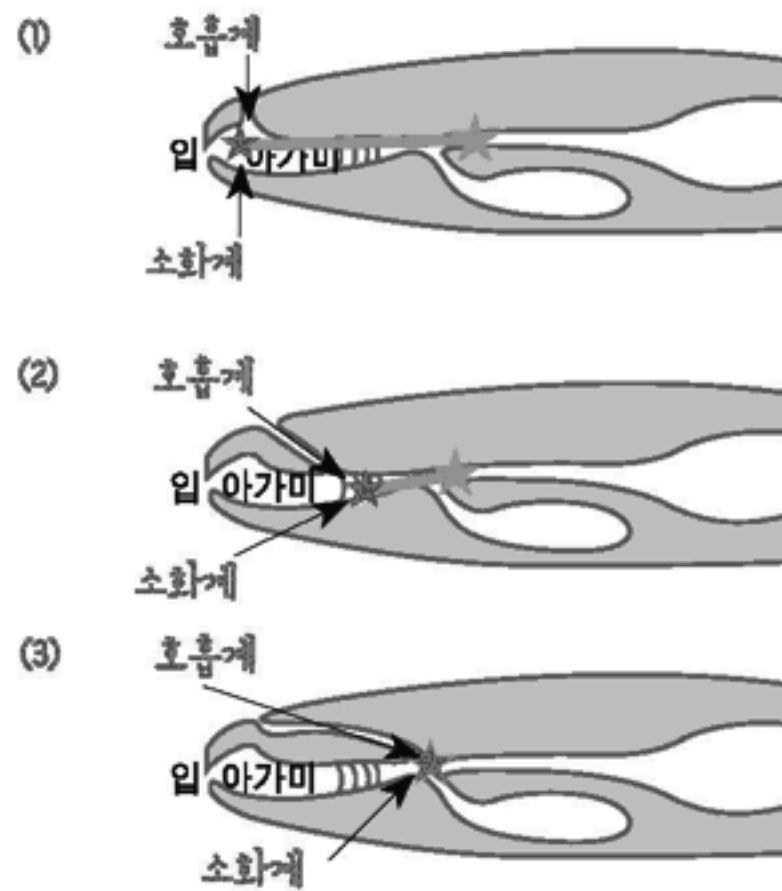
위로부터 ④=허파, ⑤=위장임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위장(⑤)은 폐어 단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호흡계 구조가 아니지? 소화계 구조니까. 따라서 ⑤가 들어간 선지는 무조건 정답이 아니야. 매우 쉽지? 하지만 정답의 기준이 2개 이상인데 하나라도 놓친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



정답은 찾았는데 그렇다면 ⑤는 뭘까? 지문의 두 번째 문단을 주의 깊게 읽어야 그 뜻을 파악할 수 있어. 다음 두 문장에 담긴 깊이를 헤아려 보자.

이후 진화 과정이 거듭되면서 호흡계와 소화계가 접하는 지점(★)이 콧구멍 바로 아래(1)로부터(2) 목 깊숙한 곳(3)으로 이동하였다.

처음에는 길게 이어져 있던 호흡계와 소화계의 겹친 부위(1)가 점차 짧아졌고(2), 마침내 하나의 교차점으로만(3) 남게 된 것이다.



아, ㉔는 폐어 단계에 거듭된 진화 과정 중에 ㉓가 사라지면서(이동하면서) 나타나는 구조였구나. 따라서 ㉔도 폐어 단계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호흡계 구조네.

덧글 이 지문의 출전은 R 네스 등 저, 최재천 역,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사이언스북스)야. 그 책에 있는 그림이 수능에까지 실렸지. 인간 질병과 진화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상당히 흥미로워.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읽어 보길 바라. (물론 수능에 이 책의 다른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답 | ㉔

02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 의도이다.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문에 제시된 정답의 기준이 뭐지? <보기>의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이야. 따라서 윗글이 없어도 <보기>의 기획 의도를 기준으로 선지를 판단하면 되겠다! <<보기> 문제류는 PATTERN 7 '문학 <보기>'에서 다양하게 배워!

<보기>

죽은 이와의 사랑은 다소 생소한 소재이지만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 한다. 때로는 비현실적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현실에서 소외된 양생은 절박한 외로움 때문에 현실 너머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었다.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양생의 사랑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다.

② 외로웠던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부각하여, 시청자들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겠군.

<보기>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

① 둘의 사랑이 시청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서게 하면 좋겠어.

③ 현실을 잊게 해야겠군.

〈보기〉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 한다. 때로는 비현실적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④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에 맞출 필요가 있겠군.

⑤ 비현실적인 요소는 줄여야 하는 것이 좋겠어.

답 | ②

03 [D]는 작품 창작의 동기를 작품에 직접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D]와 성격이 유사한 것은?

정답의 기준은 '[D]와 성격이 유사한 것'이야. 그런데 친절하게도 출제자는 '[D]의 성격'을 발문에 밝혀 줬어. 따라서 〈보기〉에서 작품 창작의 동기를 작품에 직접 드러내는 부분을 찾으려면 그만이지.

— [보기] —

음중: 옳지. 그럼 우리 여기 모인 양반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받게(=동기) 제대로 놀아 보자.
..... ④

답 | ④

04 다음은 (다)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작품 자체의 내재적 의미만을 주목한 것은?

수능 초창기 문제인데 발문이 끝내줘. 자세히 보면 감상의 내용이 적절한지가 정답의 기준이 아니야. 발문은 '내재적 의미만을 주목'했으면 정답이라고 선언했어. 이 말은 외재적 감상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답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②가 정답이야. 내재적 의미만을 주목했거든. 나머지는 외재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어.

① 하긴 세상이 험하다 보니(반영론적 관점)

③ 이 시는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작품이야.(효용론적 관점)

④ 이 시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좀 든 사람이 지은 것 같아.(표현론적 관점)

⑤ 이 시를 쓴 사람은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직업이 그런 쪽일 거야.(표현론적 관점)

그런데 사실 ②는 시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감상이야. 시에서 '별'은 긍정적(흐름상 시적 화자가 노래하는 대상), '바람'은 부정적(흐름상 시적 화자를 괴롭게 하는 대상)이야. 이 둘이 만나는 것을 '참 멋있다', '두 세계가 만나는 경지'라고 감상하는 건 이상해. 그럼에도 ②가 정답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발문 때문이야!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기억해 뒤. 또 나올 수 있어.

답 | ②

㉠ 강(江)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南道) 삼백 리(三百里)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_박목월, 〈나그네〉

- ① 종환: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쓴 작품이래. 그런데 농촌이 수탈된 마당에 술 익는 마을이 어디 있었겠어?
- ② 민화: 그건 조금 지나친 지적 같아. 그 당시 시인은 아마 생활이 어려웠을 거야. 나그네처럼 먼 길을 힘들게 건다가 노을이 찾아오고, 술도 한 잔 하고 싶고, 그 허무한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닐까?
- ③ 인규: 술과 노을이라……. 그거 이미지가 썩 잘 어울리는데. 밀밭 길이 주는 느낌과도 통하면서.
- ④ 석현: 그래도 그렇지. 외줄기 길이 삼백 리나 이어지는 게 어디 있어? 구름에 달이 간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
- ⑤ 정인: 그런 걸 상상이라 하는 거야. 그나저나 나도 이 시의 나그네처럼 여행이나 떠났으면 좋겠다.

❶ 풀이 답은 ③이라는 게 쉽게 보이지? ^^ '인규'는 고등학생일 텐데, 벌써 술의 멋과 맛을 아나 봐. 허허.

① 종환: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쓴 작품이래. (반영론적 관점)

② 민화: 시인은 아마 생활이 어려웠을 거야. (표현론적 관점)

④ 석현: 그래도 그렇지. 외줄기 길이 삼백 리나 이어지는 게 어디 있어? (반영론적 관점: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의미야. ㅋ)

⑤ 정인: 나도 이 시의 나그네처럼 여행이나 떠났으면 좋겠다. (호용론적 관점)

답 | ③

아래 내용은 사회탐구 과목에 대한 평가원의 답변을 검토하다가 발견한 거야. 국어영역에서도 ‘-만을 고려’하라는 발문이 왕왕 등장하는데, 가볍게 참고하길 바라! (굵은 글씨는 내가 한 거야)

본 문항은 가족 제도의 변화에 관련된 여러 요인 가운데 (가)와 (나)에 제시된 요인만을 고려하여 주어진 자료에서 각 요인의 영향을 분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문두에서 ‘(가), (나)만을 고려’하라고 한 것은 (가)와 (나)에 **진술된 내용 외의 요인들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05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단어의 구성이 ㉠와 같은 것은?

이 문제는 실제 시험지에서 27번으로 제시됐고, 그래서인지(?) 정답률도 27%를 기록했어. 어마무시(어마어마+무시무시)하게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틀린 걸까 궁금했는데 ㉠을 고른 학생들이 57%나 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

㉠을 선택한 학생들의 사고는 아마 아래와 같을 거야.

“믿다 + -음 = 믿음”, “기쁘다 + -음 = 기쁨”

오호~! 둘 다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이 나왔고, 두 글자니까 모습이 완전 똑같네. 아싸~! 거저 먹는 문제구나~.

너도 이런 식으로 풀지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고 나면 채점할 때 괜히 안구가 축축해진단 말이지…….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발문을 오독(誤讀)^{잘못 읽거나 틀리게 읽음}한 거야. ‘단어의 모습이 ㉠와 같은 것은?’ 이렇게 대충 읽었으니 정답이 보일 리가 있나. 발문을 다시 읽어 봐. 정답의 기준은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야. 앞의 풀이는 <보기>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으니 애시당초 잘못된 풀이었어.

<보기>를 살펴보자.

(보기)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말이다. 어근에는 여러 가지 품사의 말이 쓰일 수 있다. 가령 ‘가위질’은 접미사 ‘-질’이 명사 어근 ‘가위’에 붙은 말이고, ‘헛디디다’는 접두사 ‘헛-’이 동사 어근 ‘디디-’에, ‘새까맣다’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까맣-’에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이렇게 보니 감이 좀 와? <보기>는 어근에 쓰이는 품사별로 파생어를 구분하고 있어. 그리고 ㉠의 어근은 동사야. 이를 바탕으로 정답의 기준이 잘 보이게 발문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아.

어근에는 여러 가지 품사의 말이 쓰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와 같이 어근으로 동사가 쓰인 단어는?

그래서 선지 중에 동사 어근이 쓰인 ⑤가 답이야. 참고로 ①, ②는 형용사 어근, ③은 명사 어근, ④는 부사 어근이 쓰였어. 동사와 형용사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보물 상자’에 써 있으니 참고하고.

답 | ⑤

06 <보기>에 제시된 문장의 중의성(重義性)을 []의 뜻에 맞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문에 제시된 정답의 기준이 2개야. ‘중의성을 해소’해야 하고, 그 해소된 결과가 ‘[]의 뜻에 맞게’ 되어야 해. <보기>의 ㉠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 (1) 철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만났다. [철수를 안 만났음.]
- (2) 철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만났다. [철수를 만났음.]

그런데 ⑤의 방법은 ㉠의 중의성은 해소하지만 [철수를 만났음.]의 뜻에 맞지 않아. 따라서 ⑤가 정답! 만약 적절하게 고치려면 ‘나는 어제 철수만 만난 것은 아니다.’, ‘나는 어제 철수만 만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바꿔야지.

💡 문제에는 안 나왔지만 재미있는 중의성 유형을 하나 더 소개할게.
‘이해황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도 중의성이 있어.

- (1) 이해황이 ‘누구나’를 좋아하는 경우
 - (2) ‘누구나’가 이해황을 좋아하는 경우
- 주체와 대상 간의 좋아하는 방향이 180도 다르지? ㅋ

답 | ⑤

07 <보기>의 우화를 바꿔 쓰기 위해 토의해 보았다. 사고 방향에 따른 바꿔 쓰기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출제 기관에서 답변한 게 있는데 먼저 읽어 보자. (굵은 글씨는 내가 한 거야~)

🎤 평가원의 답변 ①

여기서 말하는 ‘바꿔 쓰기의 내용으로 적절한’이란 변형되거나 생성된 내용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방향에 따른’이라는 조건에 맞게 각각의 활동이 수행되었느냐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재적 의미만을 주목’했냐고 물었던 04번 문제와 출제 의도가 같아!
이 문제는 선지의 구조가 재미있는데 역시 출제자의 답변을 참고하자.

평가원의 답변 ②

각 선지는 모두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편의상 각각 A와 B로 칭한다면, 앞 문장 A는 바꿔 쓰기를 하기 위한 **사고 방향을**, 뒤 문장 B는 사고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수행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에 제시된 조건과 B에 진술된 수행 내용 사이의 정합성이 바로 발문에서 요구하는 적절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A의 조건이 없거나 이를 간과한다면 B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발상은 다른 문제로 또 출제된 적이 있으니 발문과 비교해서 꼭 기억해 두자.
서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쓴 대강의 서론적인 해설이 길었어. 바로 문제를 보자.

①은 <보기>의 서술자가 3인칭인데, 이를 갈대의 1인칭으로 표현하겠다고 한 거니 적절해.

②는 앞에서 배웠던 ‘대칭성’ 사고야. <보기>에서 갈대는 긍정적인 면만, 참나무는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됐어. 대칭성을 생각하면 갈대의 부정적인 면과 참나무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할 수 있어야겠지? 참고로 선지의 ‘다른 관점’, ‘비판적인 관점’은 좋게 평가된 것은 나쁘게 평가하고, 반대로 나쁘게 평가된 것은 좋게 평가하는 것을 말해. 이에 대해서는 <국어의 기술 2>의 PATTERN 16 ‘비판과 반론’에서 심층적으로 공부해.

③의 ‘적용’은 출제자에게 ‘대응’과 같은 말이야.

참나무 → 자신의 재주를 내세우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물

갈대 → 유연한 자세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물

<보기>를 보면 이렇게 대응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이 되는 일되지? 이런 것을 ‘유추’라고도 불러. 자세한 건 PATTERN 9 ‘유비 추론’에서 배울 거야.

④를 통해 출제자는 장면의 구체적 서술 방법이 뭔지 가르쳐 주고 있어. ‘대화’와 ‘묘사’가 그 방법이지!

⑤는 참나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뒤집어서 긍정적으로 표현했으니 주제를 강조한 게 아니야. ②처럼 ‘다른 관점 / 비판적 관점’으로 바꾸겠다고 표현해야지. 따라서 이게 정답!

답 | ⑤

08

꽤 어려웠던 문제야. 특히 처음 보는 유형의 발문(즉, 신유형!)이라 당황한 학생들이 많았어.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안 잡혔거든. 너도 그랬어? (안 그랬길 바라) 어차피 푸는 방법은 똑같아. 발문에서 정답의 기준을 찾을 것! 발문을 보면 정답을 찾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를 알아야 해.

(1) (나)의 ㉔에 나타난 화자와 대상의 관계는 무엇인가?

(2) (다)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나)의 ㉔와 가장 가까운 부분은 어디인가?

먼저 (나)의 ㉔를 보자. 화자는 '나'고, 대상은 '별'이야. 떠들썩한 별과 홀로 있는 '나'는 어떤 관계일까? 바로 대답을 못하겠다면 현대판으로 바꿔 보자. '클럽 오면 클럽이 들썩 클럽 음악 소리 속에 나 홀로'. 너무 대학생 버전인가? 고등학생 버전으로는 '학교 오면 학교가 들썩 친구들 이야기 속에 나 홀로'쯤 되겠다. 즉, 서로 대조 관계야. 이 정도 파악했으니 두 번째 질문에 답해 보자.

<1장>은 '대상'이라고 할 게 없어서 정답에서 진작 탈락.

<2장>의 대상은 '술'인데 이는 화자의 처지를 대변하는 거라 할 수 있어.

<3장>은 날아다니는 '제비'를 보며 귀양살이하는 화자가 한숨지으니 대조 관계.

<5장>의 대상은 '명월'인데 화자는 이를 벗으로 인식하고 있어.

<6장>의 대상은 '매화'와 '호접'으로 볼 수 있는데, '매화'는 귀양살이하는 화자를 대변하고, '호접'은 매화 향기를 느끼게 해 주고 싶은 대상, 즉 임금으로 볼 수 있어. 역시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가 대조적인 건 아니야.

따라서 정답은 ③이야! 신유형이라도 정답의 기준을 따라가면 능히 풀 수 있어! 답! ③

09

이 문제를 최악으로 푸는 방법(동시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푸는 방법)은 선지에 나온 ㉠~㉡의 단어 뜻과 자신이 알고 있는 뜻을 비교해 보는 거야. 혹시 너도 그렇게 풀었어? 그랬다면 발문도 제대로 안 읽고 삼각형 개수를 센 거랑 같아.

발문을 다시 읽어 봐. 단어의 뜻이 적절하냐고 물었어? 아니야. '단어 의미 추리 전략'과 '적용한 실제'의 연결, 연결이 적절한지 물었어! 그래서 정말 쉽게 답은 ⑤야.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뜻을 다 알고 있으니까. ⑤는 '한자어인 경우 자신의 한자 지식을 활용한다.'와 연결되는 게 적절하지. 답! ⑤

너무 치사하게 느껴져?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내가 치사하다면 딱 출제자만큼 치사한 거야. 문제를 하나 소개할게.

〔보기〕

㉠ ‘저희들’이나 ㉡ ‘너희들’은 ‘-희’가 복수성을 가지고 있어 ‘저희’, ‘너희’만으로 복수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다 다시 ‘-들’을 붙여 ‘저희들’, ‘너희들’처럼 앞말의 일부를 중복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 ① 뺏골 ② 외갓집 ③ 씹씹이 ④ 단웃날 ⑤ 교차로

❶ 풀이 ‘앞말의 일부를 중복’한다고 했지? 답은 ②야.

①은 적절하지 않아. 앞말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중복했기 때문이야.

(비록 한 글자라고 해도) 그리고 ‘뺏골’은 의미 자체도 ‘뼈’가 아니라 ‘골수’를 의미하고.

너희들
외갓집
↳ 집 가(家)
뺏골
↳ 뼈 골(骨)

답 | ②

10 이 문제는 해설이 좀 까다로워. 그래서 다루지 않는 책이나 강의가 많아. 실제로 이 문제를 엉터리로 해설하거나, 더 나아가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어. 발문을 제대로 읽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야. 정답의 기준이 두 가지인데 둘 다 만만치 않아. 심호흡 한번 하고 내 설명을 들어 봐.

(1) 〈보기〉의 설명을 참고: 〈보기〉를 보면 대칭성을 발견할 수 있어. [인용 발화 ↔ 일반 발화] 이렇게. 그리고 ‘일반 발화도 인용 발화의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인용 발화와 일반 발화가 겹으로 보기에 같은 형식일 때가 있다는 거야.

(2) 인용 발화로는 보기 어려운 것: 단순히 ‘인용 발화가 아닌 것은?’이라고 물은 게 아니지? ‘아무리 봐도, 어떤 경우든 간에 인용 발화로는 보기 어려운 것?’ 이런 느낌을 읽어 낼 수 있어야 해. 〈보기〉의 대칭성을 고려해서 발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아.

인용 발화로는 보기 어려운 것은? = 일반 발화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생각하고 선지를 살펴보자. 선지들을 힐끔 보니 전부 ‘-답니다’로 끝나네? 이게 〈보기〉에서 말한 ‘특수한 형식’이었나 봐.

①은 일반 발화야. 다른 사람의 말을 남에게 전달하는 인용 발화라고 볼 수 없어. ‘지금’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반면 ②, ③, ④, ⑤는 문맥에 따라 일반 발화일 수도 있고, 인용 발화일 수도 있어. ④를

특히 헛갈려하니 ④를 기준으로 설명할게. 만약 ④의 맥락이 자신의 개구쟁이 시절을 회상하는 거라면 일반 발화야. 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의 일이라 자신이 개구쟁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님 등에게 자신이 개구쟁이었다고 듣고 이를 남에게 전달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인용 발화야. 이처럼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맥락이 없는 선지만 보고는 어떤 발화인지 단정할 수 없어.

이제 답이 왜 ①인지 알겠어? 다른 선지는 인용 발화로 볼 수(가능성) 있지만, ①은 어떤 맥락에서건 인용 발화로 볼 수 없으니까! 이해가 됐으려나……. 이해했는지 한 번 알아보자. 제대로 이해했다면 단박에 답을 말할 수 있을 거야. 만약 문제의 선지는 그대로인데 발문이 다음과 같았다면 정답이 몇 개일지 답해 봐.

1.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인용 발화가 아닐 수 있는 것은?

2.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일반 발화가 아닐 수 있는 것은?

1의 답은 5개야. ①은 100%의 가능성으로 인용 발화가 아닌 거고, 나머지는 맥락에 따라 일반 발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2의 답은 4개야. ①은 100% 일반 발화이고, 나머지는 맥락에 따라 인용 발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 감각이 있다면 알아챘겠지만, 인용 발화인 경우 ‘-답니다’를 ‘-다고 합니다’로 풀어 쓸 수 있어. 일반 발화인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고

답 | ①

복습의 차원에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자.

예제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문항 복수 응답 가능)



<국어의 기술> 저자 이해황

1. 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복수 응답 가능)

- ① 이해황은 왼손으로 V를 그리고 있다.
- ② 이해황은 입을 다물고 있다.
- ③ 이해황을 빨간 내복을 입고 있다.

2. 위 그림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복수 응답 가능)

- ① 이해황은 왼손으로 V를 그리고 있다.
- ② 이해황은 입을 다물고 있다.
- ③ 이해황을 빨간 내복을 입고 있다.

❖ 풀이 각 발문에 따라 답이 될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아.

- 1. 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O(①)
- 2. 위 그림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X(②), ?(③)

💡 O, X, ?에 대해서 모르면 기술 소개 22페이지를 다시 읽어 보!

11 과학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발문영역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자. 정답의 기준이 뭐지? (가)에서 사용되는 기구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어. 그러면 (가)를 보며 필요한 기구를 찾아 골라내면 되겠다.

{ 보기 }

(가) 삼각 플라스크(어, ②번 있어야겠네)에 p-아미노페놀 5g(어, 그램(㉠)을 측정하려면 ⑤가 있어야겠다)과 아세트산 무수물 20mL(액체 부피를 재려면 ④가 있어야겠고)를 넣고, 물중탕으로 가열(가열하려면 ①이 있어야지)한다.

남는 건 ③밖에 없네? 너무 쉽다, 그치? 그런데 웃긴 건 이 문제의 오답률이 60% 정도였어. 왜 그랬는지 알아? 이 문제, 당시 신유형이었거든……. 낯선 문제만 보면 당황해서 틀린 거야. 그냥 발문을 읽고 풀면 되는데!!!

답 | ③

이 문제는 발문에서 정답의 기준을 2개 제시했어.

1)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

선지는 이런 정답의 기준에 맞춰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즉, 선지의 첫 번째 문장은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이고, 두 번째 문장은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이야.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
학생1	이트륨을 포함한 화합물을 사용한 TV 스크린 제품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비교할 때 실제 에너지 절약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학생2	네오디뮴을 포함한 화합물 중에서 강한 자성을 갖는 것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네오디뮴이 포함된, 강한 자성을 갖는 화합물을 활용한 다른 제품 사례는 없나요?
학생3	2010년을 기준으로 이후 25년간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10년 이전의 희토류 생산량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학생4	광석에서 희토류를 분리하여 정제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생산 기술을 아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학생5	2050년에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자료를 소개하였습니다.	미래의 희토류 수요량을 예측한 다른 연구 자료는 없나요?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 부분에 제시된 내용은 지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부분은 지문에서 찾을 수 없어야 해. 이게 이 문제의 구조야.

1)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 지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함

2)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 = 지문에서 찾을 수 없어야 함

이런 기준으로 선지를 살펴보면 학생 3은 두 기준 모두 만족시키지 못했어.

1)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 지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함

지문에는 “2010년을 기준으로 이후 25년간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없어.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라는 부분 있지 않냐고? 이걸 ‘수요량’에 대한 것일 뿐이야.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없어. 즉, 학생 3의 첫 문장은 지문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라서 적절하지 않아.

2)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 = 지문에서 찾을 수 없어야 함

지문에는 “2010년 이전의 희토류 생산량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희토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써 있잖아. 따라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이 아니야. 즉, 학생 3의 두 번째 문장은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적절하지 않아. 시범 보이기 02번 문제와 사실상 같은 문제지? ⇨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이라는 것은 ‘발표 내용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바뀌도 똑같다는 거야. 시범 보이기 02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지문에서 뻔히 찾을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한 거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답 | ③**

01

지문에 반복 출현되는 어구는 핵심어일 가능성이 높아. 여기서는 ‘법적인 평등권’이 표현을 달리해 가며 반복 출현됐어.

- ㉠ 프랑스 시민 혁명 후에 나온 인권 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법적인 평등권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남성에게만 주어졌을 뿐이다. 시민 혁명에 동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신분이 낮은 남성에게는 법적인 평등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프랑스 혁명 발발 2년 후인 1791년 올랭프 드 구즈를 중심으로 자유와 평등,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 선언’이 발표되었고, 1792년 영국에서는 월스톤 크라프트가 여권 옹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 ㉡ 여성의 평등권에 대한 주장과 요구는 19세기에 그대로 이어졌으나 여성이 법적인 시민권, 곧 보통 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20세기 초의 일이다. 그 후 한동안 침체했던 여성 운동은 1960년대부터 다시 활성화되어 성 역할의 개선, 교육과 고용의 평등, 가사 노동의 가치 인정 등 여성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법률적 보장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 취업은 양적으로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상승되었다.

독해력 향상을 위한 반복 출현은 <독해력 강화 도구 3가지>에서 더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선지를 살펴보자.

- ㉠ 프랑스 시민 혁명 후에 나온 인권 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법적인 평등권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남성에게만 주어졌을 뿐이다.

- ⑤ 프랑스 혁명 직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이 보장되었다.

지문 내의 반복 출현 [법적인 평등권 = 시민권]을 선지에서 그대로 가져다 썼어. 독해력이 곧 문제풀이력으로 직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 ㉡ 여성의 평등권에 대한 주장과 요구는 19세기에 그대로 이어졌으나 여성이 법적인 시민권, 곧 보통 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20세기 초의 일이다.

- ② 20세기 이전까지는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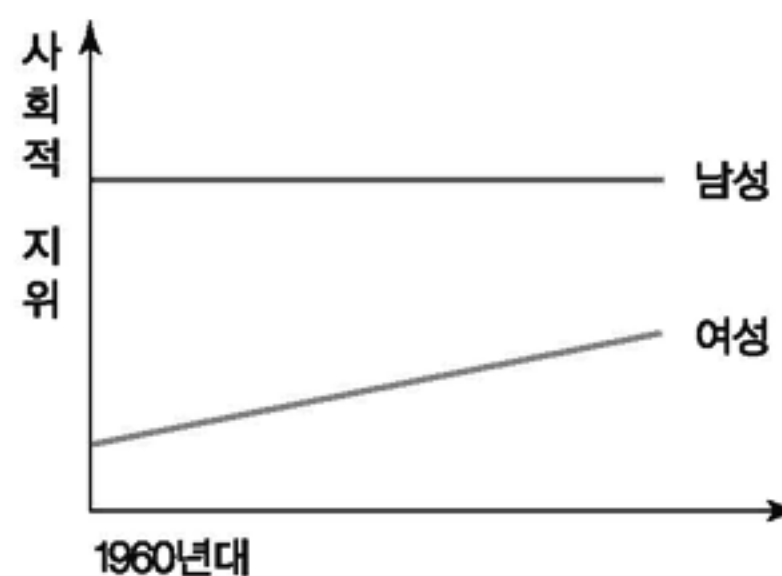
같은 내용을 다르게 진술한 것일 뿐이야. [대학교에 와서야 여자 친구가 처음 생겼다. = 대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여자 친구가 없었다.] 뭐 이런 슬픈 이야기 같은 거지.



㉠ 여성의 평등권에 대한 주장과 요구는 19세기에 그대로 이어졌으나 여성이 법적인 시민권, 곧 보통 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20세기 초의 일이다. 그 후 한동안 침체했던 여성 운동은 1960년대부터 다시 활성화되어 성 역할의 개선, 교육과 고용의 평등, 가사 노동의 가치 인정 등 여성의 자율과 평등에 관한 법률적 보장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 취업은 양적으로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상승되었다.

① 1960년대 이후에 남녀 간의 사회적 지위는 대등해졌다.

속으면 안 돼.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다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상승'을 '대등'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 오히려 다음 그림과 같이 생각하는 게 현명하지.



답 | ㉠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비로운 현상으로 여겨 왔던 꿈의 '진단' 능력에 대해서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해졌다. 꿈속에서는 모든 감각이 크게 과장되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이상 증상이 깨어 있을 때보다 더 빨리, 더 분명하게 감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꿈의 과장성' 역시 외부 세계로 향하던 정신적 에너지가 자아로 되돌려지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감지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③ 꿈을 통해 신체적 이상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⑤ 꿈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구체화하여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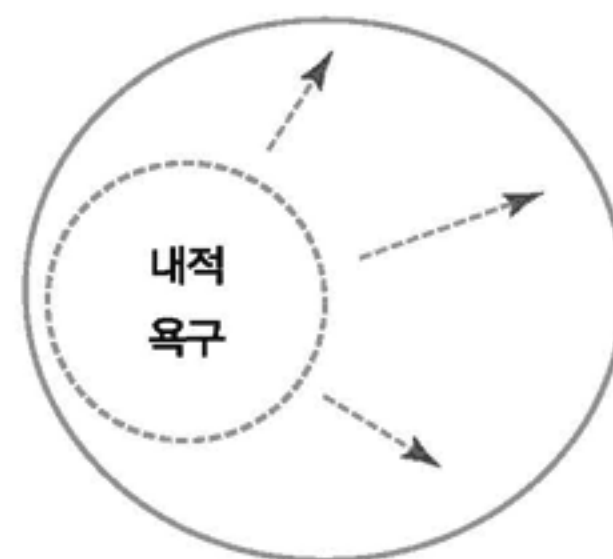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꿈이 인간의 내면세계를 외면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를 '투사(投射, projection)'라고 하는데, 우리는 꿈속에서 평소에는 억누르고 있던 내적 욕구나 콤플렉스(강박 관념)를 민감하게 느끼고, 투사를 통해 그것을 외적인 형태로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죽은 동료의 꿈을 꾸는 경우, 이는 그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그러나 깨어 있을 때는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책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잠잘 때는 깨어 있을 때보다 내적 욕구가 더 강해진다.

내적 욕구를 민감하게 느낀다.



내적 욕구가 더 강해진다.



답 | ④

03

선지 ③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 '지문-〈보기〉-선지 ③'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지?

콜링우드에 따르면, 언어가 한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수단인듯이 예술은 한 개인의 감정을 정리하는 수단이다. <중략>

우리는 자기 나름의 적절한 예술적 방식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정리되었으면 굳이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예술은 그 소임을 충분히 완성한 것이다.

(보기)

불면의 밤을 보내며 완성한 시를 아침 해를 바라보며 불태워 버려도 좋다.

③ 혼란한 감정을 시를 통해 정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답 | ③

04

존중의 문화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현대 사회는 소박한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들의 안락하지만 황량한 요양소가 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③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연민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가지각색이지만, 다수의 학자들에 따르면 연민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생긴다.

⑤ 연민은 동양과 서양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① 사회가 위험해지면 연민은 많아진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연민은 생길 수 있으며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둘째, 행복과 불행이 과거보다 사람들의 관계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친밀성은 줄었지만 사회·경제적 관계가 훨씬 촘촘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현대인은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불행까지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간접 경험에서 연민을 갖기가 어렵다고 치더라도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연민의 필요성이 커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연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그만큼 가치도 높다.

④ 연민은 가까운 사람에게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안전지대인 성 안에서 가진 것의 일부를 성벽 너머로 던져 주며 자족하는 동정도 가치 있는 연민이다. 그러나 진정한 연민은 벽을 무너뜨리며 연대하는 것이다.

② 동정으로 끝나는 연민도 가치가 있다.

이 문제는 정답률 3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어. 거의 다 찍었다는 이야기지. ①이 틀렸어. 이유는 세 가지야. 첫째, 지문에는 위험이 도사림, 사람들의 관계에 더욱 의존, 교통과 통신 발달 등으로 연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을 뿐, ①처럼 ‘~ 위험해지면 ~ 많아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어. 둘째, 연민이 ‘생긴다’를 ‘많아진다’로 연결할 수 없어. 여자 친구가 생기는 것과 여자 친구가 많아지는 게 다르듯이.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 근거야) ①이 적절하다면 현대 사회는 이미 연민이 많아야 해. 하지만 지문을 보면 현대 사회에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만, ‘연민을 갖기는 쉽지 않다’,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라고 표현되어 있어.

답 | ①

| 05~06 | 지문 분석

지문의 흐름을 짚어 줄게.

[1문단] ‘두더지’라는 구체적 사례로 시작해서 ‘합성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끝났어. 이 뒤로 합성어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지?

[2문단] ‘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1문단과 이어지는 흐름을 고려하면 이는 ‘합성어’와 관련이 있을 거라 예측할 수 있어.

[3문단] 1~2문단과 연결 지어 통사적 합성어의 개념과 사례를 제시했어.

[4문단] 3문단과 반대되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과 사례를 제시했어.

[5문단] ‘두더지’와 ‘숫돌’은 비통사적 합성어였지만 이제는 합성어였음을 알기 어렵다고 했어.

글 전체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 두더지? 너무 좁아. 합성어? 너무 넓어. 통사적 합성어? 땡~! 비통사적 합성어가 글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야. 왜냐하면 1, 2문단의 ‘두더지’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사례였고, 3문단에서 통사적 합성어를 설명한 건 비통사적 합성어를 말하기 위함이었어. 4문단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를 설명했고, 5문단은 비통사적 합성어였던 ‘두더지’와 ‘숫돌’이 언어 변화로 인해 합성어였음을 알기 어렵다고 했어. 어때, 비통사적 합성어로 모든 문단을 꿰뚫을 수 있지?

05

①은 단일어와 합성어가 바뀌치기되었기 때문에 틀렸어! ②는 '결합되는 단어의 수'가 아니라 '구를 만드는 방법'으로 바뀌야 해. ③은 통사적 합성어에만 해당되는 말이지. 비통사적 합성어에는 적용되지 않아. ④는 용언의 품사 변화가 아니라 용언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틀렸어.

⑤는 마지막 문단이 일반화되어 반복 출현한 것이므로 적절해. 출제자가 곧잘 이용하는 방식이니 잘 알아 뒀.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두더지>두더지'의 어형 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숫돌' 또한 본래 용언 '숫다'(비비다)의 어간에 체언 '돌'이 직접 결합해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숫>숫'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동사 '숫다'의 소멸로 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⑤ 언어 변화는 단어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답 | ⑤

06

당시 오답률 1위였던 문제야. 용언, 관형사형, 체언 등의 문법 용어도 한몫했어. 이런 건 이 책에서 하나하나 배워 나갈 거야. 하지만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 몰라도 돼. 눈치(!) 하나면 충분하거든. '비교'만 잘하면 돼. ('비교'에 대해서는 PATTERN 5 '비교'에서 심층적으로 공부할 거야~)

①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 '호두과자'

'체언'이 뭔지 모른다면 아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 '결합'이라는 단어는 알지? '호두과자'는 '호두+과자'가 결합한 거고, ①의 '가락연필'도 '가락+연필'이 결합한 거야.

□△	=	□	+	△
㉠ 호두과자	=	호두	+	과자
① 가락연필	=	가락	+	연필

따라서 둘 다 같은 방법으로 결합했네.

②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한 ㉡ '된장'

'용언', '관형사형' 몰라도 좋아. 역시 결합에 주목하자.

□△	=	□(다)	+	ㄴ	+	△
㉞ 된장	=	되(다)	+	ㄴ	+	장
㉡ 뻘뻘한연필	=	뻘뻘하(다)	+	ㄴ	+	연필

보니까 앞말에서 ‘-다’가 빠지고, ‘ㄴ’이 붙어서 뒷말과 결합했지? 역시 둘 다 같은 방법으로 결합!

③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 ‘오르내리다’

‘용언’, ‘어간’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 정신만 똑바로 차려. 틀 안의 요소가 대응되는지 확인해야 돼!

□△	=	□(다)	+	어	+	△
㉢ 오르내리다	=	오르(다)	+	×	+	내리다
㉢ 일어갈무리하다	=	일(다)	+	어	+	갈무리하다

어라! 결합 방식이 다르네? 따라서 이게 정답!

④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 ‘밟상’

□△	=	□(다)	+	△
㉣ 밟상	=	밟(다)	+	상
㉣ 부드럽국수	=	부드럽(다)	+	국수

앞말에서 ‘-다’가 빠지고, 바로 뒷말이 결합했지? 둘 다 같은 방법으로 결합!

⑤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인 ‘어둑’에 체언이 결합한 ㉤ ‘어둑새벽’

□△	=	□(다)	+	△
㉤ 어둑새벽	=	어둑(하다)	+	새벽
㉤ 새콤달콤국수	=	새콤달콤(하다)	+	국수

앞말에서 ‘-하다’가 빠지고 바로 뒷말과 결합했어. 둘 다 같은 방법으로 결합!

문법 지식이 없기에 더욱 단순 과격 무식하게 비교해 봤어. 봤다시피 미친듯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시험장에서 이런 사고를 차분하게 진행시킬 수 있느냐가 어려울 뿐이지. 이런 능력은 나랑 이 책을 통해 꾸준히 학습해 나갈 테니 믿고 따라와! 답 | ③

이 문항은 오답률이 78%였어.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는데, 놀랄 만큼 쉬운 문제야.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앞의 내용이 ‘이처럼’ 이후 반복 출현하고 있어. 이때 ‘회사의 대표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표현이 바뀌었지? 즉, [회사의 대표 이사 =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거야. 정확하게 ①과 일치해!

[심화] 이 문항은 <국어의 기술 2> PATTERN 15 ‘전제’로 풀 수도 있어. 뒤에서 배울 내용인데, 미리 설명할게. (이게 좀 더 엄밀한 해설이거든)

‘A이면 B이다. 따라서 A이면 C이다.’에는 ‘B이면 C이다.’라는 전제가 생략되어 있어. 이를 간략히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아.

전제 : A → B

결론 : A → C

생략된 전제 : B → C

지문을 위와 같은 구조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아.

전제 : 일인 주주 → 회사의 대표 이사

결론 : 일인 주주 →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

생략된 전제 : 회사의 대표 이사 →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

즉, 선지 ①은 생략된 전제에 해당해. 나중에 <국어의 기술 2>를 끝까지 공부한 뒤 다시 이 부분을 복습해 봐. 분명 이 문제가 새롭게 보일 거야.

답 | 적절함

01 둘 다 적절하지 않음 02 적절하지 않음 03 ① 04 ④ 05 ③ 06 ③
07 ④ 08 둘 다 적절하지 않음 09 ① 10 ④ 11 ⑤ 12 적절하지 않음
13 ③

01 지문에서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막대들로 나타나는’이라고 했어. 따라서 <그림>은 고른음을 나타낸 거야. 그런데 ①은 심벌즈, 즉 시끄러운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피아노와 심벌즈, 고른음과 시끄러운음을 바꿔치기한 선지야.

④가 재미있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래프가 대부분 시간에 따른 변화이다 보니, 그래프의 가로축이 시간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지문의 그래프처럼 가로축이 시간이 아닐 때 출제자가 장난을 치곤 해. 즉, 가로축이 시간이 아닐 때, 시간으로 바꿔치기한다는 거야. 기출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함정 선지를 만들곤 했어.

- 100Hz가 220Hz보다 먼저 소리 났다.
- 100Hz가 220Hz보다 빨리 감지될 것이다.

그래프의 막대는 시간 순서에 따라 늘어선 것이 아니므로, 무엇이 먼저/빨리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게 돼.

이 문제를 잘 기억해 둬야 해. 그러면 <국어의 기술 2> PATTERN 17 ‘출제자의 의도’ 시범보기 03번 문제를 풀 때 아주 쉬울 거야.

답 | 둘 다 적절하지 않음

02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두 가지야.

먼저 <보기>를 중심으로 접근해 보면 다음과 같아. (이런 풀이는 PATTERN 7 ‘문학 <보기>’에서 집중적으로 배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 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선지 (가)에서 주인공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①은 보다시피 <보기>와 정면으로 배치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①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단순하지? 혹시 “미완의 형태이니 완성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 안 돼! 고향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보기>에 전혀 없잖아!!!

[다른 풀이]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양귀비 꿀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선지 (가)에서 주인공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시를 보면 화자가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한 것에 주인공 늙은이가 공감하고 눈물을 보인 거야. 근데 ①은 화자가 주인공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한다고 했어. 공감하는 사람을 바꿔치기했기 때문에 ①은 적절하지 않아!

	
지문	①

답 | 적절하지 않음

03

오늘 작문 과제는 '가족에 대한 글쓰기'였다. 가족은 친숙한 소재라 쉽게 쓸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하기만 하였다. 고민 끝에 가족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기로 했다. '가족 여행, 어머니의 사랑, 우리 집, 영화, …….' 무작정 떠오른 생각들을 나열해서 쓰다 보니 주제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글을 쓰기로 했다. 글을 쓰다 보니 그간 어머니를 오해해서 빚어진 갈등이 떠올랐고, 어머니의 사랑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 글을 읽을 반 친구들에게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 고민하였다. '어떤 내용에 관심을 보일까?', '내 글에 공감할까?' 나는 마치 예상 독자가 곁에 앉아 있는 듯, 스스로 묻고 답하며 초고를 완성하였다. 그 다음, 글의 주제가 하나로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피며 표현을 다듬기도 하고, 쓴 내용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계획한 글의 개요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고 나니, 글이 완성될 때까지 힘은 들었지만 글은 훨씬 나아진 것 같았다.

- ① 글쓴이는 예상 독자인 어머니의 관심을 고려하여 글을 썼다.
- ② 글쓴이는 필요에 따라 글의 표현과 내용, 개요 등을 고쳐 가며 글을 썼다.
- ③ 글쓴이는 글의 주제에 따른 통일성이 잘 실현되었는지 점검하며 고쳐 썼다.
- ④ 글쓴이는 내용 생성과 관련한 글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상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⑤ 글쓴이는 가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떠올린 후에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내 글을 읽을 반 친구들'이라고 나왔듯이 예상 독자는 반 친구들이야. 그런데 ①은 예상 독자를 반 친구들에서 '어머니'로 바꿔치기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아. 답 | ①

04

【보기】

- 주 대상층: 탈춤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를 영상 시청자로 함.

〈영상물 제작 계획서〉

전달 방식	해설
	• 내레이션을 통해 ~ <u>탈춤에 조예가 깊은</u>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한다.

발문에 제시된 정답의 기준은? <보기>의 제작 회의 결과가 선지의 영상물 제작 계획서에 제대로 반영(연결)되었는지야. 그러면 답은 쉽게 보여. 예상 시청자가 바뀌치기됐어. 답 |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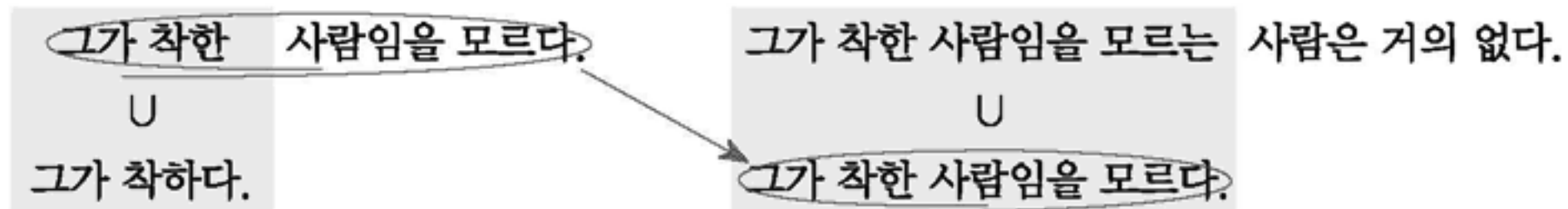
바꿔치기는 문학, 비문학(독서), 화작문, 문법을 가리지 않고 나와. 이 문제는 문법 문제지만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문법 지식보다 바꿔치기에 대한 감각이 더 중요해.

③이 답인데, '주어'를 바꿔치기했어. ㄱ의 밑줄 친 부분만 따로 떼어 문장을 만들면 '이마에 흐른다.'야. 주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인데, ③의 말대로라면 '답징이 이마에 흐른다.'가 돼.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적절한 주어는 뭐겠어? 당연히 '땀'이지. '땀이 이마에 흐른다.'가 적절해. 이처럼 출제자는 생략된 주어인 '땀'을 '답징'으로 바꿔치기해서 제시했어.



④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면 쉬워. '보물 상자'에 좀 더 자세하게 써 뒀으니 참고하고!



참고로 이 문제에 대해 출제 기관에서 답한 자료가 있으니 살펴보자. (밑줄은 내가 그은 거야~)

평가원의 답변

⑤에서 '복잡한 생각'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문장 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이라는 범위도 문장 구조와 관련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문장은 생각을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장은 모두 흐문장이 아니라 안은 문장입니다. 안은 문장은 흐문장으로 표현해야 하는 둘 이상의 생각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땀이 이마에 흘렀다.'와 '답징이 땀을 씻었다.'는 각각 어떤 사태에 대한 관찰을 표현한 문장이지요. 그런데 ㄱ의 문장은 이 두 사태에 대한 관찰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은 문장은 흐문장으로 표현하는 생각보다는 복잡한 생각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은 문장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장의 구조도 복잡해지면서 그 문장이 표현하는 정보의 양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답 | ③

06

발문에 ‘습지 보전’을 주제로 한다고 했지? 그러면 제시된 모든 메모, <보기>, 선지는 주제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해. 또한 이런 자료 ‘활용’ 문제는 자료가 무엇을 말하는지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A는 ‘습지 보전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B는 ‘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C는 ‘습지 보전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참고로 자료 B처럼 도표나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가장 도드라지는 수치에 주목하면 돼! 수치(비중)가 가장 높은 것은 눈에 쉽게 보이기도 하고, 문제의 메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PATTERN 6 ‘문제 해결’**을 공부해야 해. 일단은 **PATTERN 3**을 공부하는 중이니 자세한 건 넘어가자.¹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①과 같은 선지가 필연적임을 알 수 있을 거야.

③은 출제자들이 전형적으로 선지를 만드는 기술이야. 지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기 위해서는 B가 아니라 C를 활용해야지. 출제자는 자료를 바꿔치기했어. **답 | ③**

07

시범 보이기 04번과 ‘출제자의 의도가 똑같’은 문제야. 바꿔치기된 것을 알 수 있겠어?

시의 상황을 살펴보자. 계집아이는 차를 타고 삼촌이 사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길이 꽤 멀대. 가는 길을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배웅하고 있어. 그런데 ④는 이 상황을 ‘육친’과 이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어. 아니지. 시는 내지인 주재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이별하는 상황이지. 출제자는 이별의 대상을 바꿔치기했어. 따라서 ④가 정답!

꼭 알아야 할 어휘가 몇 개 있어서 살펴볼게.

(1) ‘내지(內地)’는 말 그대로 ‘안쪽 지역’을 말하는데 ‘안쪽 지역’ \subset ‘(변두리가 아닌) 중심 지역’ \subset ‘(외국이나 식민지와 대비해) 본국’으로 의미가 확장돼.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내지=일본’, ‘내지인=일본인’을 가리켰어. 문학 작품에 흔하게 나오는 표현이니 알아두길.

(2) ‘주재소장’은 파출소장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3) ‘배웅(떠나보냄)’과 ‘마중(맞이함)’도 헷갈리지 말고!

(4) ‘육친’은 (외)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 형제/자매처럼 피가 섞인 친족을 가리켜. **답 | ④**

08

출제자가 어떻게 선지를 만드는지 보이지? ③의 ‘이사회’와 ④의 ‘주주 총회’ 자리를 서로 바꿔야 적절해.

¹ 이런 이유로 모든 책은 두 번 이상 읽어야 해. 방금 봤듯이, 뒤에 설명할 내용을 앞에서 언급하기도 하고 앞에서 설명한 것을 뒤에서 새롭게 바라보기도 하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은 두 번 이상 읽어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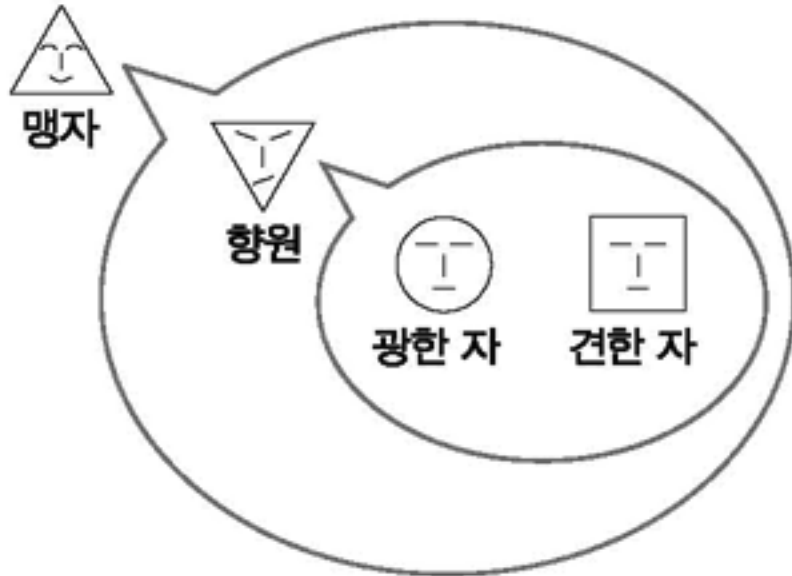
③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④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총회가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다.

답 | 둘 다 적절하지 않음

09

발문에 정답의 기준이 명쾌하게 나타나 있어. 어떤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돼. 지문은 맹자가 [향원이 [광한 자와 견한 자]를 조롱하는 것]을 비판하는 구조야. 그림으로 그리면 왼쪽의 그림과 같아.



답은 ①이네. ②는 맹자를 향원으로 바꿔치기하면 적절해. 출제자가 바꿔치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선지들이야. ③, ④, ⑤는 태도가 잘못됐어. 답 | ①

10

'윗글을 바탕으로'라는 발문은 선지 판단의 근거를 기본적으로 지문에서 찾으라는 말이야. ④가 적절하지 않아.

공해 소송에서도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 있다.

④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데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 쪽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하면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어민들에게 있어. 출제자가 어민들을 회사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정답을 만들었어.

나머지 선지들을 살펴보자.

다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 한다. 곧 공해 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과 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고,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는 것이다.

[보기]

대법원은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려 한 것이다.

{ 보기 }

대법원은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②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연 과학적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보기>에서 1)만 증명하면 2), 3)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했지? 이를 통해 ②가 대법원의 전제임을 추론할 수 있어. (이 설명만으로 선지가 이해가 되면 감각이 꽤 좋은 거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 나중에 <국어의 기술 2> PATTERN 15 '전제'를 공부하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어.)

공해 소송에서도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 있다.

{ 보기 }

대법원은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③ 공장 폐수가 김 양식장으로 흘러들었다는 사실을 어민들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가해자인 피고는 인과 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책임을 면해야 한다.

⑤ 공장 폐수 속에 김의 폐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회사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어민들 쪽에서 1)만 입증하면 대법원에서는 2), 3)은 입증하지 않아도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했어. 즉, 어민들 쪽은 2), 3)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만약 회사가 책임을 면하고 싶다면 2), 3)이 아니라는 입증은 회사 쪽에서 하라는 거야.

답 | ④

많은 이들이 틀렸던 문제야. ‘유의 사항’을 정말 유의^{마음에 새겨 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짐}해야만 맞힐 수 있었어. 유의 사항을 보면 카메라는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고 했지? 그러면 ‘화자’가 누군지 제일 먼저 알아야겠네! 화자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야.

이제 정답의 근거를 중심으로 선지를 빠르게 살펴보자.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처마 끝에 ~ 밤’)부터 아래(=‘가물음 땅’)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① ㄱ =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처마’가 있는 집)와 시간(밤)을 제시

ㄴ = 초반부의 분위기 조성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과 가쁜 호흡의 음향(=‘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② ㄷ =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③ ㄹ = 공감

아픈 ‘애’를 확대해서 보여 주면, 즉 클로즈업하면 감상자는 ‘애’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거야.

ㅁ.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아아’, ‘보채노나!’)로 낭송

④ ㅁ =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

영탄적 어조란 감탄사 등을 이용해서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수사법을 말해. 감탄사(아아, 오, 아이고),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 -도다, -로다), 호격 조사(-이여, -이시여) 등을 통해 실현돼. 수능 출제 기관에서는 설의법(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도 영탄적 어조로 본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 뒤.

ㅂ.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밤’, ‘아득한 하늘’)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별들이 참별 날으듯’)

⑤ ㅂ, ㅅ ≠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

ㅂ은 ‘애’의 시선도 아니고, ‘애’를 바라보는 시선도 아니야. ‘애’가 겪는 고통을 덜어 주지 못하는 부모의 막막한 심정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출제자가 문제를 구성하고 정답을 만든 방식이 보여? 안쓰러운 부모의 상태를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로 출제자가 바꿔치기한 거야!

답 | ⑤

12

지문도, 문제도 끔찍하게 어려웠던 문제야. 지문도 낯설고, 문제 유형도 낯설고. 그런데 딱 하나 익숙한 게 있었어. 바로 출제자의 선지 조작법이야. 지문에는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라는 치욕이 한 아이의 소망만 나와. 아이‘들’의 소망이 아니야. 즉, 단수인데 복수라고 해서 무조건 틀렸어. 이 선지가 문제의 정답이었는데 시범 보이기 02번과 ‘똑같은’ 문제지? ㄹ

출제자는 문제를 통해 수험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그런데 기출 문제에 메시지가 흩어져 있다 보니 네가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통해 출제자의 메시지를 패턴으로 묶어서 인상적으로 전달하려는 거야. 예를 들어 이 패턴은 출제자가 ‘바꿔치기’를 통해 선지를 조작할 테니 알아맞혀 봐라!’라고 말한 문제를 쫓 모은 거지.

대부분 내가 수험생 때 수없이 기출문제를 풀다가 발견한 것들이야. 이렇게 공부하면 재미있기도 하고, 출제자가 파 놓은 함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점수도 올라가. ^^

답 | 적절하지 않음

선/배/틀/의 지문

Q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의 소망을 상징한다고 하면 적절한가요?

A 그래도 적절하지 않아. 지문의 흐름을 봐.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라고 말한 건 치욕이지? 그런데 이 말을 두고 “치욕이가 노오란 목소리로 말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지? 바로 서술자인 ‘나’야. 그런데 ‘나’는 지금 햇빛도 사람들의 얼굴도, 봄바람도 모두 노오랑게 보이는 상태야. 그 이유가 공복감 때문인지, 산토년을 먹었기 때문인지, 해인초 끓이는 냄새를 맡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소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즉, 치욕이의 목소리가 노랑게 보인 이유는 영양 결핍, 핏기 없음, 기력이 쇠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기>의 ‘노랗다 (관용적 표현)’와 연결될 수 있을 뿐, 소망을 상징하는 것과는 연결될 수 없어.

13

두 명 중 한 명이 틀렸을 만큼 어려운 문제였어. 심지어 강사분도 틀리게 해설하는 경우가 많았을 만큼. 참고서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몇 출판사에는 내가 정체(?)를 숨기고 전화해서 고쳐 달라고 했던 적도 있어.

③이 정답인데, 잘못된 해설은 다음과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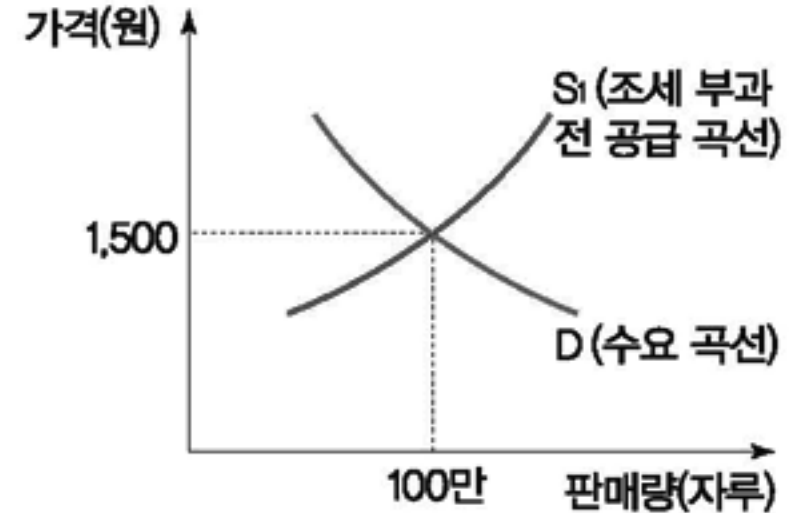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공급 곡선 S_1 이 오른쪽 아래가 아니라 왼쪽 위로 이동한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틀린 해설)

혹시 너도 이렇게 풀었어? 그렇다면 독해력 빵점이야. 예를 들어볼게. M_1 (저녁 먹기 전 몸무게)과 M_2 (저녁 먹은 후 몸무게)가 있어. 저녁으로 밥을 두 그릇에서 한 그릇으로 줄이면 M_1 과 M_2 중 뭐가 변하게 되지? 당연히 M_2 가 변해. M_1 은 ‘저녁 먹기 전’ 몸무게라 밥을 배터지게 먹든, 그냥 굶든, 안 먹고 토를 하든 변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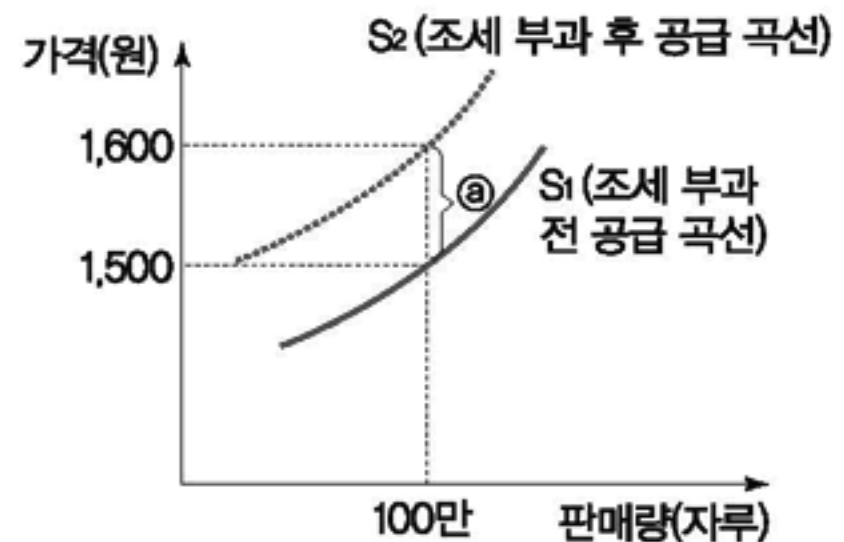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보기>에서 S_1 이 뭐라고 했지? ‘조세 부과 전’ 공급 곡선이라고 했어. 이게 S_1 의 정의야. 따라서 조세를 얼마를 부과하든 S_1 은 영향을 받지 않아. 조세 부과에 따라 이동하는 건 ‘조세 부과 후’ 공급 곡선인 S_2 지. 따라서 S_1 이 ‘이동’한다고 한 ㉓은 무조건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정답! 마찬가지로 ㉓이 틀린 이유를 S_1 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한 해설도 무조건 틀려.

문제 풀이는 이것으로 충분한데, 독해 차원에서 <보기>의 그래프와 지문을 살펴볼게. 하나하나 따라오는 게 녹록한 일이 아니니 정신 집중!

일단 수요 곡선 D 를 독해해 보자. D 는 ‘볼펜 가격 이 하락할수록 소비자의 수요량이 늘어난다.’라는 뜻이야. 마찬가지로 S_1 은 ‘볼펜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자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를 뜻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볼펜의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점으로 결정돼.² 따라서 조세 부과 전에 볼펜은 1,500 원이고, 이때 100만 자루가 거래돼.



그런데 ‘정부가 볼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물건의 가격을 100원씩 올려야 할 테니(그래야 100원을 정부에 주지) S_2 가 S_1 보다 100원만큼 위에 그려져. 따라서 ㉔는 물품세 100원에 해당돼.



1 그래프 독해에 대해서는 내가 쓴 <독해력 강화 도구 3가지> 부록에서 12개 유형으로 자세히 다루니 참고해!
2 왜 교점에서 가격과 공급량이 결정되는지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아. 단지 <보기>와 비교해서 보니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야. 여기에 대해 좀 더 궁금하다면 [네이버 캐스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참고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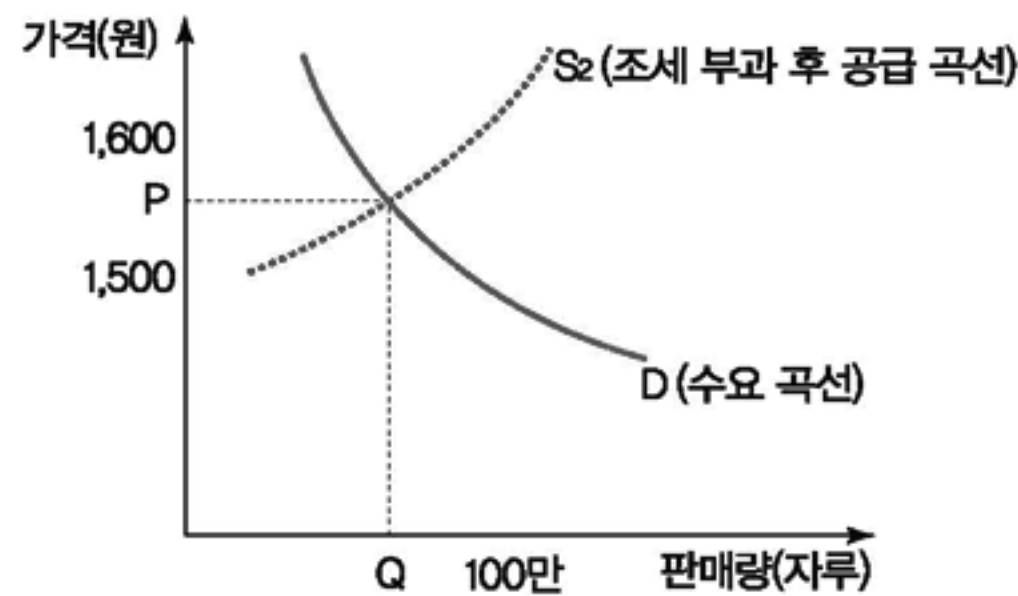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② 조세 부과 후 생산자는 \textcircled{a} (=100원)를 자루당 조세액으로 납부한다.

하지만 공급자가 공급 곡선을 100원 위로 올린다고 가격이 100원 오를까? 아니야. 가격과 공급량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교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S_2 와 D 의 교점(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인 P 와 Q 로 결정돼.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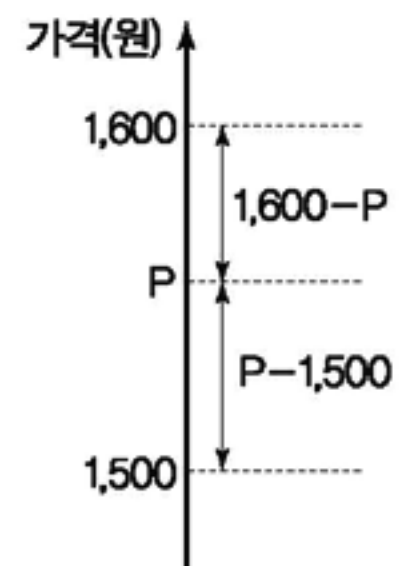
①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 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한다.

⑤ 조세 부과로 판매량이 100만 자루에서 Q 로 줄어들게 된다.

자, 이제 최종 결과를 살펴보자. 세로축을 확대해 볼게.

조세 부과 전 소비자는 1,500원이면 볼펜 한 자루를 살 수 있었는데, 조세 부과 후에는 P 원을 줘야 살 수 있게 됐어. 즉, 소비자는 $P-1,500$ 원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거야.

반면 공급자는 자루당 세금 100원을 부과 받았으니 1,500원짜리를 1,600원으로 받고 싶어. 그런데 소비자 불만으로 인해 그렇게는 못하고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인 P 원을 받고 팔게 돼. 즉, $1,600-P$ 원을 세금으로 부담해. 종합하면, 공급자가 자루당 100원의 세금을 납부하긴 하지만 그 부담은 소비자와 나누어 지게 돼. 소비자가 자루당 $P-1,500$ 원, 공급자가 자



루당 $1,600 - P$ 원으로, 둘이 더하면 자루당 100원이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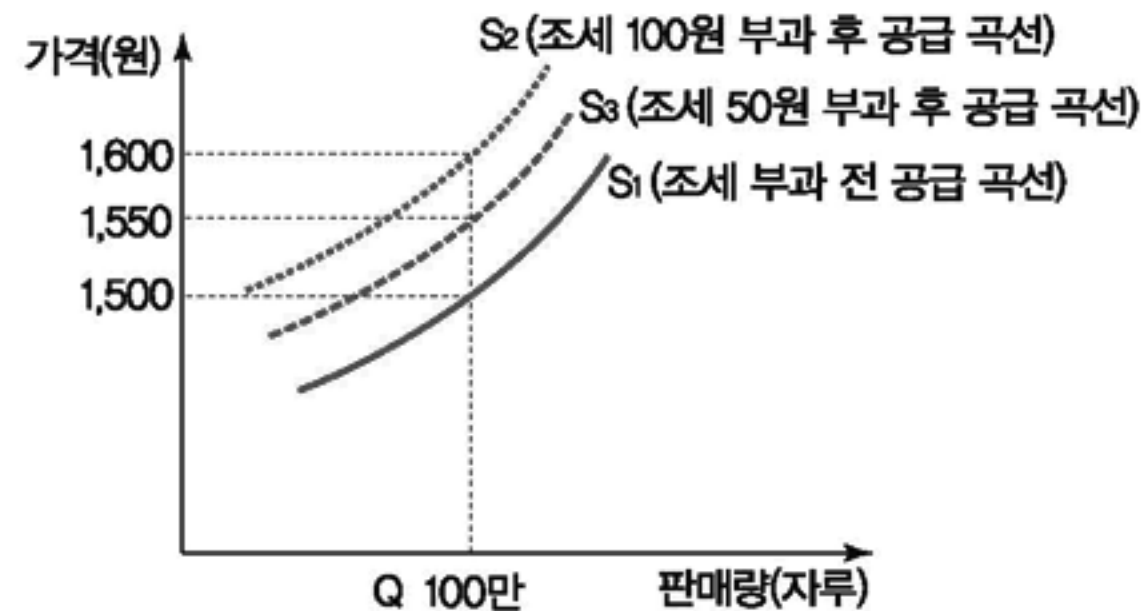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100$ 원)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1,600 - P)$ 원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P$ 원)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P - 1,500$ 원)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④ 소비자의 자루당 세금 부담액($=P - 1,500$ 원)은 P 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마지막으로 ③을 살펴보자.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S_2 보다 50원 낮은 곳에 곡선이 생기겠지.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



답 | ③

- | | | | |
|------------|------------|------------|------------|
| 01 적절함 | 02 일치하지 않음 | 03 일치하지 않음 | 04 적절하지 않음 |
| 05 적절하지 않음 | 06 적절하지 않음 | 07 적절하지 않음 | 08 적절하지 않음 |
| 09 ② | 10 ⑤ | 11 ④ | 12 ① |
| 13 ④ | 14 ② | 15 ④ | 16 ② |
| 17 적절하지 않음 | | | |

01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금방 설명한 거라 기억나지? _×○는 개념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독자가 오해 없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고. 이 문제에서 _×○는 ‘사태’와 ‘사실’의 개념을 구별함으로써 ‘사태’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어. 적절한 선지! 답 | 적절함

02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 구성원 각자의 인식 변화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남녀 고용 평등과 육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선지 여성의 지위는 개인의 인식 변화를 통하여 개선해야 한다.

답 | 일치하지 않음

03

이로써 보면 싸움이 밥 때문이지, 빨이나 태도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선지 모든 싸움은 태도에서 발단된다.

답 | 일치하지 않음

04

최한기는 선천적 지식이 따로 없고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산출된다고 보아 ‘선행후지(先行後知)’를 제시하고, 행이 지보다 우선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선지 최한기는 선천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있다고 보았다.

답 | 적절하지 않음

05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선지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답 | 적절하지 않음

06

야수파 시기의 격렬한 색채의 혁명을 거친 마티스는 화면의 밝음, 풍부함이라는 것은 결코 튜브에 들어 있는 물감 색의 생생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훗날 그는 “하나의 색은 단순한 물감에 불과하다. 두 개의 색이야말로 화음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마티스에게 색채의 비밀은 무엇보다도 그 조화와 울림에 있었던 것이다.

선지 마티스의 그림이 밝게 보이는 주된 이유는 화가가 즐겨 사용하는 물감의 생생함 때문이다.

답 | 적절하지 않음

덧글 글의 흐름을 보면 야수파는 격렬한 색채의 혁명과 관련이 있네. 그런데 왜 이름이 ‘야수파’인 걸까? 궁금하다면 QR코드를 타고 가 보자. 짧은 기사인데 교양으로 알아 두면 좋아!



07

파수전 기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아닌 언론 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개인의 기본권적 특성보다는 언론 기관에 부여되는 제도적 권리의 특성을 지닌다.

선지 이 기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답 | 적절하지 않음

08

누구의 저작물이든 개별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선지 저작물이 모두의 소유라는 주장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핵심이다.

답 | 적절하지 않음

09

이처럼 진화는 반드시 이상적이고 완벽한 구조를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화 과정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최선의 구조가 선택되지만, 그 구조는 기존의 구조를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낸 최상의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 ② 인간은 진화 단계의 최정점에 있는 동물답게 호흡계 구조가 이상적이군.
 ③ 진화가 항상 완전한 구조를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군.

②는 ×를 ○로 바꿔치기했으니 적절하지 않아. ③은 ×를 ×라고 했으니 적절하지? 출제자가 _×○에서 선지를 두 개나 만든 것에 주목하자. ㄷ

답 | ②

10

연출가들은 문자로 쓰인 대본에 의존하기보다는 배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즉흥적인 연출을 시도하였다.

- ① 연출의 즉흥성을 중시한다.
 ⑤ 고정된 대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자로 쓰인 대본 = 고정된 대본]을 같은 말로 보는 거 어렵지 않지? ㄷ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상 같은 말에 대해서는 PATTERN 2 '반복 출현'에서 훈련했어~.

답 | ⑤

11

필연적인 문제야. _×○를 통해 관점이 제시됐어. 출제자가 이를 놓칠 리 없지!

빈의 ㉠ 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의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순수 기악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연관되지 않는 음악을 뜻한다. 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체폭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 ① 음악은 소리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그것을 듣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② 음악은 인간의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언어이다.
 ③ 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언어는 음악의 본질적 요소이다.
 ④ 음악은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다.
 ⑤ 창작 당시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음악 외적 상황은 음악 이해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①의 '정서를 순화', ②의 '감정을 전달', ③의 '가사', ⑤의 '음악 외적 상황'은 지문에 따르면 모두 ×인데 선지에서 ○로 표현됐으니 틀렸어. ④만 ×(언어)를 ×라고 했으니 적절해! 지문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과 선지의 '언어를 초월하는'은 같은 말이기도 하고! ㄷ

답 | ④

12

가령 A. L. 웨버는 대표작 <캐츠>의 일차적 목표를 다양한 형식의 불거리와 들을 거리로 관객을 즐겁게 하는 데 두었다. <캐츠>는 고양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T. S. 엘리엇의 우화집에서 소재를 빌렸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내용의 충실한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발한 무대에서 얼마나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춤과 노래가 펼쳐지는가에 있다. 뮤지컬을 '레뷰(revue)', 즉 버라이어티 쇼로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은 바로 이 점에 근거한다.

① 멋진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이 충분한 불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작과 관계없이 만족했어요.

_×○가 관점을 제시한 경우야. 별짓 아니지? ⇨ 같은 관점을 찾으라고 했으니 _×○의 맥락이 같은 것만 찾으면 돼. 답 | ①

13

㉠의 입장(=관점)이 지문에 _XO로 표시됐어. 즉, 여기서 ㉠의 입장을 안다는 것은 ㉠가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부정하는지 안다는 거야.

19세기 음악 평론가인 ㉠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선지를 살펴보면 정답이 쉽게 보여. ④만 음들이 움직이는 형식과 관련 있어서 정답! 나머지는 모두 감정, 정서와 연관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 ① 장3도로 기쁨을, 단3도로 슬픔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음악을 만든다.
- ② 플루트의 청아한 가락으로 상쾌한 아침의 정경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만든다.
- ③ 낮은 음고의 음들을 여러 번 사용하여 내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악을 만든다.
- ④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5도가 되는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 ⑤ 오페라의 남자 주인공이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 들어갈 매우 강한 시끄러운음이 울리는 음악을 만든다. 답 | ④

14

의병들은 서로가 혈연(血緣) 혹은 지연(地緣)에 의해 연결된 사이였다. 따라서 그들은 지켜야 할 공동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결속력도 높았다. 그 대상은 멀리 있는 얌꿍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이었으며,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다. 백성들이 관군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의병에 참여했던 까닭도, 조정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해야 하는 관군과는 달리 의병은 비교적 지역 방위에만 충실하였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의병을 제외하고는 의병의 활동 범위가 고을 단위를 넘어서지 않았으며, 의병들 사이의 연합 작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① 관군에 들어가느니 의병이 낫고말고.
- ② 조정의 명이 있으니 기꺼이 동참해야지.
- ③ 사랑하는 처자식은 내 손으로 지켜야지.
- ④ 내 고장에 왜놈들을 들여놓을 수야 있나.
- ⑤ 친구도 많고 친척도 있으니 싸울 힘이 나는군.

답 | ②

15

사례 문제는 개념에서 조건을 뽑아내서 조건 충족 문제처럼 풀면 돼. $_ \times \circ$ 의 사례를 찾을 때는 \times 는 없고, \circ 는 있는 것을 찾으면 되겠지?

혁신의 확산이 ㉠ 대중 매체보다 주로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① 최신 미용 기법이 미용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 주로 미용사들의 지역 모임을 통해 전파되었다.
- ② 새로 출시된 금융 상품의 가입자가 경제 뉴스가 아닌 직장 동료들의 추천에 의해 크게 증가하였다.
- ③ 신개발 농산품의 구매자 수가 증가한 것은 신문 광고가 아니라 직거래 구매자들의 입소문에 의한 결과였다.
- ④ 새로운 여행 상품의 예약 폭주는 주 고객층에 초점을 맞춘 여행사의 인터넷 광고보다 텔레비전 광고의 결과였다.
- ⑤ 새로운 음식 메뉴를 개발한 전문 식당의 분점이 급속히 퍼진 것은 라디오 광고보다 주로 손님들의 호평 덕택이었다.

④는 \circ 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사례야!

답 | ④

16

지문을 읽으면서 _×○가 보이면 표시를 해.

공기를 압축하면 뜨거워진다는 것은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 디젤 엔진의 기본 원리는 실린더 안으로 공기만을 흡입하여 피스톤으로 강하게 압축시킨 다음, 그 압축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저절로 착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젤 엔진에는 점화 플러그가 필요 없는 대신, 연료 분사기가 장착되어 있다.

그런 다음 문제를 보자. 디젤 엔진에 ‘없는’ 부품을 찾아야 하니까 × 표시한 것을 찾으려면 되겠지?

〈보기〉에서 디젤 엔진에 없는 부품끼리 묶은 것은?

(보기)

ㄱ. 기화기
ㄴ. 실린더

ㄴ. 피스톤
ㄷ. 연료 분사기

ㄷ. 점화 플러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ㄷ, ㄹ

독해력이 부족하면 중요한 문장을 중요한 문장인지 모르고 넘어가게 돼. _×○는 그런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라도 중요 문장에 잠시 머무르게 해. 이 문제도 그래. 지문의 _×○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잘 몰랐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_×○를 기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중요한 문장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 중요한 문장은 바로 마지막 문장. 그리고 문제에도 바로 적용되지. _×○만으로도 선지가 ②와 ④로 확 줄잖아. 지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 실린더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니 ㄴ을 제거하면 ②가 정답!

답 | ②

17

그는 생물체가 독립된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이며, 부분은 전체의 흔적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선지 퀴비에: 조직화는 생물체의 각 부분들이 무작위적 집합을 통해 몸을 구성하는, 생물의 고유한 원리야.

×를 ○로 진술했으니 적절하지 않아. 따라서 ‘적절하지 않음’이 정답. ‘바꿔치기’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어. 선지의 내용은 ‘퀴비에’가 아니라, 지문의 ‘이전의 생물학자들’의 주장이야. 선지를 조작하는 방법, 이제 너도 좀 알 것 같지 않아? ^^

답 | 적절하지 않음

- 01 ③ 02 적절함 03 ② 04 적절하지 않음 05 ③ 06 ② 07 ⑤
08 ① 09 ③ 10 ⑤

01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어’, ‘서술어’, ‘어말 어미’, ‘어간’, ‘선어말 어미’, ‘평서문’, ‘종결 어미’ 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해. 일단 내가 이 문제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문법 지식을 설명해 줄게. 이외의 전반적인 문법 지식은 수능 때까지 따로 공부를 해 뒤! 살펴보니 <꿀 특강 문법도해편>도 괜찮더라.

필수 지식 1. 문장 구성

주어 → 서술어

문장은 주어(주체)에서 서술어로 나아가는 흐름이야. 서술어의 ‘서술’은 설명한다는 뜻이야. 즉 문장은 주어를 설명하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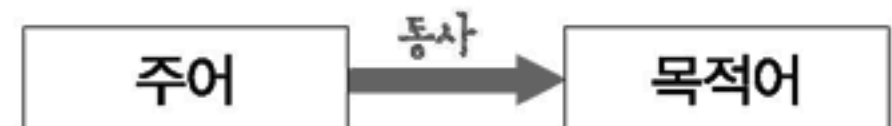


서술어는 세 종류야.

- ① 주어의 상태 / 성질이 어떠하다 (형용사)
- ② 주어의 동작 / 행위가 어찌하다 (동사)
- ③ 주어가 무엇이다 (체언+서술격 조사 ‘이다’)

목적어 → 서술어(동사)

목적어란 서술어 중에서 동사인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말이야. ‘누구를 / 무엇을’에 해당되는 것이지. 북한에서는 아예 ‘대상어’라고 부르기도 해.



이해황은 책을 쓴다.

여기서 동사 ‘쓴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책’이야. 따라서 ‘책’이 위 문장의 목적어!

여담이지만 문장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어 → 목적어 → 동사] 순서인 한국어보다는 [주어 → 동사 → 목적어]인 영어 어순이 좀 더 자연스러워. 오른쪽 그



림은 한국어로 ‘그녀는 책을 쓴다.’지만, 영어로는 ‘She writes a book.’이야. 흐름으로 보면 후자가 자연스럽지?

활용, 용언(= 동사, 형용사)

동사와 형용사는 끝 부분이 여러 가지 꼴로 변해. 예를 들어, 동사 ‘읽다’의 경우 ‘읽어’, ‘읽고’, ‘읽으니’ 등으로, 형용사 ‘예쁘다’의 경우도 ‘예쁘고’, ‘예쁘니’, ‘예쁜’(예쁘+ㄴ) 등으로 바뀌어. 이런 현상을 ‘끝바꿈’ 또는 ‘활용(活用)’이라고 해. ‘활용 = 끝바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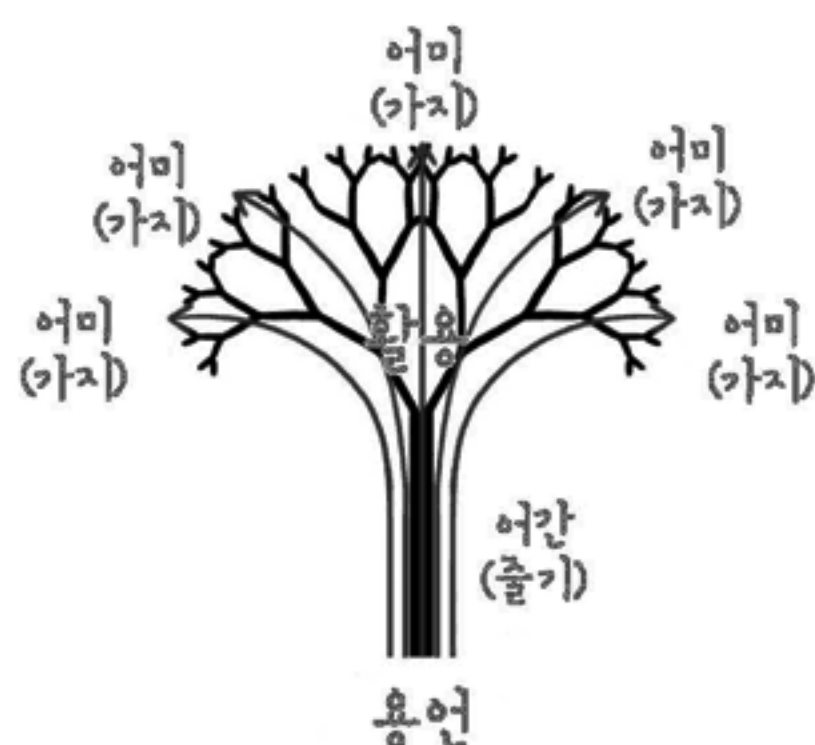
즉,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을 하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를 ‘용언’이라고 불러. ‘용언=동사, 형용사’!

용언 = 어간 → 어미

어간: 용언이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앞부분

어미: 용언이 활용할 때 바뀌는 뒷부분

‘어간’(stem, 줄기)의 ‘간’은 ‘줄기’라는 뜻이고, ‘어미’(ending, 끝)의 ‘미’는 ‘끝’, ‘뒤쪽’이라는 뜻이야. ‘줄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간과 어미는 일종의 비유야.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거야. 용언은 어간에서 시작해서 어미로 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읽다, 읽어, 읽고, 읽으니’를 보면 ‘읽-’이 어간이고, ‘-다, -어, -고, -으니’는 어미야. 마찬가지로,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쁜’도 ‘예쁘-’가 어간이고, ‘-다, -고, -니, -ㄴ’이 어미야. (참고로 영어에도 어간이 있어. ‘write’(쓰다)는 끝 부분이 ‘writing’, ‘written’ 등으로 변하므로 ‘writ-’가 어간이야.)

‘-’ (붙임표) 표기법

X-: X로부터 출발하여 흐름이 뒤로 이어진다.

-X-: X 앞에서부터 온 흐름이 X를 거쳐서 X 뒤로 이어진다.

-X: X 앞에서부터 온 흐름이 X에서 끝난다.

1 ‘언’은 ‘사’가 붙는 것을 묶어서 부를 때 써.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부르고, 동사,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부르는 것 등이 바로 그런 거지.

너무 사소해서 그런지 ‘-’에 대해 언급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하지만 잘 알아 두어야 하는 것들이야.

어미: 선어말 어미 → 어말 어미

개념은 쉬운데, 용어가 괜히 어려워.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는 위치에 대한 용어야. 어말 어미는 용언이 끝맺는 곳에 놓이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놓여. 즉, 선어말 어미는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위치해. 감이 안 잡히니 사례를 보자.

ㄱ. 읽다 ㄴ. 읽었다 ㄷ. 읽는다 ㄹ. 읽겠다 ㅁ. 읽었어 ㅂ. 읽으시다

어간은 ‘읽-’이야. 그러면 어간 뒤에 있는 것이 어미인데, 파란색이 선어말 어미, 빨간색이 어말 어미야. 빨간색과 파란색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 파란색은 생략 가능하지만, 빨간색은 생략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의 큰 차이야.

덧붙여서 ㄴ~ㅁ을 보면 파란색은 과거(-었-), 현재(-는-), 미래(-겠-)의 시제를 나타내고 있어. (정확하게 말하자면 ‘-겠-’은 추측과 의지를 나타내.) ㄱ과 ㅂ을 비교해 보면 파란색이 높임을 나타내고 있고.

종합해 보면, 선어말 어미는 생략 가능하며, 시제, 높임 등을 나타내!

어미: 연결 어미, 종결 어미, 전성 어미

어미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앞말과 뒷말을 잇는 연결 어미, 문장을 끝맺는 종결 어미,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성질을 변화시키는 전성(성질 전환) 어미가 있어. 괜스레 말이 어렵지 쉬운 개념이야. 연결 어미와 종결 어미는 다음 예를 보면 뭔지 감이 올 거야. 전성 어미는 바로 이어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

연결 어미: 읽고(-고), 읽으며(-으며), 읽으나(-으나), 읽지만(-지만)

종결 어미: 읽다(-다), 읽니(-니), 읽어라(-어라), 읽자(-자)

전성 어미

전성 어미: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 특히 ‘주어+서술어’를 안긴문장으로 만들 때 요긴하게 쓰여. ‘주어+서술어’가 안긴문장으로 들어갈 때 명사형 전성 어미는 명사절로, 관형사형 전성 어미는 관형사절로, 부사형 전성 어미는 부사절로 만들어. 참고로 절이 뭔지는 아마 영문법 시간에 많이 들었을 텐데,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 두고 가자.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단위를 말해. 말이 어렵지만 예를 보면 쉬워.

독립된 문장: 나는 그녀와 헤어졌다.

↓ 헤어지- + -었-¹ + -음(명사형 전성 어미) → 헤어졌음(명사절)

안은문장²: 나는 그녀와 헤어졌음을 깨달았다.

독립된 문장: 나는 빵을 먹는다.

↓ 먹- + -기(명사형 전성 어미) → 먹기(명사절)

안은문장: 나는 빵을 먹기 시작했다.

독립된 문장: 이해황이 책을 썼다.

↓ 쓰- + -ㄴ(관형사형 전성 어미) → 쓴(관형절)

안은문장: 이해황이 쓴 책이 100만 부 이상 판매됐다.

독립된 문장: 그녀는 아름다웠다.

↓ 아름답- + -던(관형사형 전성 어미) → 아름답던(관형절)

안은문장: 아름답던 그녀는 이제 없다.

독립된 문장: 꽃이 예쁘다.

↓ 예쁘- + -게(부사형 전성 어미) → 예쁘게(부사절)

안은문장: 꽃이 예쁘게 피었다.

독립된 문장: 밤이 새다.

↓ 새- + -도록(부사형 전성 어미) → 새도록(부사절)

안은문장: 밤이 새도록 우리는 이야기를 했다.

내가 쓸데없는 걸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나? 하하. 아니야. 전부 기출된 개념들이야. 모르면 문제 풀기가 매우 곤란했고, 언어영역이 국어영역으로 바뀌며 나타난 변화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법은 따로 잘 정리해 둬야 해.

이제 원래 문제를 풀어 보자. (어떤 문제인지 잊어버린 건 아니지? ㅋㅋ)

먼저, ‘아니요’의 경우는 ‘요’가 빠져도 문장이 성립해. 반면 ‘아니오’의 경우 ‘-오’가 빠져 버리면 ‘얼마나 기쁘’, ‘일단 멈추시’ 이렇게 끝나서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 따라서 ④는 적절해. 또한 ‘기쁘-(어간)’에 붙는 것을 통해 ①을, ‘멈추- + -시-(선어말 어미)’에 붙는 것을 통해 ②를 알 수 있어. ③은 ‘자료’의 “나는 주인공이 아니오.”를 통해 적절하

1 바로 앞에서 배운 ‘선어말 어미’애 이 뒤에 전성 어미가 붙었네.

2 안은문장을 포함하는 전체의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해.

지 않음을 바로 알 수 있어. ‘문제 탐구’의 사례가 의문문, 명령문이라서 여기에만 주의를 쏟았으면 실수할 수도 있었어. ⑤는 읽어 보니 꼬덕일 수 있는 것 같지?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등은 다 기출된 개념이니 따로 정리해 뒤. 답 | ③

02 사건의 전개 속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만 비교를 할 수 있어. ‘보물 상자’에 자세히 써 뒀으니 잘 모르면 먼저 보고 와. 나는 보고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설한다! ㄱ

지문과 〈보기〉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건이 소설 내에서 진행된 시간은 같아. 하지만 지문이 〈보기〉보다 서술한 분량이 5배는 많지? 따라서 서사 진행 속도는 지문이 〈보기〉보다 느려. 선지에 생략된 부분을 복원하면 다음과 같아.

선지 지문은 설화보다 서술된 분량이 많지만,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같기 때문에 서사 진행의 속도는 지문이 설화보다 느리군. 답 | 적절함

03 처음 보는 문제 형식이지?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였어. 그래서 당황했던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도 했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심지어 지문도 필요했는데 심심해서 그냥 넣어 본 거야. 하하) 그림을 보자.

1번 지역이 앞줄 중앙이니 가장 중요한 자리겠지? 그래서 1번 지역에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 거야. 1번 지역에 (가)는 공주가, (나)는 장교가 있어. 따라서 ②가 적절하지 않은 선지고 정답이야. 주도권을 쥔 사람이 당연히 제일 앞 중앙에 있어야지. 비켜선 2번 지역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 주기는 다소 어렵지. ②를 적절하게 수정하면 다음과 같아.

(나)에서는 장교를 1번 지역에 배치하여 (가)에 비해 장교가 극적 사건 진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더 잘 보여 줄 수 있겠군. (○)

오답 선지도 가볍게 가려 보자.

①은 공간적 거리를 통해 심리적 거리(친밀도)를 나타냈어. ‘보물 상자’에 ‘거리’에 대해 추가적으로 써 뒀으니 참고해! ③은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집단의 대비를 선명하게 나타낸다는 이야기. ④는 읽어 보면 당연한 말이고, ⑤는 잘 보이는 지역에 있는 것이 위압감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어. 답 | ②

다음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경우,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03 수능 모의평가 |

<전략> 용홀대 크게 놀라 급히 내달아오려 한즉, 벌써 칼 같은 바위 높기는 천여 장이나 되어 앞을 가리워 겹겹이 둘러싸이니, 전혀 갈 길이 없는지라. 용홀대 혼백을 잃어 어찌할 줄 모르더니, 방 안에서 한 여인이 칼을 들고 나오면서 꾸짖어 가로되,

“네 호국 장수 용골대의 아우 용홀대 아닌가? 네 본디 오랑캐로 천의(天意)를 모르고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또 감히 사부가(士夫家)의 규문(閨門)을 당돌히 범하니, 너 같은 놈은 죽여 후일을 징계하리라.”

하고 완완(緩緩)히 걸어 달려들며 이르되,

“네 나를 아느냐?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광주 유수 이공의 부인 박씨의 시비(侍婢)● 계화로소니, 네 선봉이 되었다가 나 같은 여자의 손에 목 없는 귀신이 될 터이니, 어찌 불쌍하고 잔인하지 아니하리오.”

하며,

“내 칼을 받으라.”

하는 소리, 옥반(玉盤)에 진주를 굴리듯 한지라. 용홀대 바라보니, 그 미인이 머리에 태화관(太和冠)을 쓰고, 몸에 홍금사 화의(紅錦紗華衣)를 입고, 허리에 측금사 만대를 두르고, 손에 용문자 화검(龍文字華劍)을 들고 완연히 섰으니, 나는 제비 같은지라.

용홀대 정신이 아찔하나 분기를 참지 못하여 다시 정신을 차려 꾸짖어 가로되,

“조그마한 여자 엄연히 장부를 꾸짖느냐. 내 너를 잡지 못하면 어찌 세상에 서리오.”

하고 달려들거늘, 계화 용홀대를 보니, 머리에 용봉 쌍학(龍鳳雙鶴) 투구를 쓰고, 몸에 황금사 문갑(黃金紗紋甲)을 입고, 허리에 진홍 보호대를 두르고, 손에 삼백 근 금강도를 들었거늘, 서로 싸워 사십여 합에 승부를 모르더니, 계화의 칼이 번듯하며, 용홀대의 머리 검광(劍光)을 좇아 마하(馬下)에 내려지니, 계화 그 머리를 칼 끝에 끼워 들고 좌충우돌하여 사방으로 달리니, 모든 장졸이 혼비백산하여 일시에 항복하니,

계화 용홀대의 머리를 박 부인에게 드리니 부인이,

“그 놈의 머리를 높은 나무에 달아 두라. 용골대 제 아우의 머리를 보면 낙담상혼(落膽喪魂)●하리라.”

하니, 계화 영을 듣고, 후원 전나무에 높이 달아 두니라.

<중략>

용골대 호령하여 가로되,

“네 군사를 몰아 박 부인과 계화를 사로잡아 들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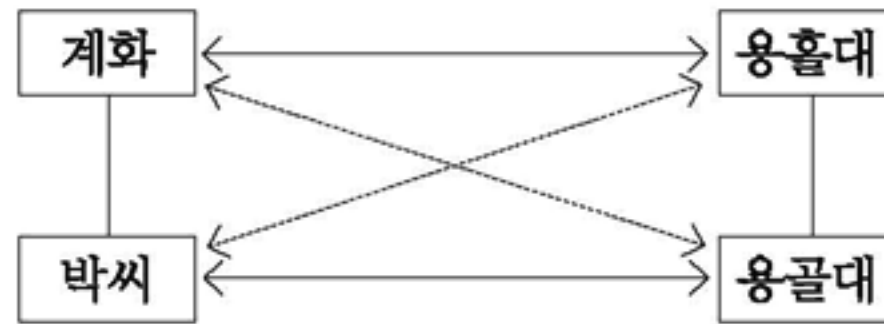
하는지라. 김자점이 황겁하여 방포(放砲) 일성(一聲)에 군사를 몰아 피화당을 에워싸니, 문득 팔문(八門)이 변하여 백여 길 함정이 되는지라. 용골대 그 변을 보고 줄연히 깨지 못할 줄을 알고 한 피를 생각하여, 군사로 하여금 피화당 사방 십 리를 깊이 파서 화약 염초를 많이 붓고 군사로 하여금 각각 불을 지르고,

“너희 무리 아무리 천변만화지술이 있은들 어찌 하리오.”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불을 놓는지라. 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하매, 벽력 같은 소리가 나며 장안 삼십 리에 화광이 충천하여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박씨 옥으로 된 발을 드리우고 좌수에 옥화선을 쥐어 불을 부치니 화광(火光)이 호진(胡陣)을 충돌하거든, 호진 장졸이 항오(行伍)^㉑를 잃고 다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고 다 도망하는지라. _작자 미상, <박씨전>

- ① 시비(侍婢): 곁에서 시중을 드는 계집종.
 ② 낙담상혼(落膽喪魂): 몹시 놀라거나 마음이 상해서 넋을 잃음.
 ③ 항오(行伍): 항오(行伍) 군대를 편성한 대오

[보기]



- ① 계화와 용홀대의 대결은 박씨와 용골대의 대결을 예비하는군.
- ② 왼쪽 인물과 오른쪽 인물의 대비는 민족 간의 대립을 보여 주는군.
- ③ 김자점이라는 인물은 오른쪽 자리에 위치하게 해야 할 것 같군.
- ④ 박씨는 계화를 통해서 용홀대에 대한 승리를 쟁취했다고 해야겠지.
- ⑤ 위쪽 인물과 아래쪽 인물의 관계는 피지배층과 지배층의 대결 관계를 나타내고 있군.

핵심 풀이 답은 쉽게 보이지? 답은 ⑤야. ‘박씨의 시비(侍婢) 계화’라는 표현에서 계화는 피지배층, 박씨는 지배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용골대의 아우 용홀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래에 있는 용골대는 형이고, 위에 있는 용홀대는 동생이야. 동생이 피지배층, 형이 지배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지! 또 백 번 양보하더라도 위쪽 인물과 아래쪽 인물은 서로 대결하는 게 아니라 같은 편인 협력 관계에 있어. 덧붙여서 대결 관계였다면 <보기>에 ‘|’이 아니라 ‘↓’로 표시되어 있었겠지!

①을 살펴보면 계화와 용홀대의 대결에서 용홀대는 죽었지만, 형인 용골대는 남아 있었지? 박씨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통해 박씨와 용골대가 곧 싸우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어. “그놈의 머리를 높은 나무에 달아 두라. 용골대 제 아우의 머리를 보면 낙담상혼(落膽喪魂)하리라.” ②에서 왼쪽은 우리나라 사람, 오른쪽은 호국(북방의 오랑캐가 사는 나라를 말함) 사람을 말하니 민족 간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지! ③에서 김자점은 용골대의 명령을 받아 행동하고 있으니, 오른쪽 자리에 위치하는 게 맞아. 계화는 박씨의 시중을 드는 종이니, 계화가 용홀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곧 박씨가 승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따라서 ④도 맞아. 답 | ⑤

발문에 ‘탐구’가 있으면 비교를 의심하라고 했지? <보기>를 보니 [15세기]의 구절을 [오늘날] 버전으로 바꾼 것이 나란히 제시되어 있어. 겉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속 내용은 똑같다는 게 핵심이야. 이제 둘을 쪼개서 비교해 보자.

[보기]

[15세기] 그 새 겨우루엣 제 그르멜 보고
[오늘날] 그 새가 거울에 있는 제 그림자를 보고

_ <석보상절> 권 24

<보기>에 의하면 [엣=에 있는]이 성립해. 그런데 선지에서는 [엣=에]라고 했어. 선지가 적절하다고 가정하면, ‘귀에 걸다’의 ‘에’에 ‘엣’의 오늘날 표현인 ‘에 있는’을 대입했을 때도 자연스러워야 해. 그런데 대입해 보면 ‘귀에 있는 걸다’(???)라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선지가 적절하다는 가정은 틀렸어. 즉, 선지는 적절하지 않아. **답 | 적절하지 않음**

참고로 ‘엣’은 ‘의’로 바꾸면 아주 자연스러워. 이와 관련된 문법 문제가 201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나왔는데 가볍게 살펴보자.

예제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과 ㉡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 2015 수능 6월 모의평가 |

[보기 1]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만 있지만,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 의, 스, ㅣ’가 있었다. 이 중 ‘의, 의, 스’는 결합하는 명사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명사			관형격 조사
의미 특징	끝 음절 모음		
사람이나 동물	양성 모음	+	의
사람이나 동물	음성 모음	+	의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	양성 모음 / 음성 모음	+	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님	양성 모음 / 음성 모음	+	스

- ㉠ 늑+의: 늑_의 뜯 거스디 아니헛거든(늑의 뜯 거스르지 아니하거든)
 거북+의: 거북_의 터리 곤고(거북의 털과 같고)
 大王+스: 大王_스 말쑥미사 올커신마룬(대왕의 말쑥이야 옳으시지만)
 나무+스: 나무_스 여름 먹느니(나무의 열매 먹으니)

1 <국어의 기술 2> PATTERN 18 ‘국어 검산법’에서 깊게 배우는 사고방식이야. 선지 검증법!

- 父母ㅣ 아들+㉠ 마를 드르샤(부모가 아들의 말을 들으시어)
- 다솜 술위+㉡ 글워를 닐굴 디니라(다섯 수레의 글을 읽어야 할 것이다)

	㉠	㉡
①	익	스
②	스	익
③	의	스
④	스	의
⑤	익	의

❖ 핵심 풀이 현대 국어에는 관형격 조사가 '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 보자.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가 나란히 있으니 역시 비교하면 돼. ㉠은 일단 결합하는 명사가 의미상 아들이니 사람이고, 높임의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끝 음절 모음은 'ㆍ'인데, 이게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 너 알아? 잘 모른다고? 그럼 혹시 출제자가 배려를 해 주지 않았나 〈보기〉를 다시 살펴보자. 첫 번째 예를 봐봐. '늬'에서 'ㆍ'는 양성 모음으로 취급되네. 따라서 ㉠은 '익'야. ㉡과 결합하는 명사는 의미상 수레이니 사람도 동물도 아니야. 따라서 ㉡은 '스'이 되겠지? 정답은 ①이야. 답ㅣ①

05 발문에 정답의 기준이 있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항! 그렇다면 오답은 어느 한쪽만 강조하거나 어느 쪽도 강조하지 않은 사항으로 구성되겠지? 답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어.

㉠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환히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인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판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 이황, 〈독서〉

㉡ 〈사기〉의 〈자객열전〉을 읽다가 “조(祖)를 마치고 길에 올랐다.”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다고 하자. “조(祖)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스승께서는 “떠나보낼 때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다.”라고 하실 것이다. 다시 “하필 그것을 ‘할아버지 조(祖)’로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요?” 하면,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자전(字典)을 꺼내 ‘조(祖)’의 본뜻을 알아보아라. 그리고 자전을 바탕으로 다른 책으로 나아가 그 책의 주석과 풀이를 살피면서 그 뿌리의 끝을 캐고 가지와 잎까지 줍도록 하여라. - 정약용, 〈둘째 아들에게 부침〉

③ 책을 읽다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읽는다.

①의 경우 ‘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③과 같은 맥락이지만, ‘삶에서 실천하려는 자세’는 (가), (나) 둘 다에서 나타나지 않아. ②는 (가)와 완전히 배치^{서로 반대로 되어 어그러지거나 어긋}되고, (나)에서는 언급도 없어. ④는 (나)하고만 관련 있어. ⑤의 ‘비판의 근거로 삼을 만한 책’을 찾아 읽는 것은 (가), (나) 모두와 어울리지 않아. 답 | ③

06 고전 문학 작품 중, 고전 시가는 수능날 제목만 보고도 내용이 다 짐작이 갈 만큼 충분히 공부해 뒀야 해. (내가 PATTERN 3 ‘바꿔치기’에서 책도 추천해 줬는데 잘 공부하고 있으려나?) 작품에 대한 해석은 네 몫으로 하고 해설을 시작할게.

①의 ‘음보율’의 ‘음보’는 직역하면 소리 걸음이야. 걸음을 걷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 가며 읽는 데서 오는 운율(리듬감)을 말해. (다)와 <보기>는 모두 4음보야. 소리 내서 읽어 보면 자연스럽게 마디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어. 따라서 ①은 적절해.

(다): 흥망이 V 유수하니 V 만월대도 V 추초로다
<보기>: 흥진에 V 묻힌 분네 V 이 내 생애 V 어떠한고

②는 딱 봐도 적절하지 않아.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려면 일단 공간이 두 개가 나와야 하는데 (다)에 나온 공간은 만월대가 전부야. 따라서 ②가 정답!

(다)는 눈물겨워하니 침울한 분위기고, <보기>는 꽃 피고, 지락에, 풍월주인이 되었다고 하니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③은 적절해.

④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⑤는 ‘흥진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속세에 묻혀 사는 분들, 내 생활 어때?)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에 해당돼.

답 | ②

예제

(가) 시의 3연은 처음 발표되었을 때 <보기>와 같았다. 고쳐 쓰기를 통해 얻은 시적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평한 것은? [2점] | 1999 수능 |

㉠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
가시는 걸음 걸음 /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보기]—

가시는길 발거름마다
썩려노흔 그꼇을
고히나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 ① 어휘를 바꾸니 시적 대상이 바뀌었군.
- ② 피동 표현을 첨가하니 화자가 바뀌었어.
- ③ 시행의 길이를 줄여서 고독의 의미를 강조했군.
- ④ 심상을 다양화하여 자연과의 친화를 보여 주었군.
- ⑤ 시어를 바꾸고 글자 수를 조절해 운율상의 배려를 했군.

핵심틀이 물론 이 문제는 ‘비교’ 문제야! ^^ (가)의 3연과 <보기>를 비교하면서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한 효과가 적절한지 판단해야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자.

- ① 어휘를 바꾸니 시적 대상이 바뀌었군.

어휘는 눈으로 딱 봐도 바뀐 게 맞지만, 시적 대상은 ‘임’으로 동일해.

- ② 피동 표현을 첨가하니 화자가 바뀌었어.

‘썩려노흔’은 능동형인데, ‘놓인’은 피동형이야.
하지만 화자는 모두 ‘나’로, 바뀌지 않았어.

- ③ 시행의 길이를 줄여서 고독의 의미를 강조했군.

눈으로 봐도 가로 길이가 약간 줄었지?
하지만 고독의 의미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

- ④ 심상을 다양화하여 자연과의 친화를 보여 주었군.

내용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바뀐 심상도 없을뿐더러 자연과의 친화 역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어.

- ⑤ 시어를 바꾸고 글자 수를 조절해 운율상의 배려를 했군.

‘가시는길 → 가시는, 발거름마다 → 걸음 걸음, 썩려노흔 → 놓인, 고히나 → 사뿐히’ 이렇게 시어가 바뀌었어. 그리고 앞의 3개의 시어는 글자 수도 조절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지? 동일한 글자 수(음절 수)가 반복되어 7·5조의 운율이 형성되었지.

가시는(3) 걸음 걸음(4)

놓인 그 꽃을(5)

사뿐히(3) 즈려 밟고(4) 가시옵소서.(5)

답 | ⑤

1950년대 프랑스의 영화 비평계에는 ㉠작가주의라는 비평 이론이 새롭게 등장했다. 작가주의란 감독을 단순한 연출자가 아닌 작가로 간주하고,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관점을 말한다. 이 이론이 대두될 당시, 프랑스에는 유명한 문학 작품을 별다른 손질 없이 영화화하거나 화려한 의상과 세트, 인기 연극배우에 의존하는 제작 관행이 팽배해 있었다. 작가주의는 이렇듯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주창되었다.

작가주의는 상투적인 영화가 아닌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 감독의 창의성과 개성은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감독의 세계관 혹은 주제 의식, 그것을 표출하는 나름의 이야기 방식, 고집스럽게 되풀이되는 특정한 상황이나 배경 혹은 표현 기법 같은 일관된 문체상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 ① ㉠은 ㉡보다 감독의 주제 의식을 중시한다.
 ② ㉠은 ㉡보다 감독의 표현 기법의 일관성을 중시한다.
 ③ ㉠은 ㉡보다 영화 창작 과정에서 감독의 권한을 중시한다.

<보기>와 선지의 대응도 살펴보자.

〔보기〕

㉡한 편의 영화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이나 예산 같은 제작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영화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시킨 기술의 발달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감독은 영화의 일부분일 뿐이다.

- ④ ㉡은 ㉠에 비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경제적 여건과 기술적 조건을 중시한다.
 ⑤ ㉡은 ㉠에 비해 감독의 역량을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보다 중시한다.

⑤는 적절하지 않은 비교를 해서 틀렸어. ㉡은 감독과 다른 인력들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⑤에서 둘 중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 적절하지 않아. 만약 ⑤를 적절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 ㉠의 자리를 바꾸면 돼. 그리고 이렇게 적절하게 바꾼 게 지문과 <보기>의 핵심적 차이고! 출제자가 정답을 만든 의도가 읽혀져? ㄷ

답! ⑤

①의 ‘경어’라는 건 높임말이야. ‘이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경어체고,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 평어체야. 평어체는 주로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어. (참고로 논술은 평어체로 써야 해) ①이 적절하지? ②~④는 대담과 <보기>의 자리를 바꿔야 옳아. 텔레비전 방송이니 상식적인 거지. ⑤는 대담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 적절하지 않아. 다른 선지들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데 반해 ①은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출제자는 이것을 정답으로 만들었어.

답 | ①

09

한 작품에서 세 문제를 뽑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보기>에 작품을 하나 제시해서 두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했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시된 작품 <시집살이 노래>에 달려 있던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보자.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출제자는 작품의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을 물어. <시집살이 노래>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첫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대화 형식으로 심경을 토로한다는 거야. 비문학으로 치자면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고 할 수 있지. 둘째, 시집살이를 ‘개집살이’라고 규정한 후 구체적인 사례들을 여러 개 제시한다는 거야. 비문학이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주장(시집살이가 개집살이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지? 출제자는 두 번째 특징을 답으로 제시했었어.

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자. 답부터 말하자면 [A]와 <보기>의 공통점은 ③이야. [A]는 사촌 동생과 사촌 형님이 나누는 대화지? 친척 관계니 당연히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볼 수 있어. <보기>도 ‘본 듯도 하구나.’, ‘어와, 너로구나.’를 종합해 보면 이전에 만난 적이 있고, 알고 지낸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어. 그리고 둘 모두 만남을 계기로 각각 시집살이의 힘들과 임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너무 쉬웠나? ㅋ

답 | ③

오답 선지 중 ①의 ‘반복’을 살펴보고 가자. 기출된 표현을 보면 ‘시어의 반복’, ‘시구의 반복’, ‘시행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등이 있어. 이러한 반복은 리듬감/운율 등을 형성하거나, 정서를 강조하는 기능을 해.

시어는 한 단어, 시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인 것, 시행은 말 그대로 시의 한 가로 줄이야. 문장 구조는 통사 구조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

사례

01

| 2008 수능 6월 모의평가 |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_ 윤동주, <길>

핵심 풀이 동일한 시어인 ‘돌’이 반복됐어.

1 한 문제당 선지가 5개씩 나오고, 각 문제와 선지는 원칙적으로 서로 간섭하면 안 되거든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_ 김광규, <나뭇잎 하나>

❶ 풀이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동일한 시구가 반복됐어.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_ 김소월, <초혼¹>

❶ 풀이 1연에서는 1행('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가 2행에서 반복됐고, 2연에서는 3행('사랑하던 그 사람이여!')이 4행에서 반복됐어. 즉, 시행이 반복된 거야.

일단 여기까지 공부했으니 유명한 문제를 하나 풀어 보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야.

다음 시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하시오.

| 2010 수능 6월 모의평가 |

가쁜 숨결을 드내 쉬노니, 박나비처럼, / 가녀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敎徒)와도 같이.

_ 정지용, <발열>

❶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다.

❶ 풀이 '동일한 시행을 반복'했다고 했어. 정말로 그래? 절대로 그렇지 않아. 동일한 시행(가로 줄)이 반복된 곳이 없어. 단지 한 행에서 '나는 중얼거리다'라는 문장이 두 번 반복됐을 뿐이지. 즉 시행이 반복된 게 아니라 하나의 시행 안에서 시구가 반복된 거야. 출제자가 점수를 주려고 만든 시력 측정 문제인데 개념이 안 잡힌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함정이 됐었어.

답 | 적절하지 않음

1 첫 번째 결혼을 뜻하는 말이 아니야. 하하. 혼을 부른다는 뜻이야.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입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허리에 대어 지붕에 올라서거나 마당에서 북쪽을 향해 '아무 동네 아무개 復(복)'이라고 세 번 부르는 일을 가리켜. (옛날에는 사람이 죽는 것을 혼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봤어.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혼이 다시 와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소망이 초혼 의식이 된 거야.)

다음 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하시오.

| 2014 수능 6월 모의평가 A형 |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 와서 읍니다.

옛날, 우리나라 /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_ 김소월, <접동새>

선지 ①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선지 ②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해설 풀이 ①은 원래 시험에 나온 선지고, ②는 내가 만든 선지야. 당연히 (혹은 놀랍게도) 둘 다 적절해.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이 반복되었는데 이는 시행이기도 하고 시구이기도 하거든. 시구라고 곧 시행은 아니지만, 시행이면 시구가 될 수 있어. 1연은 누나가 접동새가 되어 운다는 것을 말하고, 2연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반복되는 시구가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어.

답 | 둘 다 적절함

이번에는 문장(통사) 구조의 반복을 살펴보자.

| 2009 수능 |

나와 / 하늘과 / 하늘 아래 푸른 산뿐이로다.
나와 / 밤과 / 무수한 별뿐이로다.

_ 신석정, <슬픈 구도>

해설 풀이 '나와 ~과 ~뿐이로다'라는 문장(통사) 구조가 반복됐어.

| 2009 수능 9월 모의평가 |

“내 이를 테니 들어 보소. 삼정승 하였으니 평교자에 앉아 볼까. 육조 판서 하였으니 초헌 위에 앉아 볼까. 양국대장 하였으니 장대(將臺) 위에 앉아 볼까. 팔도 방백 하였으니 선화당에 앉아 볼까. 각읍 수령 하였으니 동헌 좌기 하여 볼까. 좌수별감 하였으니 행사당에 앉아 볼까. 이방 호장 하였으니 각청 수석 앉아 볼까. 장안 일색 명기 되어 승교 위에 앉아 볼까.”

_ 작자 미상, <박홍보전>

해설 풀이 위 지문을 보면 '~하였으니 ~볼까', '~되어 ~앉아 볼까' 이렇게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어. 출제자는 이를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중첩하여 리듬감을 살린다.'라는 선지로 표현했어.

10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정 명사 ↔ 무정 명사’ 또는 ‘관형격 조사’에 대한 문법 지식이 있어야 해. 요즘 문법 문제는 기초 개념이 없으면 안 되니, <국어의 기술 0> 문법편 또는 문법 참고서 하나를 골라서 꼼꼼히 공부해 두길 추천해.

먼저, 유정 명사, 무정 명사는 감정 유무로 구분돼.

유정 명사: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

무정 명사: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는,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키는 명사

이런 구분을 언제 하나고? 일상에서 늘 하고 있어. 의식하지 못했을 뿐!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

→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 물을 주었다. (○)

위 문장은 어색하고 아래 문장은 자연스러워. 지금까지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을 거야. 이유는 다음과 같아. ‘에게’는 유정 명사와, ‘에’는 무정 명사와 결합하기 때문에 그래. ‘나무’는 식물이므로 무정 명사에 해당해. 따라서 ‘에게’를 ‘에’로 고쳐야 적절!

관형격 조사는 현대 국어에 ‘의’밖에 없어. ‘관형어’는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해. ‘국어의 기술’에서 ‘국어’가 ‘기술’을 꾸며 주지? ‘의’가 바로 꾸며 주는 역할을 해.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지? <보기>를 살펴보자. 중세 국어 문제는 현대어 풀이와 비교해서 무엇과 무엇이 같은지 확인하면 쉽게 풀려.

[보기]

㉠ 하늘 = 하늘의

㉡ 미퍽 = 밑에

이제 선지를 살펴보자.

① (가): 무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다.

‘하늘’은 무정 명사가 맞고, (가)에서 현대어 풀이의 관형격 조사 ‘의’에 대응하는 것은 ‘ㅅ’이었어. 따라서 적절해.

⑤ (마):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다.

이 선지가 틀린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 ‘밑’은 무정 명사이기 때문에 유정 명사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둘째, 현대어 풀이에서 ‘에’에 대응하는 중세 국어가 ‘의’인 것은 비교해 보니 맞아. 하지만 이때 쓰인 것은 관형격 조사가 아니야. 만약 선지대로 중세 국어 ‘의’가 관형격 조사였다면, 현대어 풀이에도 똑같이 관형격 조사 ‘의’가 있어야 해! 참고로 ‘미퍽’의 ‘의’는 장소 부사격 조사야.

답 | ⑤

01 ④ 02 ⑤ 03 ① 04 ② 05 ④ 06 ③ 07 ③ 08 ①
09 ⑤ 10 ③ 11 ⑤ 12 ①

01 | 일반적인 해설 |

발문의 ‘활성화 방안’을 보니 글이 [문제 해결] 전개 방식이라는 게 느껴지지? 이를 고려해서 자료를 활용해야 해.

(가)는 ①처럼 현실 상태를 알려 주는 데 활용할 수 있어. (나)는 문제 이유 분석에 해당돼. 그런데 이유/원인 분석으로부터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②처럼 활용도 가능해. (다)의 앞부분을 활용하면 ③처럼 이런 효과가 있으니 체험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 ④는 적절하지 않은데, (가), (다)로부터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못한 이유라든가,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가 없어. (다)의 뒷부분과 (나)를 연결지으면 ‘비용이 부담되어서-비용 지원’, ‘시간이 없어서-학교를 통한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해결책으로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⑤처럼 활용할 수 있지.

| 초간단 해설 |

발문에서 ‘고등학생의 체험 활동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지? 그런데 ④의 초점은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안’이야. 따라서 주제가 달라. 그러니까 ④는 무조건 틀려. ④를 읽을 때 자료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느꼈어야 해. 발문을 제대로 읽었다면! 답! ④

02 발문에서 ‘〈조건〉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했으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지를 찾으면 돼. 첫 번째 조건은 ‘이유’와 해결 방안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지? 두 번째 조건의 문답법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것(자문자답(自問自答))을 말해.

(나) 고등학생 대상의 설문 조사 결과

순위	체험 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	비율
1	시간이 없어서	53.5%
2	비용이 부담되어서	42.9%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38.5%
4	필요 및 흥미를 못 느껴서	31.4%

* 복수 응답 반응 조사

⑤ 유익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구청 홈페이지로 오세요. 구청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나 보세요 문답법

①은 문답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②는 문답법을 사용했지만 이유를 하나만(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반영했어. ③은 이유도 하나만(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반영했고, 문답법도 없어. ④는 문답법은 사용했지만 이유를 반영하지 않았어. 그리고 ④는 발문의 '고등학생에게 체험 활동 참여를 권유'하는 취지와 거리가 멀어! 답! ⑤

03

쉬웠지? 하지만 문제의 정의, 해결책의 정의를 음미할 수 있으니 잘 따져 보자. 승수는 문제를 겪고 있고, 해결 방법을 찾고 있어. 이에 대한 조언이라는 것은 결국 승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라는 거야. 모르는 어휘가 많은 게 현재 상황이지? 목표는 모르는 어휘가 거의 없는 상태고. (효과는 당연히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의 조언은 승수에게 실현 가능성이 없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휘나 배경지식을 보완하라는 ①이 적절한 해결책이고 답이야. 답! ①

04

발문 그대로 흐름을 묻는 문제야. 토의 내용을 읽어 보며 흐름을 파악해 보자.

1 문제
관련
현황

정 과장: 우리 시는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자연 경관이 빼어나서 1 관광지로서 매력적이지만 관광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볼거리나 즐길 거리에서 수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문제
해결
방안

김 교수: 말씀을 들어 보니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 이에 대해 저는 2 우리 시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이 답이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지역에서는 17세기에 만들어진 서원을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문을 연 지 두 달 만에 수천 명이 다녀갔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아서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정 과장님, 김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3 구체적
실행
방안

정 과장: 지역에 있는 향교와 고택들을 개방하고 이를 묶어 3 이야기가 있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유주 및 거주인과 고택 개방에 대해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토의는 [문제]에서 [해결]로 흘러가는 구조이므로 답은 ②야. 관광객이 줄어드는 원인을 조사해 보니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수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하고 있어. 즉, [문제 현황 → 원인 분석]이 보이긴 해. 하지만 주어진 선지 중에서 이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어. 그나마 '가장 적절한' 것이 ②라는 뜻이야. 답! ②

05

이 대화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디까? 문제 원인, 참고 사례(단서), 그리고 해결책이야. 원인은 ‘불거리나 즐길 거리에서 수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였어. 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 사례(단서)로는 김 교수가 ‘얼마 전에 다녀온 지역’을 제시했어.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해결책은 ‘향교와 고택들을 개방하고 이를 묶어 이야기가 있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이었고, 문제 해결의 단서가 주목할 부분이었고, 출제자는 이를 정답으로 출제했어. ④가 답이지. **답 | ④**

다른 선지들은 이 문제의 정답과는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정답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 눈여겨봐 뒤. ①의 경우 201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B형의 1번 문제와 밀접해. 한번 살펴보자.

예제

문제/번형

‘모의 면접’에서 ‘면접자’의 질문과 ‘피면접자’의 답변에 대한 다음 설명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하시오. **| 2015 수능 6월 모의평가 B형 |**

[모의 면접]

면접자: 음, 학생의 글을 보니 그림에 재능이 있고, 진로도 그와 관련된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데 문예창작과에 지원했군요. 이 말은 학생이 우리 학과에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이 쓴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림과 문예창작과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피면접자: 희망 학과를 말씀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데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문예창작과에 지원한 이유를 물으신 거죠?

선지 ‘피면접자’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확인한 뒤 답변하였다.

해설 풀이 제시된 선지는 적절하지 않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지. 오히려 “‘피면접자’는 ‘면접자’가 말한 의도를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라고 해야 적절하지! **답 | 적절하지 않음**

06

이미 ‘토의 내용’에서 ‘고택 주인’은 ‘(정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안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라며 고택 개방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데 이미 공감을 했어. 그런데 ③처럼 ‘고택 주인’에게 공감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되겠어? 내가 한 말 다 어디로 들었냐고 욕을 먹겠지. ㄱ 이런 식의 정답 구조에 대해 익숙해져야 해. 즉, 이미 ×인 것에 대해 ×하라고 하면 중복이니 적절하지 않아. **답 | ③**

| 07~08 | 지문 분석

수능 시험장에서 이 지문을 안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 [인물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서 이 부분을 대충 읽었으면 상황 파악이 거의 불가능했어. [앞부분의 줄거리], [중간 부분의 줄거리], [인물 사이의 관계]가 작은 글씨로 나오면 크게 읽을 수 있어야 해. 기출문제 중에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온 것들을 내가 좀 추려 봤어. 읽어 보며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짐작해 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다. 전쟁 통에 우리 집에 피난 와 있던 외할머니는 국군인 외삼촌이 전사하였다는 통지를 받는다. 외할머니는 건지산에 있는 빨치산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친할머니는 노발대발한다. 삼촌이 빨치산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진 나는 삼촌이 집에 다녀간 사실을 말하게 되고, 아버지는 큰 고초를 치른다. 이로 인해 나는 친할머니의 분노를 사 큰방 출입이 금지된다. 친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에 따라 삼촌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잔치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도 삼촌은 오지 않는다. 그때 난데없이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친할머니는 졸도를 한다.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現身)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때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구렁이에게 다가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 2001 수능 |

[앞부분의 줄거리] 안평 대군의 궁녀였던 운영은 수성궁에서 김생을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한다. 두 사람은 남의 눈을 피해서 금지된 사랑을 속삭이지만, 결국 탄로나 운영은 자살하고 김생도 뒤따라 죽는다. 천상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옛일을 생각하며 수성궁에서 노닐던 중, 마침 유영을 만나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한다.

| 2005 수능 예비평가 |

[앞부분의 줄거리] 금돼지의 아들이라 하여 외딴 섬에 버려진 최치원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들에게 글을 배운다. 최치원이 12세가 되었을 때, 중국 황제가 신라를 공격할 구실을 찾기 위해 함에 달걀을 넣고 봉한 다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내어 시를 지어 올리라 한다. 최치원이 시를 지어 올리자, 중국 황제는 최치원이 장차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죽이려고 신라 왕에게 조서를 보내 중국으로 부른다. 최치원은 50자나 되는 기다란 모자를 마련하여 중국으로 떠난다.

| 2005 수능 |

[앞부분의 줄거리] 광복 직후,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 사회 모두에 환멸을 느낀다.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된 명준은 석방 과정에서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하고, 배를 타고 제삼국으로 떠난다.

| 2006 수능 |

[앞부분의 줄거리] 토번국이 당나라를 침공하니, 양소유가 대원수가 되어 전장에 나간다. 양 원수가 전장에서 잠깐 조는데, 꿈에 동정호(洞庭湖) 용왕의 작은딸 백능파를 만난다. 양 원수가 그녀를 첩으로 삼자, 남해 태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양 원수와 싸운다. 양 원수는 자기 군대를

지휘하여 싸움에서 이긴다.

| 2007 수능 6월 모의평가 |

[앞부분의 줄거리] 양창곡의 연인이었던 강남홍은 그와 이별 후 백운 도사에게 무예를 배워 오랑캐의 장수가 되어 남장을 하고 명나라 원수 양창곡과 전장에서 맞서게 된다. | 2010 수능 9월 모의평가 |

[앞부분의 줄거리] 궁에서 쫓겨난 평강 공주는 대사와 함께 절로 가던 길에 온달을 만나 결혼한다. 10년 후 온달과 함께 궁으로 돌아온 공주는 온달이 장군이 되도록 돕는다. 온달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나 관이 움직이지 않는다. | 2011 수능 9월 모의평가 |

[앞부분의 줄거리] 선비 유영이 꿈에서, 죽은 윤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안평대군은 궁녀 열 명을 뽑아 가르치면서 궁 밖과의 인연을 금했으나, 궁녀 윤영은 김 진사와 사랑에 빠졌다. 김 진사의 노비인 특의 꾀에 따라 둘은 도망가려고 윤영의 의복과 재물을 빼냈다.

| 2011 수능 |

[앞부분의 줄거리] 유심이 유배된 후, 아들 유충렬은 정한담의 박해로 고난을 겪다가 영웅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한담이 황제를 내쫓고 도성을 차지하자, 유충렬은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고 대원수가 된다. 유충렬이 도성을 비운 사이, 천자는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 2006 수능 |

[중간 부분의 줄거리] 두 부인이 떠난 뒤, 사씨는 또다시 교씨의 흉계에 빠진다. 교씨는 울면서 사씨를 모함한다. | 2008 수능 |

[중간 부분의 줄거리] 토끼는 육지에 당도하여 별주부를 따돌리고 도망치지만 독수리에게 잡히는 신세가 된다. | 2010 수능 6월 모의평가 |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니?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문의 등장인물들을 정리해 보자. 지문에 제시된 [인물 사이의 관계]를 읽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야 해.



이렇게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제시되든 인물 사이의 관계를 시험지의 여백에 적어 가며 읽어! 참고로 인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때 주의할 점은 같은 사람

이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는 거야.

- 성 부인: 고모, 성 씨 집 늙은 과부
- 화육: 어르신, 선친
- 유모 취선: 천한 종, 흉악한 종
- 장자 화춘: 대공자, 도척(비유), 소자
- 차자 화진: (둘째) 공자, 진이, 소자, 유하혜(비유), 진이 남매
- 화빙선: (빙선) 소저, 네 년, (요망한) 누이, 진이 남매

이처럼 누가 누군지 파악하는 게 충분히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 수 있어. 평소에 소설 지문을 접할 때마다 인물 관계도를 그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해.

혹 이 지문의 인물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불평할 수도 있어. 하지만 TV 드라마에도 이 정도는 나와. 영상으로 봐서 어려운 줄 몰랐지 글로 표현하면 상당히 어려워.

드라마 H: A는 [(딸B)의 남편인 C]의 전 여자친구D]와 결혼했다. (음???)

드라마 J: A와 B는 부부. A는 C와 바람 펴서 D를 낳음. B는 E와 바람 펴서 F를 낳음. D는 A의 스승인 I 밑에서 F와 경쟁함. I의 손녀인 J는 D를 좋아함. D의 첫사랑인 G는 A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F와 결혼함. (음????????????????)

쉽지 않지? ⇨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면 쉽게 느껴질 거야!

07

먼저 갈등, 즉 등장인물 간의 의견 차이를 찾으면 다음과 같아.

- “네 년이 감히 흉심(凶心)을 품고 진이와 함께 장자(長子)의 자리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고자 천한 종 취선과 모의한 것이 아니냐?”
- “네 이놈 진아, 네가 성 부인의 위세를 빙자하고 선친(先親)을 우롱하여 적장자(嫡長子) 자리를 빼앗고자 하나 하늘이 돕지 않아 대사(大事)가 틀어졌더니, 도리어 요망한 누이와 흉악한 종과 함께 불측(不測)한 일을 꾀하였도다.”

차
이

- “큰집 작은집이 모두 혈육이니 이 자리를 빼앗고 저 사람과 협력한다는 말씀은 만만부당하나다.”

그런데 유모 취선과 빙선 소저의 이야기가 장자 자리를 빼앗겠다는 거였어? 아니지? 그런

데 심씨는 그런 음모로 받아들여. 갈등을 알았으니 이제 차이의 원인을 알아야겠지? 이미 심씨의 말에 드러나 있어. 방귀 편 놔서 성낸다고 '장자의 자리'에 대해 말하고 있잖아. 장자로서의 권한을 확고히 하고자 화진과 화빙선에게 '버럭버럭!'을 하고 매질을 한 거지. 그래서 ③이 정답이야. ④는 갈등의 결과에 해당하고!

답 | ③

08

〈보기〉의 두 번째 문장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어. 이와 맥락이 같은 건 ①이네!

〔보기〕

그 뜻이 만약 이치를 해치는 것이라면 곧 기운을 화평하게 하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부드러운 음성으로 간(諫)하여 반복 개진(開陳)함으로써 끝내는 이치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 이이, 〈격몽요결〉

① 진아, 네 어머니로 인해 애통한 심정이겠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어머니께서 의리를 깨닫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정성껏 아뢰어라.

나머지 선지는 지문의 문제 상황 또는 〈보기〉의 관점과 어긋나.

답 | ①

09~12 | 지문 분석

지문 독해법에 대해서는 〈독해력 강화 도구 3가지〉에서 자세히 다뤘다고 했지? 이 지문을 읽을 때 쓰는 도구 몇 가지만 더 소개할게. '질문'에는 Q, '답변'에는 A를 쓸 거야. 각각 Question과 Answer의 약자야. 또 개념이 분류될 때는 □, △, ○ 등을 그려 눈에 쉽게 보이도록 정리할 거야. '또한, 등'처럼 내용을 추가하는 접속어에는 +를 표시할 거고, '따라서, 그러므로, 결국' 등에는 →를,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 이유는' 등에는 ←를 표시할 거야. 화살표를 넣으면 사건 또는 사고의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광고에서 소비자의 눈길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는 유명인 모델이다. 일부 유명인들은 여러 상품의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계에서 관행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중복 출연은 과연 높은 광고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까? 유명인이 중복 출연하는 광고의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A 어떤 모델이든지 상품의 특성에 적합한 이미지를 갖는 인물이어야 광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카메라, 공기 청정기, 치약과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자체의 성능이나 효능이 중요하므로 대체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모델이 적합하다. 이와 달리 상품이 주는 감성적인 느낌이 중요한 보석, 초콜릿, 여행 등과 같은 상품은 매력성과 친근성을 갖춘 모델이 잘 어울린다. 그러나 유명인이 그들의 이미지에 상관없이 여러 유형의 상품 광고

에 출연하면 모델의 이미지와 상품의 특성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유명인의 중복 출연이 소비자가 모델을 상품과 연결시켜 기억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도 광고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명인의 이미지가 여러 상품으로 분산되면 광고 모델과 상품 간의 결합력이 약해질 것이다. 이는 유명인 광고 모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광고 상품에 전이하여 얻을 수 있는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유명인의 중복 출연 광고는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다. 유명인 광고 모델이 여러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면, 그 모델이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강하게 각인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유명인 광고 모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어 광고 메시지가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유명인 모델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명인이 자신과 잘 어울리는 한 상품의 광고에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경우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상품을 기억하기 쉬워지며,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된다. 유명인의 유명세가 상품에 전이되고 소비자가 유명인이 진실하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광고에 중복 출연하는 유명인이 많아질수록 외견상으로는 중복 출연이 광고 매출을 증대시켜 광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모델의 중복 출연으로 광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광고비가 과다 지출되어 결국 광고주와 소비자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유명인을 비롯한 광고 모델의 적절한 선정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09

①은 일단 ‘다양한 해결책’이라서 틀렸어. s(해결책)는 하나밖에 없지.

②는 ‘유사한 사례를 비교’했다고 해서 틀렸어. 상반된 e(사례)를 비교했을 뿐이야.

③은 e(사례)가 지문에 등장한 곳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④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지문에 없어.

⑤가 답이야. 1문단에서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어. 그리고 근거(p)를 들어가며 주장(s)을 펼쳤어. 이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결책을 제시했잖아. 답! ⑤

10

모델 A는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으므로 지문에서 □로 표시한 것에, 모델 B는 매력성과 친근성이 높으므로 지문에서 △로 표시한 것에 해당돼. 따라서 선지 ③이 적절하지 않아. 치약은 □의 사례이고, 여행은 △의 사례잖아. 그런데 사례 △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모델 B가 자신의 이미지에 상관없이 사례 □의 상품의 광고에도 등장하면 ‘모델의 이미지와 상품의 특성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나머지 선지들은 □는 □끼리, △는 △끼리라는 맥락이므로 적절해~.

③ 모델 B가 치약 광고와 여행 광고에 등장할 때 두 광고 모두에서 긍정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답! ③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 데카르트는 수학 분야에서도 불후의 업적을 남겼다.

〈중략〉

전통적으로 도형을 다루는 수학은 기하학이었다. 고대 그리스 이래 기하학은 자명한 명제인 공리에서 출발하여 증명을 통해 새로운 정리들을 발견해 가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도형을 다루는 것은 매우 까다로웠다. 이 상황에서 데카르트가 좌표^S개념을 도입하자 직선, 원, 타원 등 여러 가지 도형을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기하학과 대수학이 연결되어 근대적인 수학 발전의 토대가 된 해석 기하학이 탄생하였다.

선지 기하학적 문제를 대수학적 방법으로 풀 수 있게 해 주었다.

해설 풀이 ‘불후의 업적’은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야! 해결책을 묻는 단순한 문제였던 거야.

일반적인 청력 검사는 검사 받는 사람의 협조^N가 없으면 시행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귀의 소리(otacoustic emissions)’를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1978년 데이비드 켐프에 의해 귀에서 소리를 방출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발달하였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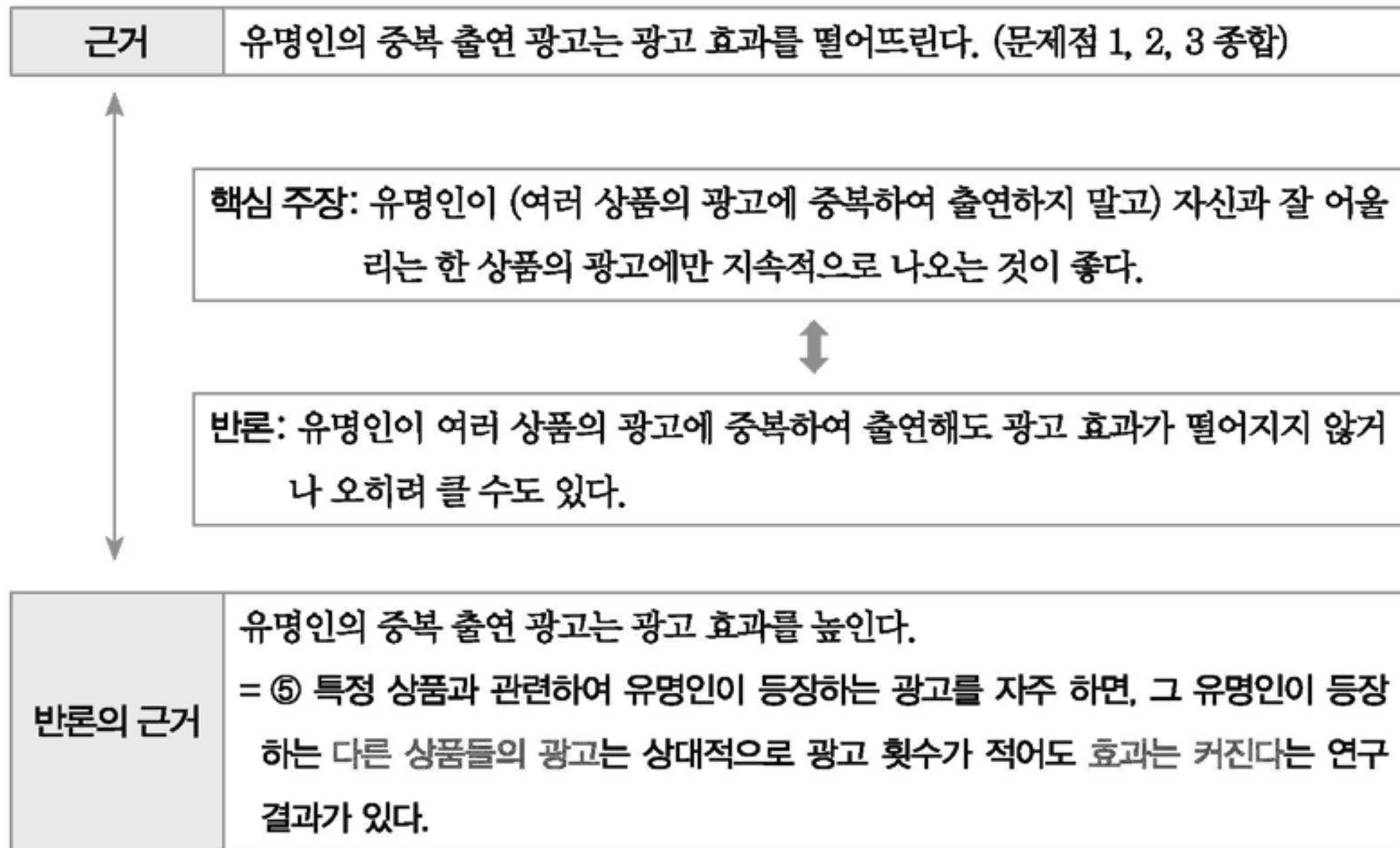
‘귀의 소리’는 조용한 환경에서 마이크로폰을 외이도에 장착하여 측정한다. ㉡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을 활용하면 검사 받는 사람의 협조 없이도 청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몇몇 국가에서 신생아의 청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에 이용되고 있다.

선지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는 사람을 찾아내려 할 경우

해설 풀이 협조가 없으면 청력 검사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귀의 소리’가 제시되었어. 이런 ‘문제 - 해결형’ 글의 경우 문제 또는 해결책에 대해 반드시 출제하지. 이것이 바로 지문의 핵심이고, ‘모든 문제는 지문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존재’(PATTERN 17 ‘출제자의 의도’)하니까! 여기서 선지의 경우는 바로 지문에서 언급한 문제에 해당하니 ㉡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해!

11

발문을 잘 읽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나와. 핵심 주장과 근거를 찾고 각각을 뒤집으면 반론과 반론의 근거가 나와. 이 구조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 (심층적인 건 <국어의 기술 2>의 PATTERN 16 '비판과 반론'에서 더 배울 거야.)



정답이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혹 주관식으로 나왔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이 문제를 기억해 두면 다른 반론의 근거를 찾는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복습 열심히 해!^^

그렇다면 나머지 선지들은 지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야 적절했는지 검토해 보자. (이런 검토 방법에 대해서는 <국어의 기술 2>의 끝에서 배워~)

①이 정답이라면 지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야 할까?

광고를 전달하는 매체가 광고하는 상품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아도 광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 광고 효과 측면에서 광고를 전달하는 매체와 광고하는 상품의 특성은 관련성이 없다.)

②가 정답이라면 지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야 할까?

유명인을 등장시킨 광고의 횟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면 광고 효과가 상승한다.

③이 정답이라면 지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야 할까?

유명인 광고 모델의 부정적 이미지는 상품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유명인 광고 모델의 이미지는 상품 매출과 관련성이 없다.)

④가 정답이라면 지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야 할까?

광고를 많이 하는 특정 상품에 대해 유명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와 일반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를 동시에 하는 것은 광고 효과의 측면에서 관련성이 없다.

⑤가 정답이라면 지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야 할까?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유명인이 등장하는 광고를 자주 하는 것은, 그 유명인이 등장하는 다른 상품들의 광고에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또는 광고 효과를 떨어지게 한다. (지문 내용과 일치하잖아~.)

답 | ⑤

12

㉠은 '책, 신문 따위에 글, 그림 따위가 실리다.'라는 뜻이니 ㉠이 답이야!

위와 같은 해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해설이야. 시험장에서 쓸 수 없는 사후적 설명이기 때문이지. 이런 문제의 경우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

- 1) 뜻이 비슷한 다른 단어로 바꿔 본다.
- 2) 호응하는 단어의 성격을 고려한다.

여기서는 1)을 활용해 볼 수 있어.

㉠ 유명인이 광고에 나오다. = 실리다

- ① 어제 신문에 그 기사가 실렸다. (○)
- ② 맑은 날보다 흐린 날에 사진이 잘 실린다. (×)
- ③ 하루 종일 찾던 지갑이 세탁물 속에서 실렸다. (×)
- ④ 수도에서 녹물이 실리는 바람에 빨래를 못 했다. (×)
- ⑤ 며칠 전 씨를 뿌린 곳에서 싹이 실리기 시작했다. (×)

직관적으로 다음과 같이 바꿔 봐도 확인할 수 있어.

㉠ 유명인이 광고에 나오다.

- ① 어제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다. = 어제 신문에 유명인이 나왔다.

답 | ①

말이 나온 김에 2)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상 자연 현상과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시된 만큼 천의 표면적인 모습 외에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㉔ 질었다.

- ①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질어 건물 외벽을 점점했다.
- ② 질게 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
- ③ 철수는 질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 ④ 정원에서 꽃향기가 질게 풍겨 온다.
- ⑤ 해가 지고 어둠이 질게 깔렸다.

해설 풀이 ‘질다’와 호응하는(어울리는) 단어의 성격을 살펴보자. ①(‘가능성’)은 추상적인 반면, ②~⑤(‘커피, 안개, 꽃향기, 어둠’)는 모두 구체적이어야. ㉔(‘경향’)도 추상적이지? 답은 ①이야~.

답 | ①

- 01 ④ 02 ② 03 ② 04 ② 05 ④ 06 ⑤ 07 ③ 08 ④
09 ② 10 적절하지 않음 11 ③ 12 적절함 13 ⑤

01 실제 상황에서는 늘 작품과 함께 <보기>를 보겠지만, 지금은 훈련 중이니 <보기>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지문을 생략해 봤어. 적절하지 않은 선지 '유형 1', '유형 2'는 <보기>만으로도 풀 수 있다고 했지? 이를 기술 적용 **01**번, **02**번, **03**번으로 연습해 보자.

<보기>와 선지가 잘 연결되나 살펴보자!

{ 보기 }

'무영탑'은 작가 현진건의 예술관, 민족주의적 태도, 현실인식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석가탑 조성에 얹힌 인물들의 이야기를 펼쳐 내면서 숭고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는 석공 아사달이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예술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 특히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① '유종'이 '이백'을 칭송하는 '금지'를 비판하고 화랑도 사윗감을 구하려 하는 장면에서,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②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등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사랑과 예술혼을 융합해 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군.

③ '금지'와 같은 '당학파'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장면에서, 외세를 추종하는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⑤ '아사달'이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주만'을 '떠오르는 햇발'로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아사달'의 고뇌가 드러나 있군.

다른 선지는 <보기>를 바탕으로 한 것에 비해, ④는 <보기>와 정면으로 배치돼.

{ 보기 }

신앙의 궁극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④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한 장면에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군.

<보기>는 신앙의 궁극에 이른다고 했는데, ④는 신앙의 세계에 갈 수 없다고 했으니 적절하지 않아!
답 | ④

〈보기〉와 명백히 어긋나는 선지는 지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②가 정답이야. 〈보기〉에 따르면 이념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조차 은폐되고 왜곡되는 건데, ②의 ‘이념을 택하는 당대 지식인의 실천적 의지’는 오히려 이념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라 적절하지 않아. 주인공의 이념 선택이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비판적 대안’도 아니고!!

나머지 선지들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자. 지문이 있었다면 모든 내용을 좀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느슨한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보기〕

4.19 직후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은 당대에 금기시되던 이념 대립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친 점에서 전후 분단 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한 간 이념의 이분법적 구도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만이 아니라 각 체제 내의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조차 이념의 이름으로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광장〉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① 이념적 선택을 강요하는 억압적 상황에 처한 이의 심정이 드러나 있어. 주인공이 중립국 선택을 마치고 난 후에 보인 반응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③ 현실의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기에 급급한 체제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어.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사람들을 꾀는 마술사의 속임수를 비꼬듯 이야기한 데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④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는 이들을 격리하려는 권력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식이 드러나 있어. 항구를 차지한 이들이 바다에서 돌아온 이들을 감금하려 한다는 대목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⑤ 이념적 대립 구도에 갇힌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일상적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드러나 있어. 주인공이 중립국에서 누리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기술한 데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답 | ②

03

지문을 생략했지만 발문과 <보기>의 관계를 보면 (가)는 김광균, (나)는 박용래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지문을 읽고 푸는 것이기에 이런 추론은 불필요해.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균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1950년대 후반의 시적 경향을 보여 주는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다. 그는 사라져 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고,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 ① (가), (나) 모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군.
 ②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군.
 ③ (가)의 '무성한 잡초'는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따른 상실을, (나)의 '화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군.
 ④ (가)는 (나)와 달리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제시하고 있군.
 ⑤ (나)는 (가)와 달리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②의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드러냈다는 것은 <보기>를 전혀 참고하지 않은 내용이야. 따라서 지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야. 답! ②

04

시의 제목이 '촉규화'야. 그리고 <보기>를 보면 최치원이 자신의 처지를 '촉규화'에 투사(=투영=의탁)했다고 했지? 즉, 촉규화가 곧 화자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되겠다.

쓸쓸하게 황량한 발 곁에

: 공간적 배경이 쓸쓸, 황량한 발이네.

탐스러운 꽃이 어린 가지 누르고 있네.

: '꽃'=촉규화(접시꽃)=화자 '나'는 발과 달리 탐스럽네. <보기>의 '탁월한 능력'과 대응돼. 앞의 '발'은 '출신상의 한계'라는 <보기>와 대응되겠지.

향기는 매우(梅雨) 지나 희미해지고

그림자는 맥풍(麥風) 맞아 기우뚱하네.

: 자신의 '향기'가, '그림자'가 시간이 지나 희미하고 기우뚱하네.

수레나 말 탄 사람 그 뉘가 보아 줄까?

: '수레나 말 탄 사람'이면 지체가 높은 사람일 텐데 아무도 안 봐 준대.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다는 <보기>와 대응해.

별이나 나비들만 엇볼 따름이네.

: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산다는 <보기>와 대응해.

태어난 곳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

: '출신상의 한계'라는 <보기>와 대응해. 정서는 부끄러움!

사람들이 내버려 두니 그저 한스럽네.

: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다는 <보기>와 대응해. 정서는 한스러움!

답은 ②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능력을 조만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지문에서도, <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없어! <보기>와 선지 간 대응을 살펴보자. (지문과 선지 사이의 대응은 네 몫으로 남길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고민해 봐!)

【보기】

최치원의 <촉규화>는 삶의 현실이나 인식 태도를 사물에 투사하여 그 사물과 자아의 동일성을 이룬 한문 서정시의 하나이다. 최치원의 삶을 고려할 때,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출신상의 한계로 인해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채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할 때가 많았다. 최치원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화자'를 통해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촉규화'에 투사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① [A]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상의 한계와 탁월한 능력을 대비하여 말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조만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자신을 크게 써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평범한 이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과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
- ⑤ [A]에서는 '촉규화'의 외양 묘사를 통해, [D]에서는 '촉규화'의 내면 서술을 통해 화자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어.

답 | ②

05~07 지문 분석

시를 읽어 보자. 제목을 보고, 〈보기〉를 읽은 뒤에 작품을 읽는 게 효율적이야. 특이하게 시마다 〈보기〉가 있네. 어렵다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갑고 고맙게 여겨야 해. ㄷ (가)의 파초우.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초파는 아는데....., ㄹ)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통과. ㄱ-a 06번 문제에 제시된 〈보기〉를 보니 ‘자연-교감-성찰-자연과 하나(합일)-은둔’ 등을 말하고 있네.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 외로움이라는 정서 등장! 시적 대상은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 구름에게 어디서 쉬지 묻고 있어. 시간적 배경은 밤!

: 구름이 화자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 〈보기〉에서 ‘화자는 자연을 떠돌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성긴 빗방울

: 비가 오네.

파초 앞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 아, 파초 앞에 떨어지는 비라서 파초우인가 봐.

창 열고 푸른 산과

: 산은 자연이고,

마주 앉아라.

: 마주 앉는다는 건 교감하는 거겠지?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 〈보기〉의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자연과 교감’이 빗소리를 들으며 산과 교감하는 것과 대응되나 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 산이 참 좋아라~. 정서 그리움 등장! 대상은 산이네!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 구름이 내 꿈을 스쳐갔다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_@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 너 말고 다른 사람도 다 모를 테니. 그래도 문제 주는 데는 지장이 없어~.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 앞 연과 끝 연이 비슷하지? 수미상관이라고 배웠어~.

〈파초우〉는 교과서나 EBS 교재에 없었던 작품이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출제자가 〈보기〉를 준 거야. 〈보기〉조차 없었으면 맨땅에 박치기하는 느낌이었을 거야.

이제 (나)를 읽어 보자. 제목을 보니 화자는 사평역이라는 공간에 있어. 그리고 07번 문제에 제시된 <보기>를 보니 '막차-공감 어린 시선-고단한 삶-견디어 내는 사람들-한 줌의 눈물(=선물)' 등을 말하고 있어.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막차를 기다리는 상황. 늦은 시간이겠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장소는 대합실. 밖에는 눈이 쌓였어.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툰툰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유리창에 난로 지피는 게 비친다는 뜻이겠지.

그믐처럼 멎은 줄고

:그믐은 뭔지 잘 모르겠으니 통과~. 줄고 있다는 걸 보니 피곤한가 봐. <보기>의 '고단한 삶'과 대응돼.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감기에 걸렸나 봐. 이것도 <보기>의 '고단한 삶'과 대응돼.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 '그리웠던 순간들'이 뭔지 모르므로 통과. 정서가 그리움이라는 것만 파악하면 충분해. <보기>에서도 딱히 해석의 다양성을 제한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문제화되지 않는다는 뜻~.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난로에 톱밥을 넣으면 좀 더 따뜻해지겠지? <보기>의 '선물'과도 연결돼.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차가운 손을 난로에 댄다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일까? 뒤에서 말해 주겠지?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보기>의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속내'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마음인지는 그래도 잘 모르겠음. @_@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 '고단한 삶'과 연결되겠다.

샤룩샤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 침묵하고 있는 것과 연결돼
 자정 넘으면
 : 시간이 지나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 설원은 눈 덮인 곳을 말하니,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덮인다는 건가 봐.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 [A]의 뒷부분(7~8행)과 [C]의 뒷부분(26~27행)이 비슷하다!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한 줌의 눈물 =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

이 정도 읽었으니 문제를 풀어 보자.

05

- ①: (가)에서는 ‘구름’을 사람에 빗냈고, (나)에서는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그믐처럼’, ‘단풍잎 같은’ 같은 비유가 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은 (가)와 (나) 모두에 없어.
- ②: 두 시 모두 역동적인 분위기는 아니야. (나)는 침묵하며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상황이니 오히려 정적인 분위기~.
- ③: (가)는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게 나오니 하강의 이미지가 맞아. 하지만 이를 통해 현실적 관심을 나타내는 부분은 없어. 06번 <보기>에 나왔듯이 화자는 오히려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나)에는 상승의 이미지가 아예 없고, 오히려 ‘송이눈이 쌓이고’, ‘눈꽃은 쌓이고’ 등을 보면 하강의 이미지야.
- ④: (가)에 ‘그리운 산아’가 나오고, (나)에 ‘그리웠던 순간들’이 나오니 적절한 선지! 정서를 문제화했다는 것에 주목해!!
- ⑤: (가)에서는 ‘구름’을 화자 자신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라는 질문을 구름에게 두 번 한 것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한 거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나)에는 질문 자체가 없어. 따라서 적절하지 않아.

답! ④

〈보기〉

〈파초우〉는 조지훈이 스스로 ‘방랑시편’이라고 했던 작품들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을 떠돌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자로,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 ① 제1연: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화자가 ‘한 송이 구름’에 방랑자로서의 자신의 심정을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제2연: ‘성긴 빗방울’이 ‘후두기는’ 소리가 ‘저녁 어스름’과 어우러져,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감각적으로 제시된다.
- ③ 제3연~제4연: 화자가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화자가 자연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 ④ 제4연: ‘들어도 싶지 않은 물소리’는 화자와 자연과의 교감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제5연: ‘어디메’는 자연 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을 가리킨다.

어라? 다 대응되네?? 즉, 〈보기〉와의 대응 관계로는 답을 찾을 수 없어. 이럴 땐 지문과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해. (적절하지 않은 선지 ‘유형 3’에 해당돼!)

- ①: 〈보기〉를 통해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지? 투영(=투사=의탁)이라는 건 결국 ‘화자=구름’이라는 거지.
- ②, ④: 〈보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도 관련돼.
- ③: 화자가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는 마주 앉는 거였지? 이는 자연 세계를 지향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 ⑤: ①에서 봤듯이 ‘화자=구름’이었지? ‘어디메’는 구름, 즉 화자가 실 곳이므로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과는 거리가 멀어! 이게 정답!!

답! ⑤

〔보기〕

〈사평역에서〉의 화자는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 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한다.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 ① [A]의 ‘한 줌의 톱밥’이 불을 피우는 데 쓰여 추위를 견디게 해 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 데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
- ② [B]에서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할 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의 속내에 화자가 공감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③ [B]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④ [C]에서 화자가 지난날을 ‘호명’하며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를 견디어 내게 해 주는 힘이 과거의 추억처럼 소박한 데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어.
- ⑤ [A]에서 [C]로 전개되면서 화자가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삶의 고단함을 견디어 내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화자의 진심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열악한 상황 극복 의지? 이런 건 지문에도, 〈보기〉에도 없어. ‘한 줌의 눈물’은 선물, 위로, 공감과 관련이 있지, 극복 의지와는 거리가 멀어! 따라서 ③이 정답. 답! ③

09번 〈보기〉 문제만 풀면 지문이 아까워 기초 문제도 넣었어. 갈등은 크게 호왕과 임경업 사이(호왕이 임경업을 죽이려고 했을 때, 호왕이 임경업을 부마로 삼으려고 했을 때)와 김자점과 임경업 사이(김자점이 임경업을 반역 죄인으로 몰 때)에 있었지? 후자를 왜곡한 ④가 정답이야. 세자와 대군은 ⑤에서 보듯 무사히 귀국했어. 김자점은 임경업이 돌아오는 것을 경계하여 반역 죄인으로 몰아 제거하려고 했지. 답! ④

〈보기〉만 잘 봐도 답을 알 수 있어. 〈보기〉에 ‘김자점이 장군에게 죄를 씌워 죽이는 데 이르자 분노한 어떤 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근데 ②에서 ‘청중은 무슨 연고인 줄 몰라서 분노를 표출’한대. 이게 적절하지 않아! 지문 속의 배경은 ‘무슨 연고인 줄 모르고’ 슬퍼하지만, 청중은 꼭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입장이잖아. 〈보기〉처럼, 또 ⑤처럼 “김자점에 의해 ‘임경업’이 모해를” 입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이제 〈보기〉와 선지들을 대응해 보자.

조선 후기 사대부 심노승의 문집 <효전산고>를 보면, 종로의 담배 가게에서 <임경업전>을 낭독하는데, 김자점이 장군에게 죄를 씌워 죽이는 데 이르자 분노한 어떤 이가 “네가 자점이 더냐?”라고 외치며 벌떡 일어나 낭독자를 해쳤다고 한다. 여기서 보듯 실감나는 낭독은 청중에게 작중 인물이 직접 말하는 것 같은 극적 환상을 일으킨다. 인물의 심리가 즉각 전달되고 사건은 보다 생생해져서, 청중은 낭독자의 안내에 따라 작품을 수용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게 된다. 이 사건은 청에 대한 적대감, 임경업에 대한 혐오 의식에 바탕을 둔 <임경업전>에 청중이 얼마나 몰입했는지 보여 준다.

- ① ‘임경업’이 ‘호왕’을 꾸짖는 장면을 낭독할 때, 장군의 기개가 ‘호왕’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청에 대한 적대감을 지닌 청중은 통쾌해하겠군.
- ② 칼을 쓰고 잡혀가는 ‘임경업’을 보며 ‘의주 백성들’이 우는 장면을 낭독할 때, ‘임경업’을 혐오하는 청중은 무슨 연고인 줄 몰라서 분노를 표출하겠군.
- ③ ‘주상’이 ‘세자’를 꾸짖는 장면을 낭독할 때, 세자답지 못한 행동을 꾸짖는 ‘주상’의 분노가 느껴지면서 청중은 ‘세자’를 내리치는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받아들이겠군.
- ④ ‘사자’가 ‘임경업’에게 잡아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낭독할 때, 이야기에 몰입한 청중에게는 마치 작중 인물이 되어 그 대화를 직접 듣는 듯한 극적 환상이 조성되겠군.
- ⑤ 임금과 백성이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김자점’에 의해 ‘임경업’이 모해를 입는 장면을 낭독할 때, 간신에 대한 청중의 반감이 커지면서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군.

답 | ②

10

[앞부분의 줄거리]를 잘 읽어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이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돼. [앞부분의 줄거리]에 따르면 강남홍은 현재 인간 세상, 즉 속세에 있어. 이후 지문에서 강남홍이 취봉루에서 잠이 들어 천상계로 간 거고, “강남홍은 인간지락(人間之樂)이 어떠한가?” 보이지? 따라서 선지는 적절하지 않아. ‘강남홍’은 ‘취봉루’에서 천상계에서 속세로 입몽하는 것이 아니라, 속세에서 천상계로 입몽해. 바꿔치기 문제. ㄱ

답 | 적절하지 않음

11

문학 지문에서 발문에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의 관점에서'가 나오면, <보기>와 어긋나거나 관련 없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아. 이 단순한 원리로 문제를 풀어 보자.

[보기]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곰잔화 한 포기'를 꽃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 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의 '원망'은 <보기>의 '소망'과 어긋나. 또한 ③의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는 <보기>에 언급되지 않은, 관련 없는 내용이야. 나머지는 보다시피 잘 대응돼. 답 | ③

12

(나)가 무엇을 형상화했는지를 문제화했지? 생략된 작품 (나)를 읽어야 명쾌하게 풀 수 있긴 한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연결짓고 넘어갈게. 13번 문항 때문에 12번 문항을 소개하는 거라서!

㉠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

선지 처녀가 자신의 죽음을 '낭군의 경사'라고 말하는 장면은 김현에 대한 부처의 응답을 암시한다.

답 | 적절함

㉠ 가령 <김현감호>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현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다. ㉡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한 것이다. 전설과 달리 소설에서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루어진다. 가령 <이생규장전>은 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결연하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이야기이다.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나) <김현감호>가 무엇을 형상화한 것인지 12번으로 문제화됐어. 밑줄까지 짚 그어서. 그런데 (다) <이생규장전>이 무엇을 형상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밑줄이 안 그어져 있지? 그렇다면 문제화되지 않을까? (나)의 형상화가 문제화되었다면, 대칭적으로 (다)의 형상화도 문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게 바로 13번이야.

(가)를 바탕으로 (나), (다)의 인물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나)의 범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불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김현에게 부탁한다는 점에서 (나)에서 갈등 해결은 종교적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다)의 최낭이 이생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취를 감춘다는 점에서 (다)에서 현실의 문제는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부처의 전능함'은 ㉢의 '종교적 차원'으로 연결돼. 하지만 ㉢의 '개인 사이의 갈등'은 지문의 '개인과 세계의 갈등'과 어긋나. 즉, ㉢은 (가)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을 출제했는지 느껴지지? 13번은 사실상 12번과 대칭되는 문제야. 12번이 (나)의 형상화를 물었다면, 13번은 (다)의 형상화를 물은 거야. 답! ㉢

01 ⑤ 02 ③ 03 ④ 04 ① 05 ① 06 ① 07 ① 08 ④
 09 ② 10 ⑤ 11 ①

- 01** ①, ②, ③은 ㉠과 ㉡ 모두를 충족하지 못해. ④는 ㉠을 만족해. 하지만 아무런 구체적 정경이 없어. 따라서 ㉡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오답. ⑤가 정답! ‘포근하다’는 ㉠을 만족해. 그리고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은 구체적 정경으로 ㉡도 만족해. 답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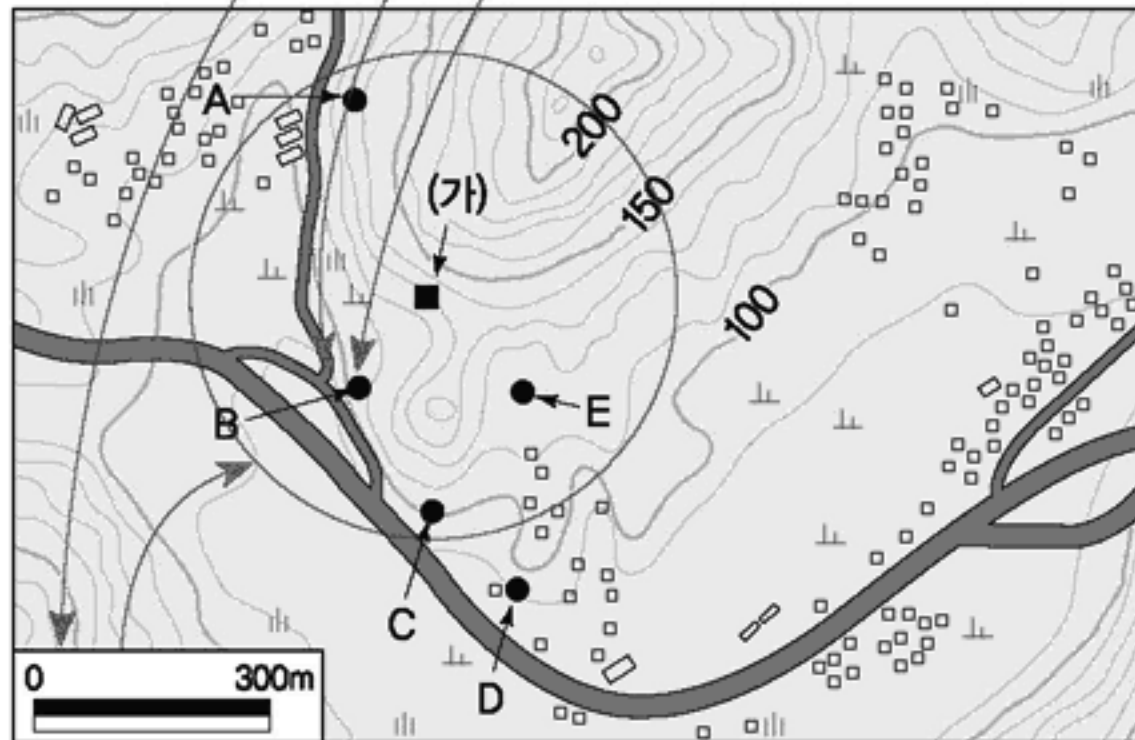
- 02** 발문을 보니 문제 해결에 대한 거지? 이 틀로 각각의 <보기>를 봐야 해. 인상적인 건 <보기 1>의 (다)야. 참고 사례(단서)에 해당하잖아! 해결책에 참고할 수 있는 건데 ③은 (다)를 문제점 분석에서 썼으니 무조건 적절하지 않아. 여기까지만 봐도 ③이 바로 정답!
- 답을 아니까 이렇게 해설한 거 아니냐고? 아니야.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 참고 사례(단서)가 제시되면 문제화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는 거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나)-1을 생태 보전을 고려한 관광 프로그램 부족과 연결하는 것도 어색해. 답 | ③

- 03** 첫 번째 조건은 1) ‘관광객의 태도 측면’을 다룰 것, 두 번째 조건은 2) ‘근거-주장-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전개 순서일 것이야. ①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주장-주장’이라 조건 2)를 충족하지 않아. 또 세 번째 문장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②는 조건 1)을, ③은 조건 1), 조건 2)를 모두 충족하지 않아. ④가 정답. [‘근거’. 그러므로 ‘주장’.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정해진 탐방로 이용).]으로 되어 있잖아.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조건 1)을 충족해~. ⑤는 ‘주장-근거-구체적인 실천 방안×’ 순서라 조건 2)에 어긋나. 답 | ④

지도에 표시된 (가) 지점을 볼 수 있는 위치를 찾고자 한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점은?
| 2009 수능 한국지리 |

- 조건 1: (가) 지점과의 거리는 300m 이내이어야 함.
- 조건 2: 다른 지형에 의해 시야가 가리지 않아야 함.
- 조건 3: 도로로부터 거리는 50m 이내이어야 함.

*거리는 지도 상의 직선 거리를 의미하며, 관찰자의 눈높이는 등고선 고도와 동일하다고 간주함. 또한 식생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핵심 풀이 조건 1을 만족하지 못해 D 탈락, 조건 2에 의해 A, C 탈락, 조건 3에 의해 E도 탈락.(A는 중간에 산이 튀어 나와 있어서, C는 중간에 산이 작게 솟아 있어서 시야를 가려.) 이렇게 소거해 나가다 보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B밖에 없어! ^^

답 | ②

04

(가)에 (나)의 조건을 적용하는 문제야. ①이 정답!

㉠ 표준 발음법 조항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곁-옷[거돋], 헛-웃음[허두슴]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예 담-요[담뇨], 홀-이불[혼니불]

‘꽃이랑’은 [꼴이랑] → [꼴니랑] → [꼴니랑]

답 | ①

05

㉠ 산야. 우뚝 솟은 푸른 산야.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야.

〔보기〕

자연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것, 시어를 반복·변용하는 것, 음성 상징어(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는 것

답 | ①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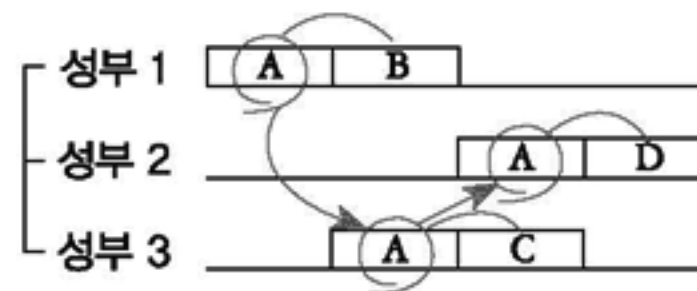
이 문제의 정답률은 높지 않았어. 수험생들이 〈보기〉의 음표를 보고 당황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발문은 ‘도입부의 짜임새’를 물었지? 즉, A, B, C, D의 짜임새를 묻고 있을 뿐이야. 이를 이미지로 나타냈다는 게 인상적일 뿐 푸는 방식은 같아. ‘모방’에 어떤 조건이 포개져 있는지 지문에서 살펴보자.

조건 1: 노래의 시작 부분에서 돌림 노래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
(=시간 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하는 반복 기법)

→ 각 성부가 시간 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하는 반복 기법

조건 2: 돌림 노래처럼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선율로 노래를 이어 간다.

이제 이 조건에 맞는 ‘사례’를 선지에서 찾아보자. ①이 바로 답이네!



조건 1: 시간 차를 두고 같은 선율 A로 시작하는 반복 기법

조건 2: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선율 B, C, D로 노래를 이어 간다.

정리: 조건 1 - (A → A → A)

조건 2 - (A → B, A → C, A → D)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지를 찾았으면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넘어가면 돼. 나머지 선지가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못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네 몫으로 남겨 둘게! 고민하는 힘이 점수를 높여 줄 거야!

답 | ①

07

〔보기〕

㉠ ‘벽돌집’은 ‘재료+대상’의 의미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뜻이다.

① 두부콩 (두부의 재료가 되는 노란 콩)

①은 의미 구조의 순서가 뒤집혔어. 즉, ‘재료→대상’이 아니라 ‘대상→재료’야. 이처럼 출제자는 순서를 지켜야 할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발상은 수학 시간에 배우는 행렬의 곱셈과 맥락이 같아. 행렬의 경우 일반적으로 $A*B \neq B*A$ 니까.)

답 | ①

08~11 | 지문 분석

지문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단어 하나 짚고 가자. 바로 ‘신화’야. 기본적으로 그리스-로마 신화, 단군 신화처럼 신들의 이야기란 뜻이야. 그리고 비유적으로 월드컵 4강 신화처럼 (마치 신이 한 것 같은) 획기적인 업적을 가리키기도 해. 그런데 이 의미로는 지문의 ‘전통은 그 전통이 생성되었던 시기를 넘어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는 신화가 형성되었다.’를 이해할 수 없어. 이때 신화는 ‘(많은 사람들의)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잘못된 신화’라고도 자주 쓰여. 국어사전에는 안 나오지만 독해를 하다 보면 이 의미로 쓰인 ‘신화’를 자주 접하게 될 거야. 예문을 하나 보여 줄게.

우리나라에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 대한 잘못된 신화가 있다. 다시 말해, 공부를 잘하면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학업 성적과 함께 도덕적인 힘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 박하식, <이젠 세계인으로 키워라> (글로세움, 2006)

여기서 ‘신화’도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지?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ㅋ

왜 이런 뜻이 생겼을까? 내 생각에는 영어의 영향인 것 같아. 신화는 영어로 ‘myth’인데, 이를 영영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두 개야. 하나는 국어사전에 나온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많은 사람들의) 근거 없는 믿음’이야! 영어를 쓰는 사람도 많고, 번역되는 책도 많다 보니 myth의 두 번째 뜻이 수입되어 한국어 ‘신화’에 찰싹 달라붙은 것 같아.

좀 더 근본적인 의문. 왜 myth에 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 외에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 덧붙었을까? 아마 이성이 강조되면서 [신들의 이야기 → 상상 속 이야기 →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 → 증명되지 않았거나 틀린 이야기] 이렇게 신화를 보는 관점이 변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신화’에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두 번째 뜻이 추가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내 추측. ㅋ (아니면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을 읽어 보자. <독해력 강화 도구 3가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만 내가 몇 번 소개해서 익숙할 거야~. 배운 대로 써 보자!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자기 문화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떤 제도나 관념을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여긴다. 나아가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문화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믿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전통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 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서 과거의 문화를 오늘날과는 또 다른 문화

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홉스봄과 레인저는 오래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전통의 대부분이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발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킬트(kilt)를 입고 전통 의식을 치르며, 이를 대표적인 전통문화라고 믿는다. 그러나 킬트는 1707년에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합병된 후, 이곳에 온 한 잉글랜드 사업가에 의해 불편한 기존의 의상을 대신하여 작업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킬트는 하층민을 중심으로 유행하였지만, 1745년의 반란 전까지만 해도 전통 의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반란 후, 영국 정부는 킬트를 입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일부가 몰래 집에서 킬트를 입기 시작했고, 킬트는 점차 전통 의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킬트의 독특한 체크무늬가 각 씨족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 1822년에 영국 왕이 방문했을 때 성대한 환영 행사를 마련하면서 각 씨족장들에게 다른 무늬의 킬트를 입도록 종용하면서부터이다. 이때 채택된 독특한 체크무늬가 각 씨족을 대표하는 의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킬트의 사례는 전통이 특정 시기에 정치·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근대 국가의 출현 이후 ㉠ 국가에 의한 '전통의 발명'은 체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은 그 전통이 생성되었던 시기를 넘어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는 신화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전통은 특정한 시공간에 위치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성되어 공유되는 것으로, 정치·사회·경제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시대마다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전통을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분리하여 신화화(神話化)하면 당시의 사회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낯선 타(他) 문화를 통해 자기 문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듯이, 과거의 문화를 또 다른 낯선 문화로 봄으로써 전통의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신화화된 전통의 실체를 폭로하려는 데에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문화를 타 문화로 인식함으로써 신화 속에 묻혀 버린 당시의 사람들을 문화와 역사의 주체로 복원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전통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을 통해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해결], [주장 근거], [일반 구체]가 쓰였어.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첩되어 있어. 해결책이 곧 주장이고, 근거로는 구체적 사례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문제 해결]은 전에 배웠던 심층 구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

문제 대상: 전통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 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이유: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자기 문화에 익숙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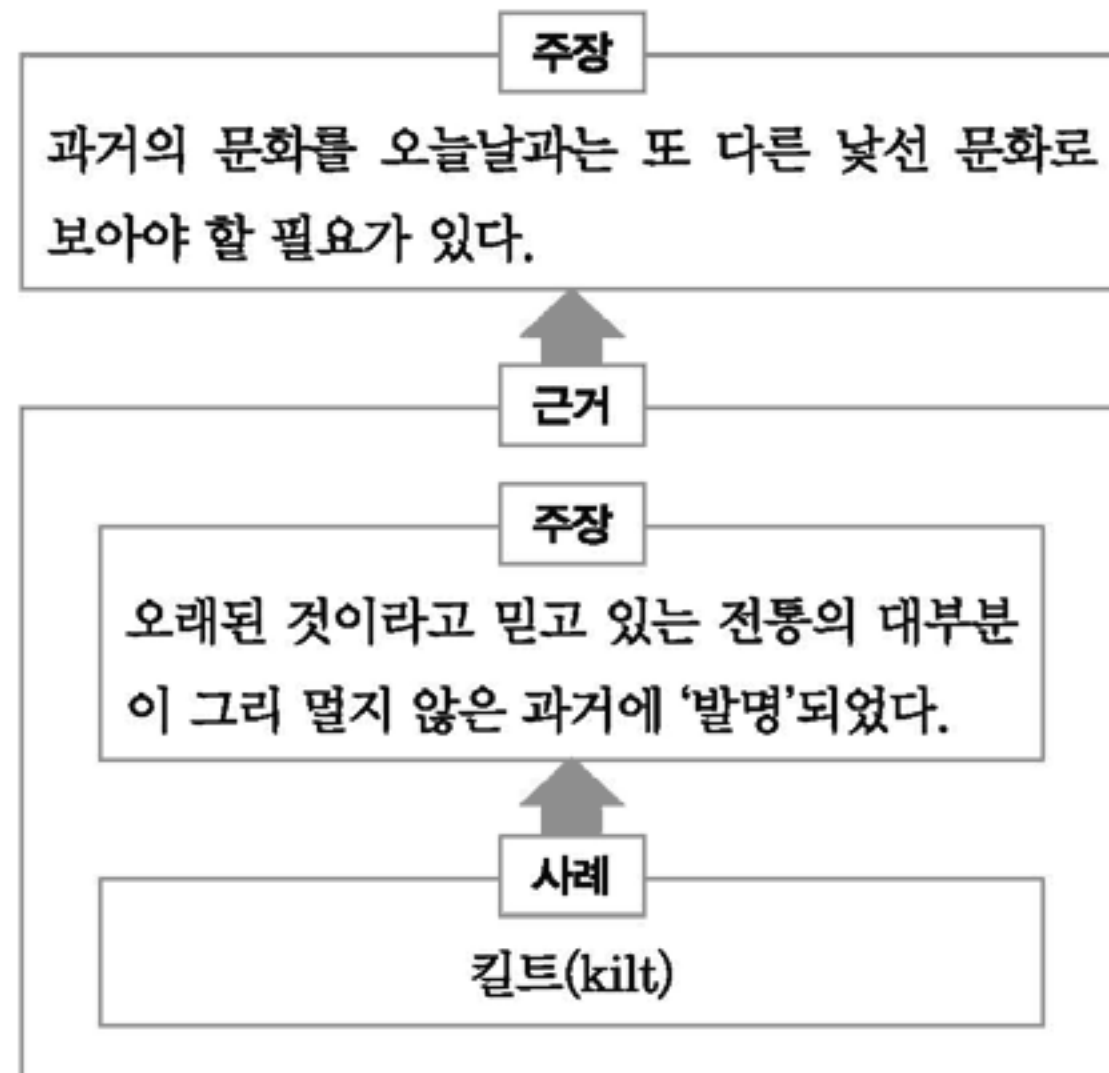
해결 수단: 과거의 문화를 또 다른 낯선 문화로 봄.

↳ 목적: 전통의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

08

‘오래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전통의 대부분이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발명’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예컨대’ 하고 킨트를 사례로 제시했으니 ④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다면 정답은 맞았지만 과정이 틀렸어. 글의 구조를 잘못 본 거야. 이 글의 구조는 다음과 같아.

발문을 보면 ‘논지’를 알아야 해. 글의 가장 큰 틀은 [문제 해결]이었으니, 해결책이 이 글 전체의 논지라고 볼 수 있어. 즉, 과거의 문화를 오늘날과는 또 다른 낯선 문화로 보아야 한다는 게 논지! 이에 대한 근거로 ‘홉스봄과 레인저’의 주장이 킨트 사례와 함께 소개됐어.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



이런 관점에서 ④를 해석해야 해. 어떤 주장과 근거 묶음이 다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뒤. 답 | ④

09

[문제 해결] 구조에서 ‘핵심 주장’은 해결책이야. 이를 그대로 표현한 게 ②고!

②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해결 목적)하려면 과거의 문화를 낯선 타 문화로 볼 필요(해결 수단)가 있다.

답 | ②

10

발문을 잘 읽어야 해. 분류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지? ⑤의 ‘조사 결과’는 전통의 현재적 의미에 해당하므로 분류(연결)가 적절하지 않아~.

김치 문화에 대한 조사 결과	개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는 한국인이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삶의 활력소이자 힘의 원천으로 간주된다. • 김치는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뚜렷하게 구별해 주는 문화 요소이다. 	전통의 현재적 의미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는 <u>한민족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다.</u> 	전통의 타 문화화 ⑤

그렇다면 ‘전통의 타 문화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 몰라. 지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나오질 않았으니까. 하여튼 답을 찾았으면 다음 문제로~. 답 | ⑤

11 10년도 넘게 지난 문제인데 참 잘 만든 문제야. 당시 정답률이 낮은 편이었는데 맞혔을지 모르겠다. 조건을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아.

① 국가에 의한 ‘전통의 발명’은 체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은 그 전통이 생성되었던 시기를 넘어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는 신화가 형성되었다.

① 인도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것으로 믿고 있는 현재의 카스트 제도는, 영국이 종교 지도층인 브라만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 왕권을 약화시킴으로써 식민 통치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변형된 것이다.

표를 통해 다른 선지들도 살펴보자.

	국가에 의한	체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	생성되었던 시기를 넘어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는 신화
①	○	○	○
②	×	○ (사회를 통합하는 데 큰 역할)	×
③	×	×	×
④	×	×	×
⑤	○(나치)	○ (체제를 공고히 했다.)	×

매력적인 선지 두 개만 살펴보자. ②는 ‘스페인’이 나오긴 했지만, 스페인에 의해 성모 ‘과달루페’가 나타났다는 말이 없으므로 첫 번째 조건에 어긋나. 그리고 정말로 오래된 것이므로 세 번째 조건에도 어긋나. 세 번째 조건은 실제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잘못된 믿음이 형성된 것을 말하니까. ⑤는 ‘나치’가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해. 하지만 아주 오래된 것으로 믿고 있다는 부분이 없으므로 땡!

답 | ①

01 ② 02 ⑤ 03 ① 04 ③ 05 ① 06 ② 07 ⑤ 08 ②
09 ③ 10 ① 11 ①

01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이야. 늘 출제되던 유형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 다들 <국어의 기술 1, 2>를 봤다면 쉽게 맞혔을 텐데!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보기>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짝 지은 것은?

〔보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당시 <보기>의 ㉣다른 개가 인간에 대응된다는 것을 헛갈린 학생들이 많았어. 다음과 같은 구조인데, 차분히 살펴보기만 하면 쉽게 대응시킬 수 있어.

㉠실험동물과 인간 ㉡유사성

→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

㉣어떤 개와 ㉤다른 개 ㉥비슷하게 생긴

→ ㉣어떤 개의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다른 개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

답 | ②

02

〈보기 2〉에서 〈보기 1〉의 ㉠을 찾으라고 했어. 즉, 〈보기 1〉의 ㉠과 대응하는 것을 〈보기 2〉에서 찾으라는 거야.

〔보기 1〕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전봇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반복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리듬감을 느끼고, 그 리듬의 틀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간혹 전봇대 하나가 안 보이기라도 하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또 전봇대가 촘촘히 나타나면 급한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다시 ㉠ 원래의 간격을 회복하면 기대감이 충족되어 편안함을 느낀다.

〔보기 2〕

금강일만 이천봉이 눈아니면 옥이로다
 혈성루 올라가니 천상인 되었어라
 아마도 서부진화부득은 금강인가 하노라

* || ||: 한 음보의 길이.

답 | ㉠

선배/들의 질문

Q ㉢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원래의 간격을 회복했으니까요.

A 항상 글의 흐름(문맥)을 잘 살펴야 해. ㉠, [A], ㉡으로 지칭된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야. ㉠은 '전봇대가 촘촘히 나타나면 급한 느낌이 든다.' 다음에 나온 말이야. ㉢의 앞의 상황은 이를 충족하지 않아서 정답이 될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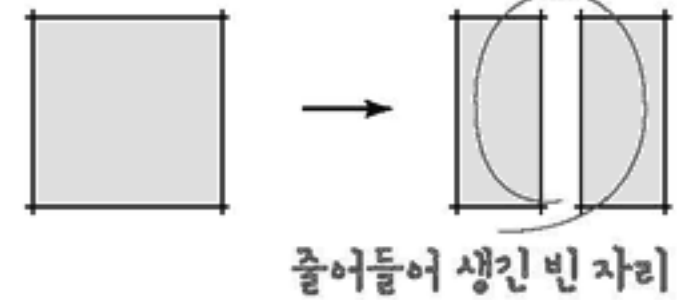
03

일단 사례 문제지? 조건을 뽑아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풀면 돼. 그런데 이 문제는 유비 문제이기도 해. 그림책의 그림과 건축 설계가 유사하다고 보니까. 유비는 대응이 핵심이지? 종합하면, 조건의 대응으로 풀면 돼.

조건은 두 가지야. 'X가 줄어들어 생긴 빈 자리', 'Y가 깎인다.' 이와 대응되는 건 ㉠이야.

㉠말이 줄어들어 생긴 빈 자리에 상상력과 사유가 있든다. 이는 건축 설계 시 형태, 장식, 공간과 같은 요소들 가운데 공간을 다양하게 변용하는 데에서도 볼 수 있다.

① 한 채를 둘로 나누어 자연 공간을 끌어들인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뭔가 줄어들어 빈 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 자리를 없애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정답과 오답의 구분이 매우 명쾌하지? 그런데 당시 이 문제의 정답률이 37%로 매우 낮았어. 선지에 글과 그림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이야. 이런 선지는 처음 봤거든. 그러다 보니 그림에 조건을 대응시킬 생각을 하기 어려웠을 거야. 사례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유비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원칙을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답 | ①

04

발문에서 내놓고 ‘대응’이라며 유추임을 알려 주고 있어. 유비가 낯선 것을 익숙한 것과 대응시켜 내용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했지? 발문의 ‘〈보기〉’를 이용하여 (라)의 내용을 설명’이 바로 이를 뜻해. ㄱ

핵산이나 아미노산 따위의 생체 분자는 살아 있지 않지만 그들의 집합체인 생물체는 살아 있다. 요컨대 생명은 수많은 무생물 분자가 집합된 조직에서 나타나는 창발적 행동 (emergent behavior)이라 할 수 있다.

〔보기〕

신문의 인물 사진은 수많은 개개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신문지를 눈앞에 가까이 대어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의 모양은 나타나지 않고 점들만 보이지만, 적당한 거리로 물러나서 점들의 집합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얼굴의 윤곽이 나타난다.

‘집합체’라는 단어가 대응 관계를 알려 줘서 답을 쉽게 찾았어. 친절한 출제자. ㄱ 답 | ③

시를 읽을 때 중요한 건 의미를 대강, 대충, 대략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는 거야. 의미를 대강 파악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화자, 주된 정서와 연결 지어 봐. 그 정도면 충분해. 혹 자습서나 선생님의 해설에 익숙해서, 나도 그 정도로 해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시험장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 무엇보다 대강 해석해도 문제 푸는 데 지장 없으니 걱정하지 마. 꼭 필요한 정보라면 출제자가 <보기>를 줄 거야!

(나)를 같이 읽어 보자. 먼저 제목부터! ‘내가 만난 이중섭’이니까 화자인 ‘나’가 ‘이중섭’(시적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지?

광복동에서 만난 이중섭은

: 공간적 배경이 광복동이네. 어딘지 모르겠다.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 이게 무슨 뜻이지? 포세이돈인가……. 일단 계속 읽어 보자.

동경에서 아내가 온다고

: 동경에서 아내가 온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앞 행은 바다 건너 일본에 있는 아내를 생각한다는 뜻인가?

바다보다도 진한 빛깔 속으로

: 아내가 바다 건너에 있으니 바다가 계속 언급되네.

사라지고 있었다.

: 뭐가 사라진다는 걸까? 모르겠음.

눈을 씻고 보아도

: 보고 또 봐도

길 위에

: 길? 아내를 기다리고 있으니 아내가 오는 길이었지?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다.

: 아내가 오는 흔적이 안 보이나 봐.

한참 뒤에 나는 또

: ‘한참’, 시간이 많이 지났어. 아내는 왔을까?

남포동 어느 찻집에서

: 처음에는 광복동에서 이중섭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다르네. 남포동은 또 어디지?

이중섭을 보았다.

: 이중섭을 봤어. 아내는? 아내는 왔을까?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아

: 여전히 바다를 보고 있어.

진한 어둠이 깔린 바다를

: 시간적 배경은 밤인가 봐.

그는 한뼘 한뼘 지우고 있었다.

: 무엇을 지우고 있었다는 걸까?

동경에서 아내는 오지 않는다고,
:아내가 온다는 기대를 버렸어. 앞에서 지운다는 건 이 기대겠지?

시 전체를 대강 받아들이면 ‘동경에서 아내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슬퍼요. ㅠ)’ 정도지? 이해가 안 간 부분은 그대로 놔 두면 돼. 이 정도는 너도 할 수 있지?

이제 (다)를 보자. (다)는 마치 수필처럼 써 있어서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 하나 챙겨둘 건 제목! 제목에서 ‘뒷마루’에 주목해야 해. 시에서 ‘뒷마루=거울’이라고 한 것에 주목하고, 이 거울(=뒷마루)에 ‘어린 내 얼굴’이 비치고, 또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같이 비쳐,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겠지? 뒷마루를 통해 외할머니를 발견하는 시야.

이제 본격적으로 발문을 보자. ‘짜 지어진 것’을 고르래. 이는 대응되는 것을 고르라는 말이고, 유비 추론이야. 발문을 한 번 더 풀면, ‘(다)에서는 거울에 ‘나’랑 외할머니가 비쳤는데, 그렇다면 (나)에서 ‘나’와 외할머니에 대응되는 건 뭘까?’라는 문제야. 거울을 이중섭에게 주었으니, ‘나’는 이중섭에 대응되고, ‘나’가 그리워하는 외할머니는 이중섭이 그리워하는 대상인 아내에 대응돼. 따라서 답은 ①이야! 답! ①

이 문제가 나온 김에 자연물을 통해 무언가(사랑하는 사람, 삶의 이치, 자신의 모습 등)를 발견하는 시들을 살펴보자. (김대행,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1992). 참고)

예제

01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 그렇게 울었나 보다. //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편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_ 서정주, <국화 옆에서>

‘국화꽃’을 통해서 ‘누님’을 발견한 시야. 발견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유사성이 있어서겠지! 꽃이 피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울었던 것같이 누님도 성숙하기까지 가슴 조이던 젊음의 뒀안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

예제 02

밭에 갔던 친구가, “벌써 익은 게 하나 있네.” 하고 배 한 알을 따다 준다.

이 배가 언제 따는 나무냐 물으니 서리 맞아야 따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미리 익어 떨어지는 것이 있다 한다.

먹어 보니 보기처럼 맛도 좋지 못하다. 몸이 굳고 찹찹한 군물이 돌고 향기가 아무래도 맑지 못하다.

나는 이 군물이 도는 조숙한 열매를 맛보며 우연히 천재들의 생각이 났다.

일찍 깨닫고 일찍 죽는 그들의.

어떤 이는 천재들이 일찍 죽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했다. 천재는 더 오래 산다고 더 나을 것이 없게 그 짧은 생애에서라도 자기 천분(天分)의 절정을 숙명적으로 빨리 도달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인생은 적어도 70, 80의 것이어니 그것을 20, 30으로 달(達)하고 가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오래 살고 싶다.

좋은 글을 써 보려면 공부도 공부려니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다. 적어도 천명(天命)을 안다는 50에서부터 60, 70, 100에 이르기까지 그 총명, 고담(枯淡)의 노경(老境) 속에서 오래 살아 보고 싶다.

그래서 인생의 깊은 가을을 지나 농익은 능금처럼 인생으로 한번 흠뻑 익어 보고 싶은 것이다.

“인생은 즐겁다!”

“인생은 슬프다!”

어느 것이나 20, 30의 천재들이 흔히 써 놓은 말이다.

그러나 인생의 가을, 70, 80의 노경에 들어보지 못하고는 정말 ‘즐거움’ 정말 ‘슬픔’은 모를 것 같지 않은가!

오래 살아 보고 싶은 새삼스런 욕망을 느낀다.

_ 이태준, <조숙>

‘조숙한 열매’를 통해 ‘천재’들을 발견한 거야! 조숙한 열매와 천재들의 공통점을 찾아봐!

유성(儒城)에서 조치원(烏致院)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修道僧)일까, 묵중(默重)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은 조치원에서 공주(公州)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명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過客)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溫陽)으로 우회(迂廻)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把守兵)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默重)한 그들의, 침울(沈鬱)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_ 박목월, 〈나무〉

나무가 묵중하고, 추워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게 아니라 화자가 ‘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즉, 나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한 거야!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썸이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썸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찢찢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_ 최승호, <북어(北魚)>

북어가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언뜻 호러 영화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화자가 북어를 보며 ‘나도 북어지 나도 북어지 나도 북어지’ 이러는 것이겠지! 즉, 화자가 ‘북어’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한 거야! 화자와 북어의 공통점은? 혀가 딱딱하다(말의 변비증을 앓는다.)는 것이지!

예제
 05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으면 두려워지고
 나는 갑니다 하는 말도
 다 못하고 가버렸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가지에 낡아 가지고
 가는 곳 모르누나.
 아아 미타찰에서 만나볼 나는
 도를 닦아 기다리련다.

_ 월명사, <제망매가>

월명사가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을 보며 ‘누이’를 발견한 시야!

예제
 06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말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_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흐르는 물’을 통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예제 07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_ 김현승, 〈눈물〉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고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이 시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준다면 꽃이 시드는 것을 보고 자식의 죽음을 발견하는 시라는 거야.)

예제 08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을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

목숨이 가다 가다 농울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
 지어미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아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यो,
 청태(靑苔)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

_ 서정주, <무등을 보며>

‘청산이 지란을 기르는 것’을 보며 ‘우리의 자세’를 발견하는 시야!

예제

09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_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애국가에 나오는, ‘날아다니는 흰 새떼’들을 보며 날아다닐 수 없는(그래서 주저앉는) ‘자신’을 발견하는 시야!

겨울 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았던가. //
삶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돌출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_ 김남조 <설일>

‘겨울 나무에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며 ‘자신’을 발견하는 시야!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와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_ 이성부, <벼>

‘벼’를 통해서 ‘백성’들을 발견하는 시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가 참 많아. 문제에서 풀었던 <외할머니의 뒤편 텃마루>라는 시처럼!

06 발문의 ‘대응’을 보자마자 유추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선지의 구조만 봐도 그래. (가)의 요소와 (다)의 요소를 대응시키고, 그 의미를 시적 상황과 연결시켜 풀어내는 식이야.

- ㉠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 지리하다 아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②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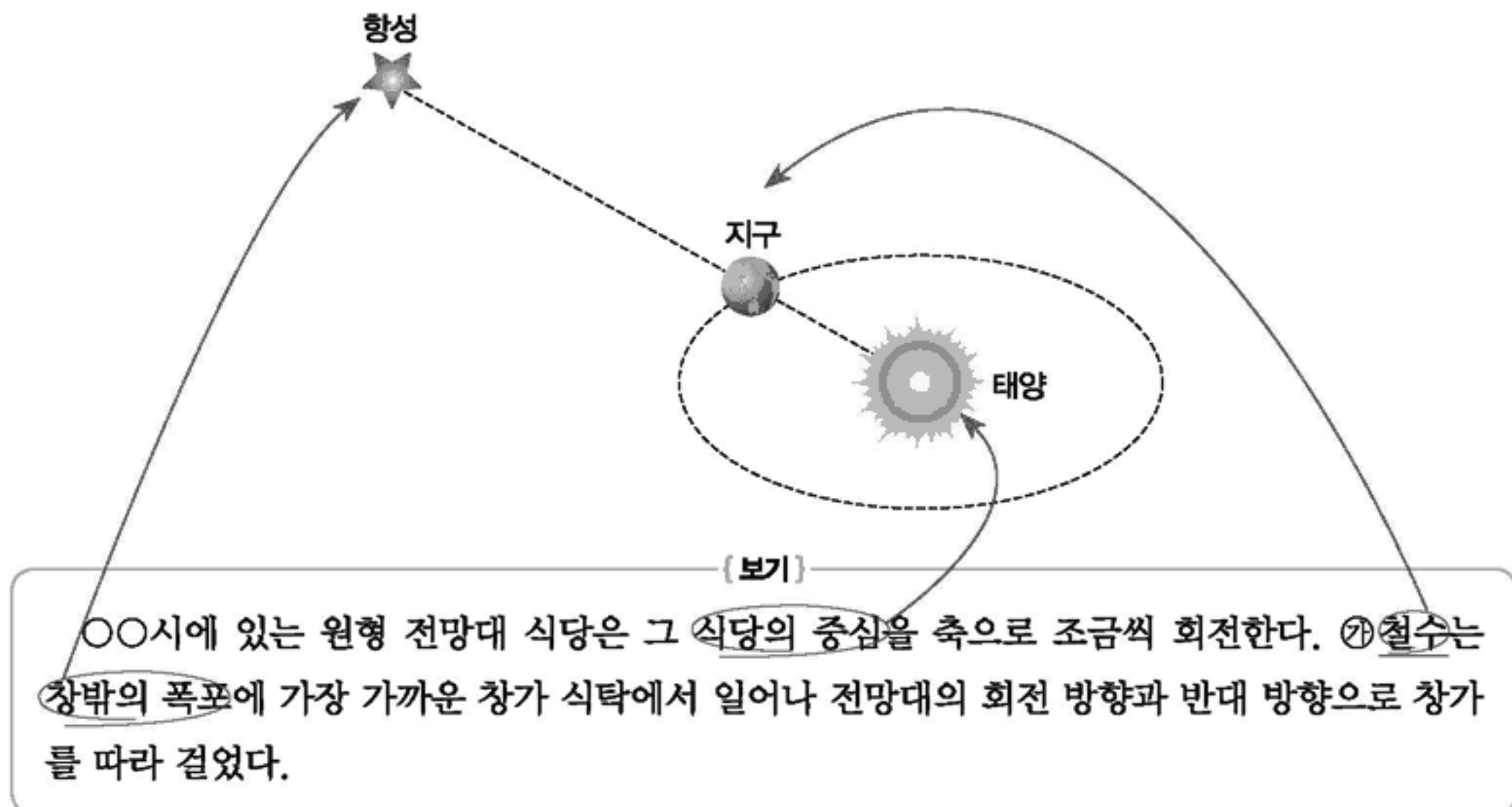
(가)의 '차디찬 티끌'은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와 대조되어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해. 그렇게 굳은 맹세가 있었지만 남은 가 버렸어~. $\pi_ \pi$ 반면 (다)는 시간적 배경이 새벽이라는 것일 뿐 인연과 관련이 없어. 정답!

나머지 선지들은 읽으면 적절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이별의 상황에서 사랑하는 남과 만나고 싶다는 상황. 문제가 너무 쉽나?! 답 |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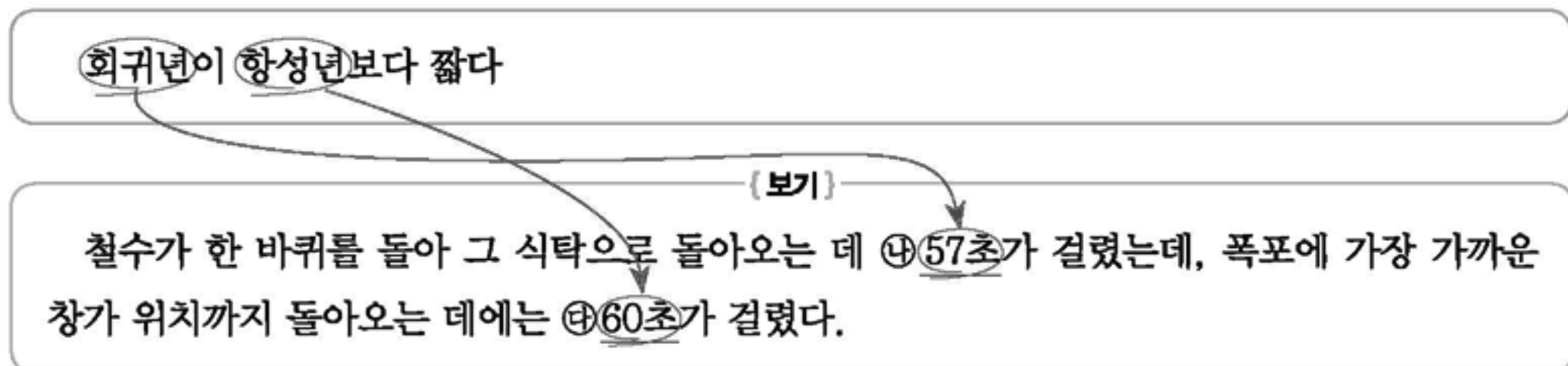
07

'해당'은 곧 대응이고, 대응은 곧 유비야. [A]를 이해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보기>와 대응할 수 있는지 묻는 거야. 전형적인 유비 문제!

먼저 상대적 위치를 통해 철수와 지구가 대응함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상대적 시간 길이를 통해 회귀년과 항성년의 대응을 정할 수 있어.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쉬운 문제야!

💡 여담이지만 <보기>의 회전하는 식당이 실제로 전국에 몇 곳 있는데, 가 본 사람들 말로는 빙글빙글 돌다 보니 가장자리에 앉으면 멀미가 날 수도 있다고 해. -_-a 답 | ㉕

발문의 ‘비유’는 유비라고 보면 돼.¹ ‘바르게 짝 지은 것’이라고 하며 대응을 물으니 유비라는 게 확실하지! 밑줄에 무엇이 써 있든 무시하고, 기호로만 그 관계를 따져 보자.

㉠은 ㉡을 일으키고 또 다른 ㉠의 원인도 된다. 하지만 ㉡은 ㉢이든 ㉣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보기 }

㉠은 ㉡과 ㉢을 일으킨다. ㉡는 다시 ㉣(개펄의 형성)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은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니 ㉠은 ㉡에, ㉡은 ㉢에 대응함을 알 수 있어.

덧글 <보기>의 마지막 문장은 뭔가 좀 이상해. ㉢(달의 모양)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했으면서, 인과적 역할을 하지 않는대. 이미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난 이 부분의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지문처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으면 적절했을 텐데. -_-a

답 | ②

| 09~11 | 지문 분석

지문 전체가 유추에 대한 이야기네. ㄴ 이 지문은 <독해력 강화 도구 3가지>에서도 다뤘는데 여기서는 문제풀이를 치밀하게 해 볼게.

‘붕어빵’을 팔던 가게에서 붕어빵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큰 빵을 ‘잉어빵’이란 이름의 신제품으로 내놓았다고 하자. 이 잉어빵은 어떻게 만들어진 말일까? ‘붕어 : 붕어빵 = 잉어 : []’와 같은 관계를 통해 잉어빵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붕어와 붕어빵의 관계를 바탕으로 붕어빵보다 크기가 큰 신제품의 이름을 잉어빵으로 지었다는 뜻이다. 붕어빵에서 잉어빵을 만들어 내듯이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라고 한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은 보통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가 필요한 경우 그것을 만들겠다고 결정한다. 둘째, 머릿속에 들어 있는 수많은 단어 가운데 근거로 이용할 만한 단어들을 찾는다. 셋째, 수집한 단어들과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과 형식을 비교하여 공통성을 포착한다. 이 단계에서 근거로 삼은 단어를 확정한다. 넷째, 근거로 삼은 단어의 개념과 형식 관계를 적용해서 단어 형성을 완료한다. 이렇게 형성된 단어는 처음에는 신어(新語)로 다루어지지만 이후에 널리 쓰이게 되면 국어사전에 등재된다.

¹ 비유, 유비, 그리고 은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건 일단 미뤄 두자. 다만 이 문제의 발문처럼 다 거기서 거기인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고 알아 뒀.

그러면 이러한 단계에 따라 ‘종이공’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종이로 만든 공’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만들기로 결정한다. 그다음에 근거가 되는 단어를 찾는다. 그런데 근거 단어가 될 만한 ‘○○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축구공, 야구공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고무공, 가죽공 유형이다. 전자의 경우 공 앞에 오는 말이 공의 사용 종목인 반면 후자는 공의 재료라는 차이가 있다. 국어 화자는 종이공을 고무공, 가죽공보다 축구공, 야구공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종이를 할 때 쓰는 공’으로 해석하지 않고 ‘종이로 만든 공’으로 해석한다. 그 결과 ‘종이로 만든 공’을 의미하는 종이공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불필요한 단어를 과도하게 생성하지 않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요에 의해 기존 단어를 본떠서 단어를 형성하므로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에서는 이러한 점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문단은 매우 구체적인 사례로 글이 시작되었지? 이를 발판 삼아 일반적 진술이 나올 거야. 1문단 끝에서 ‘내듯이’가 일반적 진술을 이끌어 내.

1문단은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2문단은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답변이야. [순서 과정]으로 전개됐는데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 → 떠올린 단어 → 근거로 삼은 단어 → 만든 단어]로 정리할 수 있지?

그리고 3문단은 사례를 들어 앞의 네 가지 단계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 1, 2문단을 꼼꼼하게 읽으면, 3문단을 휘리릭할 수 있지?

4문단에서는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고 했어. 이게 이 글의 끝~.

09

③은 글 전체의 흐름에서 벗어났어. 이 글은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만 이야기한 글이니까. 따라서 ③이 정답. 그런데 문제 해설을 이렇게만 끝내면 안 돼. 너도 여기서 생각이 끝나면 안 되고. 발문에서 배웠던 게 자연스럽게 기억나야 해. ‘두 판이 확장되지 않는 경계’에 대한 문제!! (기억이 안 나면 여러 번 반복 복습을 해야 해. 기억력을 노력으로 극복!) 이 문제의 경우 발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도 답이 ③이 돼.

윗글을 읽은 학생이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 설정한 주제로 적절한 것은?

③은 대칭적 사고에 의해 적절한 심화 학습이고, 나머지는 심화 학습이 아니라 윗글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학습이니까. ㄴ 만약 출제자가 발문을 위와 같이 바꿨다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거야. (이 책으로 공부한 사람은 빼고. ㄴ) 답! ③

10

‘근거로 삼은 단어’가 2문단에서는 짧게 언급됐지만 3문단에서는 비교적 길게 설명됐어. 그리고 이렇게 문제화됐지. 출제자가 도드라진 부분을 문제화하기도 하고, 혹은 출제할 부분을 지문에서 도드라지게 만들기도 하고. ㄱ 답은 ①이야. 쉬웠지?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	떠올린 단어	근거로 삼은 단어	만든 단어
①		결혼반지(결혼을 기념하는 반지)		
	수정으로 만든 반지	금반지(금으로 만든 반지)	금반지	수정반지
②		바닷물(바다에 있는 물)	바닷물	
	인삼 가루를 탄 물	설탕물(설탕을 탄 물)		인삼물
③	회갑을 기념하는 떡	생일떡(생일을 기념하는 떡)		회갑떡
		호박떡(호박을 넣은 떡)	호박떡	
④		겨울옷(겨울철에 입는 옷)	겨울옷	
	비닐로 만든 옷	비단옷(비단으로 만든 옷)		비닐옷
⑤	돌로 만든 잔	유리잔(유리로 만든 잔)		돌잔
		우유잔(우유를 담은 잔)	우유잔	

답 | ①

11

- 전제 1(지문): 널리 쓰이게 되면 국어사전에 등재된다.
- 전제 2(보기): ‘맑은탕’을 ‘싱건탕’보다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출되는 결론: ‘싱건탕’보다 ‘맑은탕’이 국어사전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①은 결론과 반대로 이야기하니 적절하지 않아. 정답! 나머지 선지도 적절함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싱거운 문제였어.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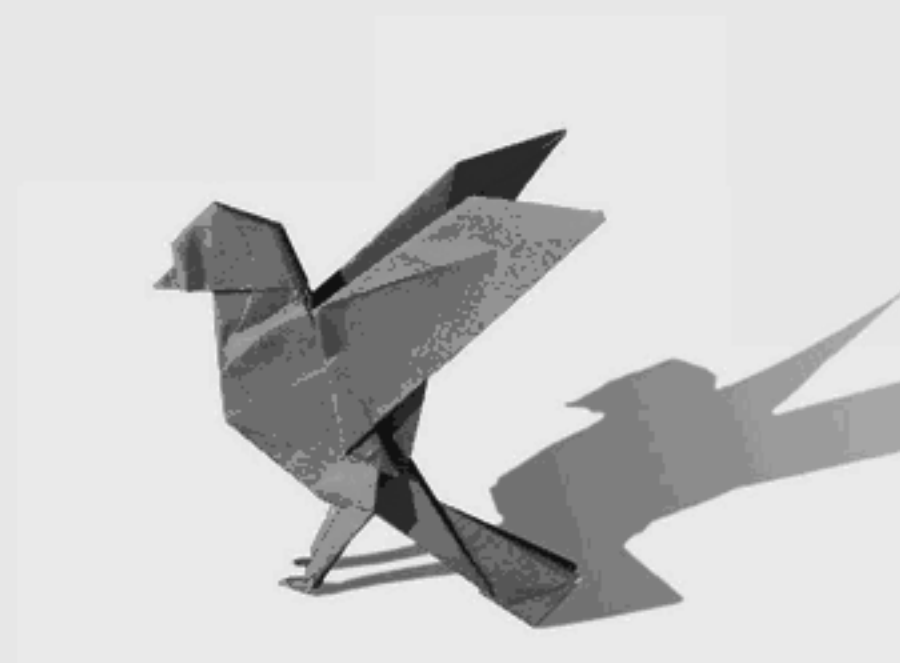
답 | ①

작 작 작 !

1권을 끝까지 공부한 것에 박수를 보내. 끝은 새로운 시작! 이제 바로 2권의 PATTERN 10으로 올라가자. 1권을 끝낸 학생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다시 1권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한 뒤에 2권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2권으로 넘어가도 되는지 하는 거야. 바로 2권으로 가도록 해.

물론 1권에서 배운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야. 하지만 이런 부분은 2권을 공부하면서 좀 더 이해가 심화될 거야. 일단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 주목해. 그렇게 2권까지 다 공부한 뒤에 다시 1권으로 와서 복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야. 2권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을 1권에서 맛보기로 보여 주기도 했고, 1권에서 공부한 게 2권에서 응용되기도 하기 때문이지. 이런 이유로 <국어의 기술 1, 2>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2권을 통해 날아올라!



정답 스피드 체크

국어의 기술 1의 모든 패턴을 한눈에 체크해 보고 싶은 사람은
정답 스피드 체크를 활용하도록 해.
자신의 실력을 총정리할 수 있어.



1 _ 발문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2 _ 반복 출현

01	02	03	04	05	06
07					



정답 스피드 체크

국어의 기술 1의 모든 패턴을 한눈에 체크해 보고 싶은 사람은
정답 스피드 체크를 활용하도록 해.
자신의 실력을 총정리할 수 있어.



3 _ 바꿔치기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4 _ _ XO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정답 스피드 체크

국어의 기술 1의 모든 패턴을 한눈에 체크해 보고 싶은 사람은
정답 스피드 체크를 활용하도록 해.
자신의 실력을 총정리할 수 있어.



5 _ 비교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6 _ 문제 해결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정답 스피드 체크

국어의 기술 1의 모든 패턴을 한눈에 체크해 보고 싶은 사람은
정답 스피드 체크를 활용하도록 해.
자신의 실력을 총정리할 수 있어.



7 _ 문학 <보기>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8 _ 조건과 사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정답 스피드 체크

국어의 기술 1의 모든 패턴을 한눈에 체크해 보고 싶은 사람은
정답 스피드 체크를 활용하도록 해.
자신의 실력을 총정리할 수 있어.



9 _ 유비 추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m e m o[illegible]

